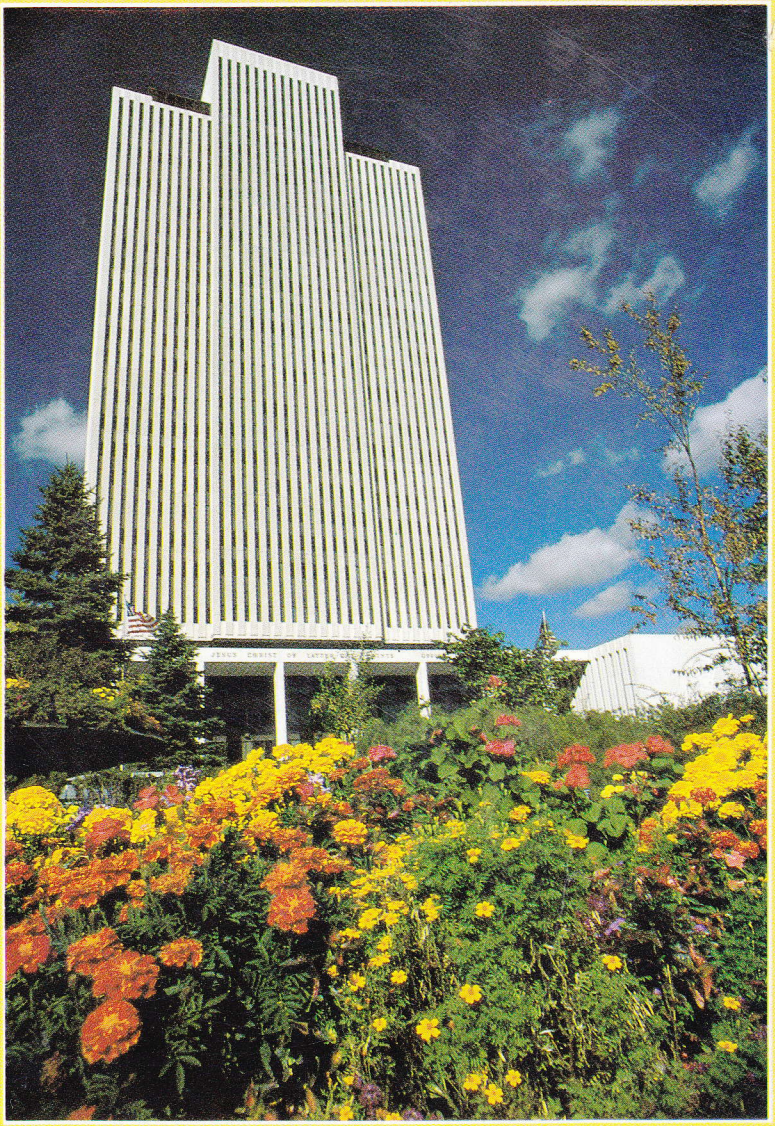
성도의 벗

1
1984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본부 건물

차 례

성도의 벗

1984. 1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대관정단

스펜서 더블류 킴볼
마리온 지 롬니
고든 비 힝클리

십이사도 평의회

에즈라 태프트 벤슨
마크 이 피터슨
하워드 더블류 헌터
토마스 에스 몬슨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애쉬튼
브루스 알 맥콩키
엘 톰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제임스 이 파우스트
닐 에이 맥스웰

고문

엠 러셀 밸라드 이세
로랜 시 딘
렉스 디 피네가
찰즈 에이 디데이
조지 피 리

"예언자의 말씀이 실린 성도의 벗을 읽읍시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제153 반연차 대회 보고 2
교회 본부 역원 지지 .....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3
너희가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4
우리의 구세주이며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 6
우리 종교의 종석 ..... 제임스 이 파우스트 장로 10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 엘 톰 페리 장로 14
부모와 자녀간의 접촉 ..... 칼로시 이 애시 장로 19
인생의 신비 .....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 22
라벨 ..... 토마스 에스 몬슨 장로 27
자유의지와 사랑 ..... 메리온 디 헹스 장로 31
친구냐 적이냐 ..... 찰즈 에이 디데이 장로 35
"네 부모를 공경하라" ..... 폴 에이치 던 장로 38
주님의 집 ..... 애드니 와이 고마쯔 장로 41
모로나이 천사의 방문 ..... 마이크 이 피터슨 장로 44
지상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할 우리의 책임 ..... 잭 에이치 고슬린드 장로 49
선교 사업의 축복 ..... 제임스 엠 던 장로 53
마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부를 받음 ..... 본 제이 패더슨웃 장로 56
불카사리를 먼지는 사람이 되십시오 ..... 데이비드 비 헤이트 장로 61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읍니까? ..... 에즈라 태프트 벤슨 장로 ... 65
속지 마십시오 .....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69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앙을 주십니다 .....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74
선견자 요셉 ..... 닐 에이 맥스웰 장로 79
화평케 하는 자가 되십시오 ..... 프랭클린 디 리차즈 장로 84
용서하지 않음으로써 오는
해독을 제거함 ..... 에이치 버크 피터슨 감독 87
실천합시다 ..... 마빈 제이 애쉬튼 장로 90
자녀에 대한 부모의 관심 ..... 하워드 더블류 헌터 장로 94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97
"당신이 어떻게 압니까?" ..... 윌리엄 알 브래드포드 장로 101
변화시켜 주는 힘 .....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 104
여러분은 몰몬경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브루스 알 맥콩키 장로 ... 107
점진해 나갑시다 .....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111
여러분의 유산에 맞게 생활하십시오 .....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115
강화해야 할 시기 ..... 바바라 비 스미스 자매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 119
주님의 자녀를 가르치기
위해 준비함 ..... 드핵 제이 영 자매 본부 초등협회 회장 124
자유의지와 책임 ..... 엘레인 케넌 자매 본부 청녀 회장 127
대회 뉴스 130
지역 소식 133

성도의 벗의 1년 정기 구독료는 3,500원입니다. 일반호의 1권 구독료는 400원이며, 1년에 두 차례 발행되는 특집의 1권 구독료는 800원입니다. 정기 구독자는 특집 구독료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 와드/지부와 카드 번호를 표시하여 성도의 벗사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 권 : 제221호, 제20권 제1호
등 록 : 1967년 10월 4일, 라-932
발행일 : 1984년 1월 1일(월간지)
발행인 겸 편집인 : 데이비드 씨 버틀러
번 역 : 한국 번역 출판부 ☎ 724-6832
발행소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 종로구 청운동 7번지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대체 구좌 010041-31-514091
인쇄인 : 삼화인쇄주식회사 유 건 수
STOCK NO. PBMA0416KO PRINTED IN SEOUL, KOREA 1/84 international magazine

© 1984년
재단 법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판권 소유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제153 반연차 대회 보고

1983년 10월 1~2일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 템플 스퀘어 태버내클에서 열린 대회의 일정 및 말씀

10월 연차 대회를 개최하며 대관장단 제2보좌인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전세계의 말일성도와 모든 곳에서 믿음을 간직하신 분들께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을 믿음을 모든 사람 앞에 증언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제1조이며 우리가 수행하는 모든 사업의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힝클리 부대관장은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우리가 특히 기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예언자요 우리의 예언자이며 선견자, 계시자로서 지지하는 우리의 친구이며 지도자이신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킴볼 대관장과 대관장단 제1보좌인 메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은 10월 1일 토요일의 개회 모임에 참석하였으며, 일요일 모임에도 모두 참석하였다. 그러나 건강상의 이유로 킴볼 대관장과 롬니 부대관장은 말씀을 하지 않았다.

힝클리 부대관장과 십이사도 정원회의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이 연차 대회의 다섯 모임—토요일 오전 및 오후 모임, 토요일 오후 신권회, 일요일 오전 및 오후 모임을 진행했다.

대회에서 다루어진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가정 복음 교육과 재활동화에 관한 대관장단 및 십이사도 정원회의 권고, (2)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전 선임 회장인 프랭클린 디 리차즈 장로가 위싱턴 디 시 신전장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를 그 정원회 회장단의 일원으로 지지, (3) 현재 오스트레일리아 멜버른 선교부의 선교부장인 남편과 함께 그곳에서 봉사하고 있는 전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제2 보좌인 셜리 더블류 토마스 자매를 해임하고 앤 스토더드 리스 자매를 지지.

대회 모임은 웨스트 스타 4개 위성과 자동 무선 레이다 12D를 통해 교회 전역의 600개 이상의 스테이크 센터에 모인 교회 회원들에게 텔레비전으로 방송되었다. 또한 신권회를 제외한 모든 모임이 웨스트 스타 5개 위성과 자동 무선 레이다 12X를 통해 약 2000개의 유선 텔레비전 체제에 의해 방송되었다. 그리고 전화선을 통해 모임이 오스트레일리아, 필리핀, 한국, 도미니카 공화국, 푸에르토리코, 캐나다 등을 포함한 1,153개 지역에 폐쇄로 라디오 방송으로 전달되었다. 또한 미국에 있는 상업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국의 특별 방송망을 통해 한 모임 이상이 방송되기도 했으며, 44개 텔레비전 방송국과 42개 라디오 방송국은 대회의 일부를 보도했다. 대회 실황을 담은 비데오 테이프는 스페인어, 포르투칼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프랑스어, 스웨덴어, 덴마크어, 네덜란드어, 핀란드어, 독일어, 노르웨이어로 구입할 수 있으며 기타 다른 방법으로 대회 실황을 보거나 들을 수 없는 세계 전역의 교회 단위 조직에 보내진다—편집자. *

교회 본부 역원 지지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토요일 아침 모임

프랭클린 디 리차즈 장로가 최근에 위싱턴 더 시 신전장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게 사의를 표하며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장단에서 그를 해임합니다. 그는 칠십인 제일 정원회가 조직된 이래 계속 선임 회장으로 봉사해 오셨읍니다.

우리는 또한 셜리 더블류 토마스 자매가 오스트레일리아 멜버른 선교부의 선교부장으로 부름받은 남편을 돕도록,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제 2 보좌직에서 그녀를 해임합니다.

리차즈 장로와 토마스 자매의 훌륭한 봉사에 진심으로 감사와 사의를 표시하고자 하시는 분은 오른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프랭클린 디 리차즈 장로의 해임으로 공석이 된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장단에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를 지지합니다.

지지하시는 분은 오른손을 들어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또한 셜리 더블류 토마스 자매의 후임으로 엔 스토더드 리스 자매를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제2보좌로 지지합니다.

지지하시는 분은 오른손을 들어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도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지난 연차 대회 이후로 총관리 역원이나 본부 역원의 변동이 없읍니다. 그러므로 현재 조직되어 있는 교회의 모든 총관리 역원과 본부 역원의 지지를 묻겠읍니다.

지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도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너희가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우리가 단합하게 되면, 하늘 아래의 어떠한 힘도 이 위대한 왕국의 진보를 막을 수 없읍니다."

전세계의 말일성도들과 가까이에서 혹은 멀리서 선의를 품고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모여 이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성대한 연차 대회를 시작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에 관한 믿음을 모든 사람 앞에 증언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제일조이며 우리의 모든 사업의 기초가 됩니다.

우리가 특히 기쁘게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기쁘고 자랑스러운 일입니다만, 예언자요, 선견자요, 계시자로 지지하는 우리의 친구이며 지도자인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수 없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전에 그분이 이 연단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수없이 들어왔으므로 그분의 위대한 간증의 말씀을 기억함으로써 우리 모두는 계속해서 격려받고 강화될 것입니다. 그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미친 영향을 누가 헤아릴 수 있겠읍니까? 만약 우리가 그분의 특성을 한 마디로 찾고자 한다면 그것은 사랑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1980년 10월 23일 대만의 타이베이에서 중국 형제 자매들을 위한 큰 대회에서 그분이 하신 말씀을 공책에 적어 놓았는데 그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사랑의 마음을 나에게 주셨읍니다. 나는 선교 사업을 하는 동안에 나의 동반자를 사랑했으며 소년 시절에 농구를 할 때는 상대편 선수들을 사랑했읍니다. 나는 전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했읍니다. 나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분이 오늘 아침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면 아마 사랑이 그의 말씀의 요지가 될 것입니다. 이 위대한 사랑의 손길이 그분의 훌륭한 지도력의 원동력이 되었읍니다. 그분의 생활은 우리 모두에게 교훈, 곧 사랑의 놀라운 힘이 들어 있는 교훈인 것입니다.

비록 그분의 육신은 최악하나 막강한 지도력은 전세계에 있는 교회에 두루 미치고 있읍니다. 그것은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추종자로 함께 묶어 주는 힘이 됩니다. 그 단결시키는 영향력은 교회의 고등 평의회에 잘 나타나 있읍니다.

우리는 또한 대관장단 제1보좌로 계신 롬니 부대관장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분의 건강 역시 좋지 않습니다. 만약 그분이 말씀하실 수만 있다면 우리 대관장님의 성품과 생애에서 나타난 위대하고 생동적인 힘에 관해 간증할 것임을 확신합니다. 나는 그것을 증언합니다. 나는 모든 십이사도들과 칠십인 그리고 관리 감독단들도 그와 같을 것임을 확신합니다.

나는 교회의 총관리 역원으로 구성된 이 평의회 및 정원회의 모든 회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대관장님의 지도력하에서 그분들이 보여 주신 사랑과 충성, 신앙과 헌신, 목적과 행동에 있어서의 단합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너희가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나의 것이 아니니라."(교성 38 : 27)

이 위대한 단합심은 참된 그리스도의 교회를 증명해 줍니다. 전세계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서 그것을 느낄 수가 있읍니다.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우리는 그의 것이 됩니다.

전세계에 사랑을 널리 퍼뜨리게 될, 이 위대한 주님의 축복을 기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의 예언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계속 단결되고 강화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하늘 아래의 어떠한 힘도 이 위대한 왕국의 진보를 막을 수 없읍니다. 나는 우리가 신앙과 헌신 그리고 주님과 그의 사업을 사랑하는 마음에 있어서나 또한 말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발전을 위해 단합하여 봉사하고자 하는 열망에 있어서 결코 모자람이 없기를 기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우리의 구세주이며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을 극복하고 인간의 실패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희망과 그러한 확신과 그러한 힘을 가지셨읍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으로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명백한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읍니다. 세상이 그분을 인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생활하며, 우리 인생의 모든 면에 있어서 그분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생각하게 되어야 비로소 우리는 지상 생활의 시련에 대처할 능력과 장래에 대해 염려를 더 이상 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 종교의 기본 원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입니다. 우리의 확신과 희망과 신뢰를 한 단일체에 집중하는 것이 왜 바람할까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우리 인생에서의 마음의 평화와 다가올 세상에서의 희망에 왜 그렇게 필요할까요?

이러한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우리가 장래에 대해 용기와 희망과 낙관으로 대처하는가 혹은 불안과 걱정과 비관으로 대처하는가를 결정해 줍니다.

나의 생각과 간증은 이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을 극복하고 인간의 실패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러한 희망과 그러한 확신과 그러한 힘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그분을 믿는 신앙을 지키고 그분의 율법과 가르침에 따라 살아야 되겠읍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나 현재나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십니다. (모사이야서 3 : 5 참조) 그분은 지상에 오시기 이전에 선택되신 분입니다. 그분은 하늘과 지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창조자입니다. 그분은 만물의 생명과 빛의 근원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우주에서 다스려지는 모든 것들의 율법입니다. 그분에 의해 창조되고 만들어진 것들은 그분의 무한한 능력에 따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께서는 미리 약속된 때에 그분의 신성을 지닌 채 고귀한 출생을 통해 지상에 내려오셨읍니다. 그분은 육신의 어머니로부터 인간의 속성과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신성과 능력으로 구성되었읍니다.

그분은 타고난 독특한 성품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육신을 지니신 독생자라는 영광된 이름을 갖게 되었읍니다. 아버지의 아들로서 그분은 과거나 미래의 어느 인간도 갖지 못할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태어났읍니다. 그분은 글자 그대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마 1 : 23 참조)

비록 그분은 지상에 보내진 아들이었지만 아버지의 신성한 계획은 예수가 필멸의 육신이 갖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받게 되어 있었읍니다. 그래서 "그는 시험을 받으며…주림과 갈증을 겪으며…기력이 진하"(모사이야서 3 : 7)게 되었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자녀의 구속주가 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완전히 아버지의 모든 율법에 복종해야 했읍니다. 그분께서 아버지의 뜻에 따랐기 때문에 그분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가시더니, 마침내" 아버지 권세의 "충만함을 받으시더라" 그리하여 "그

는 하늘과 땅에서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읍니다.(교성 93 : 13,17)

우리가 인자로 숭배하는 분에 관한 진실을 일단 알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그분이 병자를 치료하시고 질병을 물리치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며, 모든 것을 명령하셨는지 더욱 쉽게 알 수 있읍니다. 그분께서 쫓아 낸 악마조차도 그분께 복종하였고 그분의 신성을 알게 되었읍니다.

위대한 *율법가*로서 그분은 모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을 위해 율법과 계명을 주셨읍니다. 정말 그분의 율법은 이스라엘 족속과 이전에 맺은 성약을 온전케 했읍니다. 그분께서는 말씀하셨읍니다.

"보라 내가 율법이요, 빛이니, 나를 바라보고 끝까지 견딜진대 너희가 살 것이매,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내가 영생을 허락하겠음이라"(니삼 15 : 9)

그분의 율법은 모든 인간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회개하여 그분의 이름으로 침례받고 죄로부터 깨끗하고 성결케 해주는 권세인 성신을 받을 것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율법과 의식에 따름으로써 각 개인은 심판의 날에 그분 앞에 흠없이 설 수 있읍니다. 그렇게 따르는 사람은 반석 위에 그의 집을 짓는 자와 같아서 "지옥의 문이 저들을 이기지 못할"(니삼 11 : 39)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분을 *구원의 반석*(니이 4 : 30)으로 찬양합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성취하신 것에 감사나 고마움을 나타내려면 이러한 참된 진리를 기억해야 되겠읍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따르기 위해 지상에 오셨읍니다.

그분은 우리 모두의 죄의 짐을 질 것을 미리 알고 오셨읍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알고 계셨읍니다.

그분은 모든 인류의 구세주이며 구속주로 태어나셨읍니다.

그분은 인자이시며 아버지의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그의 사업을 성취할 수 있었읍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사업을 기꺼이 성취하려고 했읍니다.

필멸의 인간은 다른 사람을 실패와 타락된 상황에서 구속시킬 권세나 능력을 갖지 못하며, 자진하여 생명을 잃거나 다른 모든 인간을 위한 부활을 가져올 수도 없었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러한 사랑의 구속의 일을 기꺼이 행할 수 있었읍니다.

우리는 그분이 행하신 일을 어떻게 수행하셨나를 필멸체로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왜 그분이 그 일을 하셨는가를 잊어서는 안되겠읍니다.

그분이 하신 모든 것은 우리에 대한 희생적이고 무한한 사랑에 의해 이루어졌읍니다. 그분의 말을 들어 봅시다.

"보라, 인간이 회개하면 고난을 받지 않게 하려고 나 하나님이 만민을 위하여 이미 고난을 겪었느니라……

"그 고난은 하나님이요 모든 자 보다 가장 위대한 나를 고통으로 떨게 하였고 모든 구멍에서 피를 쏟게 했으며 육체와 영혼이 다 괴로움을 당하였으므로 그 쓴 잔을 마시지 않고 물러서려고까지 하게 하였느니라.(교성 19 : 16,18)

구세주께서는 지상 생활의 경험에서 그러한 성품을 보여 주셨듯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쓴 잔을 받아 마셨읍니다.

그분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모든 인간의 고통을 겪으셨기 때문에, 회개하는 자는 고통을 겪지 않게 되었읍니다.

그분께서는 아무 불평이나 보복없이 원수로부터 굴욕과 모욕을 감수하셨읍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분은 십자가에서 채찍질과 잔인한 수모를 참아 내셨읍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자진하여 죽음을 감수하셨읍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읍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요한복음 10 : 18)

그분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요한복음 11 : 25 참조)

그분의 생명을 소생케 하는 위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 곧 인자이기 때문에 가능하였읍니다. 그분께서는 죽음도 극복할 위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부활될 것입니다.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요한복음 14 : 19)

우리는 그분의 이름, 곧 그분의 업적을 나타내는 신성화된 명칭들을 얼마나 숭배합니까?

그분은 우리의 *위대한 모범*이십니다.

그분은 완전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셨고 우리가 어떻게 세상 죄로부터 벗어나고 올바르게 우선 순위를 행할 것인가를 보여 주셨읍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소심한 약점을 극복하고 대인 관계에서 애정과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가를 보여 주셨읍니다.

그분은 *생명의 떡*이십니다.(요한복음 6 : 35)

금식과 기도와 남을 위한 봉사를 통해 그분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마 4 : 4) 아버지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보여 주셨읍니다.

그분은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되 죄는 없으시며"(히 4 : 15) 즉 시험을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히 2 : 18 참조)

그분은 *평강의 왕*이시며 최고의 보혜사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분은 슬픔과 죄로 고통받는 마음을 달래 주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어떤 사람도 주지 못하는 특별한 평화를 주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요한복음 14 : 27)

그분은 *신한 목자*이십니다.(요한복음 10 : 11 참조)

그분은 모든 신성한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을 지니고 계십니다. 그분은 고결하시며 인내심이 강하시며 친절하시며 오래 참으시며 자비로우십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어떤 요소라도 약하거나 부족하다면 그분은 기꺼이 강화시켜 주시고 보상해 주십니다.

그분은 *기묘자*이며 *모사*이십니다.(이 9 : 6 참조)

진실로 인간의 어떠한 상태——고통, 무지, 부적합, 정신 박약, 혹은 최악 등도 그분이 모르시거나 그분의 사랑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읍니다.

그분은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 11 : 28)

그분은 우리의 변호인이며 중재자이시며 판사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완전하게 공의와 자비로 다루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소송을 변호하고 우리의 죄를 심판해 주십니다.

그분을 믿는 신앙은 그분이 살아 있음을 믿는 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죄를 고백하는 것 이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그분에게 완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처럼 그분은 무한한 권세와 지혜와 사랑을 지니셨읍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문제는 없읍니다. 그분은 모든 것보다 낮게 몸을 낮추었기 때문에(교성 122 : 8 참조) 그분은 우리가 일상의 어려움에서 벗어나도록 어떻게 도와야 하는가를 알고 계십니다.

그분을 믿는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는 비록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분은 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고로 우리는 그를 바라보아야 하며 "무슨 생각을 하든지, 의심하지 말며 두려워 말"(교성 6 : 36)아야 하겠

읍니다.

그분을 믿는 신앙은 그분께서 모든 백성과 모든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다스릴 수 없는 악은 없읍니다. 모든 것이 그분의 손에 달려 있읍니다. 이 지구는 그분의 정의로운 지역입니다. 아직은 그분께서 악을 허용하셔서 우리는 선과 악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읍니다.

그분의 복음은 모든 인간의 문제와 사회의 악에 대한 완전한 처방입니다.

그러나 그의 복음은 우리 생활에 적용될 때에만 오직 효과가 있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쁘게 지"켜야 합니다. "보라 그리스도의 말씀은 너희가 행하여야 할 바를 모두 전하여 주심이라"(니이 32 : 3)

우리가 그분의 가르침을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을 믿는 신앙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모든 인류가 다음과 같은 그분의 말씀을 행한다면 이 세상은 얼마나 달라지겠읍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마태복음 22 : 37, 39)

그러면 오늘날 개인과 사회와 국가가 당면한 문제와 역경을 생각해 볼 때 "무엇이 행해져야 하나?"라는 질문의 대답은 무엇이 되겠읍니까. 여기 그분의 간단한 처방이 있읍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며 그가 하늘과 땅과 만물을 지으셨음을 믿으라. 그가 천지간의 모든 지혜와 모든 권세를 가지셨음을 믿으며, 인간은 모든 것을 알지 못하나 하나님은 만사를 아시는 분이심을 믿으라.

"또한 너희 죄를 회개하여 죄를 버리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함을 믿으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너희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구하라 진실로 너희가 이 모두를 믿을진대 이를 행하라.(모 4 : 9-10)

교회의 회원으로서 우리는 죄없는 인간의 아들을 우리의 이상-지상에 오셨던 완전한 분-으로 만들 의무가 있읍니다.

"고귀하심의 가장 탁월하신 모범가

"본질에서 하나님과 같으신 분

"완전한 사랑을 지니신 분

"우리의 구속주

"우리의 구세주

"영원하신 아버지의 흠없는 아들

"빛이요 생명이요 길이라(데이비드 오 맥케이, *임프르브먼트 이라*, 1951년 6월 478페이지)

나는 온 마음을 다해 그분을 사랑합니다.

나는 그분이 팔레스타인의 먼지 길을 걸으실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는 사랑이 가득찬 자비로우신 주님이라는 것을 겸손하게 간증드립니다. 그분은 지상에 있는 그분의 종들과 가까이 계십니다. 그분은 오늘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염려하시며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이런 사실을 여러분은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은 오늘날 우리의 주님이며, 선생님이며, 구세주이며, 구속주이며, 우리의 하나님으로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모든 사람을 축복하여 주십니다. 나의 겸손한 기도는 그분을 믿고 받아들이며, 경배하고 그분께 완전히 의지하고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우리 종교의 종석

제임즈 이 파우스트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몰몬경은 예수님의 탄생과 생활과 십자가에 못박히심, 그리고 메시아와 구속주로서의 그 분의 성역을 확실히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나는 어머니께서 가장 좋아하는 책을 만져 보았읍니다. 그것은 손때 묻은 아주 오래 된 몰몬경이었읍니다. 페이지마다 표시가 되어 있었고, 부드럽게 다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페이지는 책장의 모서리가 접혀지고 표지는 엷게 닳아 있었읍니다. 몰몬경이 어느 책보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해준다는 것을 어머니께는 말해 줄 필요가 없었읍니다. 어머니는 벌써 그것을 알고 있었읍니다. 읽고, 연구하며, 그 책에 관해 기도하고 가르치기도 했읍니다. 나는 어렸을 때 어머니의 책을 손에 들고 어머니가 그처럼 사랑하시며 큰 간증을 품고 계시던 몰몬경의 진실함을 어머니의 눈을 통해 찾아 보고자 했었읍니다.

소년 시절 코튼우드 와드의 성찬식에서 나는 제임스 에이치 모일이라는 형제로부터 그가 몰몬경의 두 목격자인 마틴 해리스와 데이비드 휘트머가 그 책에 관하여 간증하는 것을 들었노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매우 큰 감동을 받았읍니다. 몰몬경의 최초의 출판에 즈음하여 그들은 올리버 카우드리와 함께 그에 관한 증언을 하였읍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금판을 갖고 하강하여 우리에게 보여 주신고로 우리가 금판과 아울러 그 위에 새겨진 기사를 보게 되었음을 엄숙히 공포하노라. 우리는 이것이 참된 것임을 알았도다." (몰몬경 "세 목격자의 증언" 참조)

제임스 에이치 모일 형제가 데이비드 휘트머를 방문했을 때, 휘트머는 나이가 많았읍니다. 그는 교회에서 멀어졌으며 미주리주의 리치몬드에 있는 통나무집에 살고 있었읍니다. 데이비드 휘트머 형제를 방문한 것에 대해 모일 형제는 1908년 3월 22일 바로 이 건물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읍니다.

"나는 그의 초라한 집에 찾아가서, 그가 몰몬경에 대해 알고 있는 것과 그가 몰몬경에 관해 세상에 공포한 간증에 대해서 인생을 시작하는 젊은이로서 듣고 싶다고 말했읍니다. 그는 고령의 엄숙함을 다해 나에게 말해 주었읍니다. 그가 세상에 전한 간증과 몰몬경에 적힌 모든 말은 진리이며 그는 추호도 그 간증에서 빗어나거나 빗나간 적이 없으며 이 세상의 어떤 것도 그에게 전해진 신성한 선언으로부터 그를 떼어놓지는 못한다고 말했읍니다. 나는 그가 정말 유혹당하지 않았다는 것이 가능하였는가 궁금하여, 마치 간섭하며 반대 심문을 하는 것처럼, 일어난 일을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그를 꾀었읍니다. 그는 숲에서 나무 사이를 두고 천사와 있었던 처음과 후에 몰몬경으로 번역된 금판을 보고, 만진 일, 그리고 그 금판들은 정확하게 번역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선언되었다는 것을 상세하게 말해 주었읍니다. 나는 그에게 그가 유혹될 수 있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물었을 때 그는 "아니오"라고 대답했읍니다. (고든 비 힝클리, 제임스 헨리 모일, 솔트레이크시티:데저렛북사, 1951년 366-67페이지 인용)

그러나 몰몬경이 마치 노력없이 얻어지는 유산처럼 내게 그 깊은 뜻을 전해 준 것은 아

닙니다. 나는 사람들이 성실한 마음과 강한 뜻을 가지지 않고서 이 위대한 책을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참된 것인지를 간구해야 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을 간구해야 합니다. 모로나이는 이렇게 말했읍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기록들이 혹 참된 것이 아닌지 간구하여 보라. 너희가 참 마음 참 뜻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써 간구할진대 하나님께서는 성신의 능력으로 이것들이 진실함을 밝히 나타내어 보이시리라"(모로 10 : 4)

금판을 몰몬경으로 번역한 요셉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읍니다. "나는 형제들에게 몰몬경은 지상의 어떠한 책보다도 가장 정확한 책이며, 우리 종교의 종석이고, 이 책의 교훈대로만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으로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190페이지)

사전에서 종석은 "아아치의 각 부분을 결합하여 완성시키기 위해 가장 위에 맨 마지막에 끼우는 돌"이라고 적혀 있읍니다. 두번째의 뜻은 "교리 혹은 과학에서 말하는 기본적인 요소"라고 되어 있읍니다. (펑크 앤드 왜그넬즈 뉴 프레티컬 스탠다드 딕셔네리, 브리태니카 월드 랭기취판, 제2권, 1956년, 1 : 735)

몰몬경은 종석입니다. 왜냐하면 몰몬경이 영원한 원리와 가르침을 한데 묶어 주며 구원의 교리를 완전히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경전의 왕관에 있는 최고의 보석입니다.

이것은 다른 뜻에서 종석이 될 수 있읍니다. 조금 전에 참조한 모로나이의 약속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간구하는 자에게 몰몬경의 참됨을 명백히 하여 준다고 하셨읍니다.(모로 10 : 4 참조) 즉 우리는 자신의 사슬을 연결할 수 있는 고리를 가지고 있읍니다.

몰몬경에 대한 강한 간증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영원하신 하나님"(몰몬경 표제지)이라는 것을 납득시켜 주며, (ㄱ)요셉 스미스의 거룩한 사명과, (ㄴ)그가 하나님과 그의 독생자를 보았다는 것을 영적으로 입증해 줍니다. 이렇게 확실한 간증을 가지면 교리와 성약과 값진 진주가 몰몬경과 성경을 통반한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입증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회복과 끊임없는 계시를 받는 살아 계신 예언자가 인도하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인도한다는 것을 확증합니다. 이 기본적인 진리들은 다른 회복된 구원의 원리의 이해를 수월하게 해줍니다.

게다가 몰몬경은 우리 개인적인 신앙에 필수적인 종석입니다.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은 다음과 같이 확인하셨읍니다. "몰몬경을 알고 사랑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식별력, 통찰력, 신념 그리고 영적인 면에서 차이가 납니다. 몰몬경은 채질하는 훌륭한 도구입니다. (뉴 이라, 1975년 5월, 19페이지) 몰몬경에 대한 이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심어 줄 수 있읍니다.

우리는 몰몬경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역사적인 내용이 많이 수록되어 있지만 몰몬경은 역사가 아닙니다. 표제지에는 이 책이 예수님 시대의 전후에 미대륙에 살던 백성들의 기록이라고 적혀 있읍니다. 이것은 계명과 예언과 계시의 영에 의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모든 나라의 백성들에게 친히 나타내어 보이신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하느니라."

조오지 류 케넌 형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읍니다. "몰몬경은 지리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리적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도시와 여러 지역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는 교리와 역사적인 사건에 부수되는 것일 뿐입니다." (몰몬경의 지리, 청소년 인스트락터, 1890년 1월, 18페이지)

그러면 몰몬경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탄생과, 생활과, 십자가에 못박히심, 그리고 메시아와 구세주로서의 그분의 성역을 확실히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니파이는

몰몬경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읍니다.

……"땅 끝에 있는 자들이여, 이 말에 귀를 기울여 그리스도를 믿으라. 혹 이 말을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리스도는 믿으라. 그리스도를 믿을진대 이 말을 믿게 되리니, 이 말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임이라. (니이 33 : 10)

니파이와 그의 동생 야곱과 이사야의 세 사람은 예수의 첫번째 오심을 선포했읍니다. 니파이는 이사야서를 많이 인용했읍니다. 왜냐하면 그가 메시야의 오심을 예언한 중요한 구약선서 예언자이기 때문입니다.

몰몬경은 성경의 진실됨을 확증해 줍니다. (니일 13 : 40 참조) 이것은 "거룩한 경전이 참됨을 세상에"(교성 20 : 11)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평화와 구원의 복음의 확립을 미리 예견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리와 인도의 목적으로 우리의 영원한 여행을 위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몰몬경과 구약전서와 모든 인류 역사에서 제시해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인간이 자신의 힘만으로는 완전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또 다른 분명한 메시지가 있읍니다. 이것은 별로 인기가 없으며 약간 귀에 거슬리는 경고인데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몰몬경에 있는 백성들이 예언자의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그들은 번성했읍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망각할 때 그들은 멸망되었읍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갈 3 : 24)라고 말했읍니다. 몰몬경의 기록과 동쪽 대륙으로부터 온 현재의 성경은, 아빈아다이에 의하면, "이를 지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향한 저들의 임무를 깨닫게"(모사이야서 13 : 30) 해주었읍니다. 그러므로 몰몬경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집으로 가게 해주는 몽학 선생입니다. (모사이야서 13 : 27-32 참조)

영적인 것은 이 성스러운 책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것입니다. 세상적인 사고 방식으로 이해하려면 해결점은 찾기가 어렵겠읍니다.

요셉 스미스가 이렇게 복잡하고 감동적인 책을 신의 도움없이 쓸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읍니다. 교육을 받지 못한 요셉 스미스가 이 책이 갖고 있는 진리를 조작하고 그리스도의 간증을 거짓으로 꾸민다는 일은 있을 수 없읍니다. 이 책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스스로 간증하고 있읍니다.

몰몬경의 신성함을 증거하는 새로운 것이 있읍니다. 1829년 1월 23일에 요셉의 어머니가 그녀의 동생에게 쓴 편지는 최근에 발견되어 몰몬경의 확실성을 더해 주고 있읍니다. 이 편지는 몰몬경이 출판되기 1년 전에 쓰여진 것입니다. 여기에는 몰몬경의 내용과 당시에 일어났던 일과 다른 역사적인 정보에 관한 정확한 서술이 적혀 있읍니다.

현대 컴퓨터의 도움으로 킹 제임스 역에는 개괄적인 지침과 다른 경전에 대한 전후참조가 포함되어 있읍니다. 이러한 참고도를 통해서 우리는 요셉 스미스가 정말 하나님의 도움으로 몰몬경을 번역했다는 것을 더 확신할 수 있읍니다. 총 531페이지의 거의 매 페이지마다 킹 제임스 역과 교리적으로 연관되는 수많은 참조 성구가 있읍니다. 비교한다면, 성경에서 분명치 않은 것들이 몰몬경과 교리와 성약에는 보다 더 정확하게 되어 있읍니다.

몰몬경에는 구약전서와 신약전서의 가르침에 대한 참조가 수없이 많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이렇게 거대한 것을 인간의 지혜로써 알 수 없다는 확실한 결론을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논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부터 오는 몰몬경의 진실성입니다.

모든 경전은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몰몬경의 예언자 야곱은 우리를 이렇게 일깨워 줍니다.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함이 없이 예언을 하거나 예언을 기록한 선지자가 없느니라." (야곱서 7 : 11) 시편의 저자는 경전을 들어 말하길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라고 했읍니다. (시편 119 : 105)

몰몬경은 오직 의로운 자에게 용기를 줍니다. 그런데 왜 이 책에 대해 적개심이 야기되었을까요? 이 책이 요셉 스미스가 천사로부터 받은 금판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선택된 증인들은 이것을 보고 만지기도 했지만 일반에게는 공개가 되지 않았읍니다. 또한 아마 그것이 처음에는 미대륙에 있었던 고대 예언자의 업적이라고 주장되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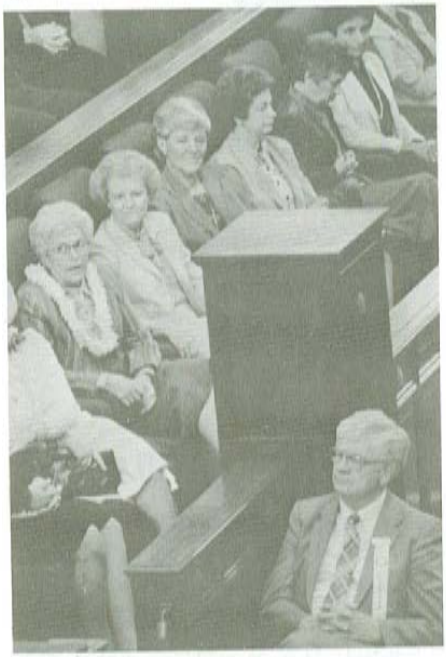
구세주께서는 직접 몰몬경의 가치를 선포하셨으며, 니파이삼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이는 나의 가르침이요, 아버지가 주신 것이라." (니삼 11 : 32절)

구세주께서는 더 나아가 몰몬경에서 이렇게 선언하셨읍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주었나니."(니파이삼서 27 : 13)라고 하셨읍니다. 특별한 증인으로서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과 니파이와 이사야가 예언한 예수님의 오심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니파이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에 관하여 예언" (니이 25 : 26)합니다.

나는 그가 다시 오실 것을 간증하며 그의 두번째 재림 때 누군가가 "당신의 손발에 있는 상처는 무엇이니이까?"라고 말할 것임을 간증드립니다. 그분은 그의 손, 손목, 발에 있는 상처 자국을 보일 것이며 그들은 언제 어디서 이렇게 되셨나이까라고 물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십자가에 못박힌 예수 곧 하나님의 아들이니라."라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교성 45 : 51-52)

나는 영의 확신을 통해 그것들을 실제로 보는 것보다 더욱 확실하게 알 수 있다고 간증드립니다. 우리는 눈과 귀로 보고 듣고 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지식을 가질 수 있읍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주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같이 그 번역은 참되도다" (교성 17 : 6)라고 하시며 직접 몰몬경을 인정하셨읍니다.

이제 나는 나의 어머니가 그녀의 다 떨어진 몰몬경에서 무엇을 보시는가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읍니다. 우리가 몰몬경의 진실함을 찬양하며 보다 강한 간증을 갖고 살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종교의 종석은 진리가 세상에 퍼지는 것처럼 진리가 담겨 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엘 톰 페리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것은 분명히 우리의 의무이고 특권이며, 규칙적인 가족 기도는 그들에게 귀감이 됩니다.

총관리 역원으로서 우리가 가진 특별한 기회 중의 하나는 시온의 스테이크를 방문하는 것입니다. 매년 우리는 30-40차례나 다른 스테이크 부장의 집에서 묵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가정의 손님이 되는 특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최근의 경험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한 스테이크 대회에 참석하여 아주 오랫 동안 봉사해 온 스테이크 부장을 해임시키도록 지명을 받았습니다. 그 스테이크는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스테이크였습니다. 그 스테이크는 주민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스테이크는 우리의 주요한 도시 중앙부 근처에 위치해 있었는데, 공업화의 거센 물결이 밀려와, 발전해 감에 따라 많은 회원들이 좀더 교외 지역으로 이사를 갔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부름으로 인해 그 지역에 머물면서 회원들을 지켰습니다. 그는 그 지역이 절망적인 상태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스테이크는 그의 정력과 노력과 대단한 열정으로 다시 한번 성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주말이 되면 그의 자녀들은 자동차와 비행기를 타고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수년간에 걸친 충실한 봉사에 대해 경의를 표했습니다. 나는 이 가정에서 특별한 영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매우 유대가 강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있는 것을 얼마나 즐거워했는지 모릅니다.

마지막 모임에서 내가 대회 말씀을 하려고 일어서자, 나의 왼쪽에 앉아 있던 그의 전 가족은 이 장엄한 자리에서 아버지께 경의를 표하며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대회 모임을 마친 후, 나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공항으로 떠나기 전에 그의 가족과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는 초대를 받았습니다. 가족들이 식탁 주위에 모이자, 그 아버지는 무릎을 꿇고 가족 기도를 하자고 청하였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에서 나는 그들의 힘을 알아차렸습니다. 이 가족은 영원한 아버지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있었으며, 또한 지상의 부모 및 형제 자매와의 관계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 가족들간에 존재하는 형제애와 자매애는 그들이 형제 자매를 뛰어 넘어 친구와 이웃들에게까지 쉽게 사랑을 전하게 하였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많은 가정에 손님으로 초대되면서 나는 가족이 함께 기도할 때에 특별한 영이 분명히 존재하게 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예언자들은 우리에게 규칙적으로 가족 기도를 하여 그것이 매일의 예배가 되도록 하라고 되풀이하여 권고하셨습니다. 존 테일러 대관장님은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물으셨습니다.

"여러분은 가정에서 기도를 하십니까?…

"여러분은 기도할 때 감정없이 기계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점손하게 고개숙이고 성실한 소망으로 여러분 자신과 가족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내리기를 간구합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의 영을 키우며,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고 그분의 축복을 구할 수 있는 길입니다." (설교집, 21 : 118)

히버 제이 그랜트 대관장님은 이 문제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읍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의 인도를 구하기 위해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루에 두 번씩 간곡히 기도하는 소년이나 소녀, 청남이나 청녀들에 대해서는 거의, 아니 조금도 염려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유혹에 부딪힐 때 그들에게 주어질 영감에 의해 그것을 극복할 힘을 갖게 되리라는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복음 표준, 솔트레이크시티 : 임프르브먼트 이라, 1941년 26페이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것은 분명히 우리의 의무이자 특권이며, 규칙적인 가족 기도는 그들에게 귀감이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성스러운 관계입니다. 그러한 영적인 동반 관계는 더할 나위 없는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나는 함께 기도하는 가족들은 구세주께서 지상에서 베푸신 성역이 끝날 무렵에 영감에 찬 기도를 하시며 그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려 한 위안과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삽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 : 15-18, 20-21)

히버 제이 그랜트 대관장은 언젠가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하신 적이 있읍니다.

"인간이 어머니께 그분의 영과 지시를 간구하기를 중단하면 바로 그 순간부터 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업에 대해 이방인이 됩니다. 인간이 어머니의 영을 간구하기를 중단하면, 그들은 전혀 도움을 받지 않은 자신의 이성에 확신을 갖게 되며, 마치 가까운 친구들이 편지나 왕래가 전혀 없으면 서로 낯선 사람이 되는 것처럼 점차 하나님의 영을 잃게 될 것입니다." (임프르브먼트 이라, 1944년 8월, 481페이지)

기도는 우리에게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다가갈 권세를 줍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꼭 가르쳐야 하는 것 중의 하나가 기도하는 방법이라는 사실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나는 가정의 밤에서 기도라는 주제로 토론을 하도록 권장하고 싶읍니다. 이제부터 기도에 관해 가르칠 때 강조해야하는 네 가지 부문에 관해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방법. 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 보았으나, 그들이 과연 누구에게 기도를 드리는건지 의심이 갑니다. 인사말인 서두가 너무 복잡하여 나는 그 기도가 누구를 향하는 것인지조차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초대 국회에서 우리 나라의 대통령을 어떻게 부를까를 결정할 때의 일이 생각납니다. "미국의 대통령이며 자유의 수호자인 전하"라고 부를 수 있다는 제안이 나왔읍니다. 그러나 와싱턴 대통령의 부탁은 그를 그냥 미스터 프레지던트라고 불러 달라는 것이었읍니다. (윌리스 엠 앤드 루스 웨스트, 디어메리킨 피플, 보스톤 : 앨린 앤드 베이전, 1948년)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방법에 관해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읍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마 6 : 5, 9)

구세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른 기도의 말에서도 "*아버지여*"라는 말이 사용되었읍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찬을 축복하도록 가르쳐주신 방법입니다 (교성 20 : 77 참조) "아버지시여"라는 말을 사용함에 따라 우리는 그분에 대한 우리의 관계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이며,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기도할 때 주님을 부르는 방법을 가르치십시오.

둘째, 기도할 때는 성스러운 말을 쓰십시오. 우리는 항상 극존칭을 나타내는 대명사, *당신, 당신의, 당신*을 그리고 *당신의 것*이라는 말을 써서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고 스티븐 엘 리차즈 부대관장님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현명한 조언을 주셨읍니다.

"우리는 기도와 관계되는 적절한 교육이 부족함을 알게 되었읍니다. 나는 선교 지역에서 기도의 말씨에 대한 훈련이나 경험이 없어 보이는 선교사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을 들고는 제 자신이 깜짝 놀랐던 것을 기억하고 있읍니다.

"……형제 여러분, 정원회나 반에서 또한 가정에서 '너'라는 말보다 '당신의'나 '당신'이라는 기도의 말을 가르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님이 '너'라고 불리우는 것은 나에게 항상 실망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경우를 너무 많이 보게 된다는 것이 놀라울 뿐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것을 주목하여 성스럽고 경건한 기도의 말을 가르치기 위해 모든 기회를 잘 이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대회 보고 1951년 10월, 175페이지)

우리 자녀들에게 이러한 말을 사용하여 기도를 하라고 가르칩시다.

세째,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나는 수주 전 어린 나이로 몇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던 한 소년을 축복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읍니다. 축복을 마치고 떠날 준비를 하는데, 그의 어머니는 "애야, 이 분에게 떠나기 전에 축복에 대한 감사를 드리렴"이라고 소년에게 말했읍니다. 그는 내게 오는 대신 고개를 숙이고 팔짱을 끼고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읍니다. 얼마나 통찰력이 있는 자녀입니까!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기 위해 아내와 같이 무릎을 꿇을 때, 나는 그녀의 동반자가 된 특권과 축복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 찹니다. 또한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으며, 그들이 자라고 발전되는 것을 지켜볼 때, 자녀들과 자녀들의 삶을 통해 나에게 주어지는 축복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 찹니다.

여러분은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주신 많은 축복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복음의 은사를 받은 백성이라는 것은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사용하여 유익을 얻고 지상 생활의 특권을 누리도록 창조해 주신 모든 것에 대해 나는 경이감을 금치 못합니다. 나는 특별히 이 추수기에 감자를 덮은 흙 두덩에 가서 내가 몇 달 전에 심어 둔 몇 개가 수십 배 수백 배로 불어난 것을 보거나, 옥수수를 따면서 땅에 심어 둔 두세 개의 낟알로 이제 백여 배의 수확을 거두게 된 것을 볼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읍니다. 나는 여행을 하면서 주님의 창조물 즉, 산, 비옥한 평야, 생기에 찬 시냇물, 거대한 바다 등의 아름다움을 볼 때, 그분의 축복에 대해 얼마나 감사를 드리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무릎 꿇고 가족 기도를 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축복에 대해 감사드리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겠읍니다.6

네째, 주님에 대한 우리의 키원.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언젠가 이렇게 말씀했읍니다.

"나는 형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

고 싶습니다. 밀실에서 하나님을 찾고, 들판에서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불론경의 지침을 따르고, 그것에 관하여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축과 가축과, 양떼와 곡식 및 여러분의 모든 소유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이 종사하고 있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십시오." (*에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241-42페이지)

브리감 영 대관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하신 적이 있읍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기를 원하는 가족을 상상해 보십시오. 원하기만 한다고 무엇이 정돈되고 합당하게 되겠읍니까? 가장이 아내와 자녀를 함께 불러 모아 소리내어 기도할 때, 충분히 이해할 나이에 이른 모든 참석자는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마음속으로 되풀이해 보아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으로 간구하면 반드시 얻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대변인과 같이 정확하게 마음속으로 간구하도록 하십시오. 모든 사람이 일에 대한 걱정을 뒤로 미루도록 하십시오. 부엌도 자연적으로 처리되도록 두시고, 광이나 양떼와 소떼들도 저절로 처리되도록 두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는 동안 그것들이 파괴된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이렇게 말할 수 있읍니다. '잘됐면 가거라. 그것들은 모두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께서 그것들을 내게 주셨으니 나는 주님께 경배드리겠다. 나는 가족을 모아 나의 하나님을 부르겠다.'

"그들에 대한 걱정과 일에서 떠나, 굳장 참여하여 알맞은 때에 에배드림으로써, 여러분은 처음에는 그렇지 않을지 모르지만 곧 하나가 되어 모든 사악한 원리를 굴복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결합한다면 이것이 바로 전능한 신앙의 끈이 되지 않을까요?" (*설교집*, 3 : 53)

자녀들에게 물질적인 선물을 위해서가 아니라 용기와 기회와 위안과 평화와 이해를 위해 기도하도록 가르칩시다. 그들에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마 6 : 10)라고 기도하도록 가르칩시다.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님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읍니다. "항상 기도해야 할 시간이 필요하다. 항상 혼자서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나아가야 할 때와 세상적인 모든 일로부터 떠나야 할 순간을 갖게 된다.

"우리가 가족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무릎을 꿇을 때 우리 옆에서 우리를 지켜 보는 자녀들은 평생토록 그들을 떠나지 않을 습관을 배우게 되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녀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 "글쎄, 그건 뭐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지. 걱정

대회 방문자

할 필요는 없어.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라면 기도를 갖는 게 좋겠지만 학교 종소리가 들리거나 버스가 오거나 회사에 늦었을 때라면 꼭 기도할 필요는 없지. 편리한 시간에 하면 되는 거지 뭐." 사전에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다면 편리한 시간이란 결코 오지 않는다. 반면에 가정에서 이러한 습관을 들여 자녀가 결혼한 후에 부모가 자녀를 방문해서도 자연스러운 태도로 함께 기도를 올린다는 것은 얼마나 즐거운 일이겠는가!" (*용서가 낳는 기적*, 230-31페이지)

나는 내 자녀들이 내 손자 손녀들에게 기도의 축복에 관해 가르치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메리, 에스터, 오드리, 토마스가 처음 배운 말은 *아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큰 기쁨과 열정을 가지고 이 말을 몇 번이고 되풀이하였읍니다. 그리고 다음에 배운 말은 하나님 아버지였읍니다. 그들의 부모가 지상에서 처음 가르친 것은 그들이 누구이며 그들이 어떻게 영원하신 아버지와 대화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읍니다. 베냐민, 미카엘, 저스틴도 그들이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께 접근하는 방법을 배울 나이에 이르면 똑같은 가르침이 주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나는 자녀들에게 기도의 능력에 대한 것을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르침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범으로써 그것을 가르쳐야 하며, 매일 주님 앞에 자녀들과 함께 무릎꿇고,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것을 앎으로써 올 수 있는 평안과 확신을 주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맑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성스러운 인도와 도움을 간구하며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생활하겠다고 약속합시다.

기도의 권세가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기를 기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대회 방문자

부모와 자녀간의 접견

칼로스 이 애시 장로
철십인 제일 정원회 회장단

자녀를 포함시켜 가르치고 축복하는 수단으로 부모와 자녀간의 접견을 개선시키기 위한 지침

수년 전 나는 딸아이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했읍니다. "애야, 접견할 시간이다." 그런데 그녀의 반응은 별로 환영하는 눈치가 아니었으므로, 나는 마음속으로 내가 그 아이를 몹시 지루하게 했었구나라고 생각했읍니다. 그래서 그녀와 공식적인 딱딱한 대화를 하는 대신, 차에 태우고 데어리퀸에 가서 청량 음료에 아이스크림을 띄운 룻비어 플로오트를 함께 마셨읍니다. 나는 가게로 오가는 길에 질문을 하였고 그녀는 거리낌없이 대답을 해주었읍니다. 그녀는 자기가 접견을 받고 있다는 것—혹은 적어도 그것이 내 의도라는 것조차 깨닫지 못하였읍니다. 수주일 후에 나는 다시 한번 그녀를 접견하고 싶다고 말했읍니다. 그러자 그녀는 재빨리 "지루한 것이에요, 아니면 재미있는 것이에요?"라고 물었읍니다.

나는 훌륭한 일—자녀와의 접견을 하는 것조차도—이 때로는 무미 건조하고 지루한 방법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 의무를 수행하거나 완수하려는 의욕으로 인해 그 목적에 상충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너무 형식에 사로잡힌다면 가족임을 잊어버리게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죽은 사람의 뼈"(마 23 : 27)가 안에 가득한가를 자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루한 실행에 관해 생각할 때 나는 율법을 고쳐 가치를 떨어뜨린 고대인들이 떠오릅니다. 그들은 주님보다 율법 자체가 더 숭배될 정도로 제사, 의식, 상징을 늘렸읍니다. 사실 율법이 너무 남용되어 백성들을 메시아에게로 향하게 한 것이 아니라 떨어져 나가게 했던 것입니다.

받아들여질 수 있는 실행이란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생수에 의해 젖게 되고 풍미가 더해진다고 나는 느낍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이 영적인 가르침에 바탕을 둔 실행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이외의 목적으로… 해서는 안되며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겠다는 목적 이외의 것으로 좌우되어서도 안된다고… 하였읍니다." (요셉 스미스서 2 : 46)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마 23 : 11)

"희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고후 3 : 6)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의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마 6 : 3)

산 실행은 기계적이거나 딱딱하거나 자기 중심적인 경향이 없읍니다. 그런 것은 마음속의 느낌과 그들에게 임한 주님의 영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는 성도들에 의해 행해집니다. (니파이이서 4 : 12 참조)

앨마가 힐라맨과 한 접견은 흥미롭고 새롭게 하는 접견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것은 45초 동안 아버지와 아들이 주고 받은 간단한 세 가지 질문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앨마는 그의 사명이 끝나가고 있었을 때 예언과 기록 보관의 책임을 맡을 사람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읍니다. 그가 선택한 사람은 힐라맨이었읍니다. 그러므로 앨마는 그

의 아들에게 가서 이렇게 물었읍니다. "여태까지 기록하여 온 기록에 관하여 내가 말한 바를 믿느냐?

이에 힐라맨은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대답했읍니다. "예, 믿나이다." 그는 아마 이렇게 말했는지도 모릅니다. "예, 경전을 믿으며 아버지께서 제게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믿습니다."

앨마의 두번째 질문은 간단했읍니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믿느냐?" 이번에도 힐라맨은 지체없이 "예 당신께서 하신 말씀은 모두 믿나이다."라고 대답했읍니다.

아버지에 대한 얼마나 놀라운 존경입니까? 그는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그리스도를 전파했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근원을 알도록 아들에게 가르쳤읍니다. (니이 25 : 26 참조)

여기까지의 접견에서 아버지의 질문은 아들의 기본적인 믿음을 조사하고 있었읍니다. 그런데 그러한 믿음이 말로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임을 시험하고 결정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고도 필요한 일이었읍니다. 앨마의 최종 질문은 "네가 나의 계명을 지키겠느냐?" 였읍니다.

나는 힐라맨이 그의 마지막 대답을 하기 전에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는지 확실히 모릅니다. 그는 그의 부모를 존경하고 신권의 권능을 존중해야 하는 필요성을 알고 있었읍니다. 이전의 그의 행동이 바로 이 사실을 증명해 주었읍니다. 나는 힐라맨의 대답이 권능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순종해야겠다는 진심에서의 욕망에 의해 조장되었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의 말에는 하나님과 아버지에 대한 깊은 사랑이 반영되어 있읍니다. "마음을 다하여 당신의 계명을 지키겠나이다."

아버지가 그의 계명을 하나님의 기대하심과 일치시킬 수 있다는 것은 경탄할 일입니다. 분명히 앨마는 이런 상태를 이루었읍니다. 왜냐하면 힐라맨이 마음을 다하여 키끼이 순종할 각오와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간단하고 교육적이며 영적인 접견은 앨마를 매우 기쁘게 해주었음에 틀림없읍니다. 그는 마음과 마음으로, 영과 영으로 아들과 대화를 했을 뿐만 아니라, 아들은 솔직하게 그의 신앙을 선언하고 그의 헌신을 맹세하였읍니다. 대화를 끝낼 때, 앨마는 영적인 감화를 통해 예언과 함께 이러한 축복을 주었읍니다. "네게 복이 있을지어다. 또한 주께서 너를 이 땅에서 번성하게 하시리라."(앨마서 45 : 2-8 참조)

나는 우리 자녀들과의 접견이 앨마와 힐라맨 사이에 가졌던 접견만큼 영적이며 건설적인 것일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나는 아버지가 아들에게로 갔다는 것이 중요했다고 봅니다. 아들은 조사를 받고 보고를 하도록 소환된 것이 아니었읍니다. 나는 그 대화가 솔직하고 논쟁이 없었다는 점에서 참신했다고 생각합니다. 대화는 형식에 치우치지 않았으며 자연스러웠읍니다. 나는 그 서약이 꼬치꼬치 캐묻거나 강요와 억누름이 없이 행해졌다는 점에서 모범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가 부드러운 축복으로 끝냈다는 점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따라야 하는 실행이나 대화의 표본이 아니겠읍니까? 나는 형식보다는 여기에 포함된 원리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느 날 내가 일을 마치고 집에 늦게 도착했을 때, 아내는 우리 아들 중 한 아이에 대해 걱정을 했읍니다. 그녀는 아들의 마음이 선교 사업을 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지 않다고 염려하며, 그것에 대해 내게 이야기했읍니다. 그녀의 염려로 나도 걱정이 되어, 나는 아들이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읍니다. 그녀는 아들이 자기 방에서 잠자리에 들려고 준비하는 중이라고 대답했읍니다. 즉시 나는 아들 방으로 가서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잠깐 이야기해도 좋으냐고 물었을 때, 그는 "물론이죠"라고 대답했읍니다.

늦은 시간이었으므로, 그도 피곤했고 나도

피곤했읍니다. 그래서 나는 오랫 동안 대화를 해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았읍니다. 앨마와 힐라맨의 직접적인 접근 방식을 따라 대화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읍니다.

"애야, 너는 지금도 선교 사업을 할 계획이니?"

"예, 저는 항상 선교 사업을 할 계획을 해왔으며 변한 적이 없읍니다."라고 대답했읍니다.

"애야, 너는 무엇이 청년에게 선교 사업을 하도록 자격을 부여하는지 아느냐? 너는 합당성의 의미를 아느냐?

"예, 아버지. 저는 합당성이 요구하는 조건과 표준을 이해하고 있읍니다."라고 그는 대답했읍니다.

"고맙다. 마지막으로 물어볼 것이 있는데 너는 선교 사업을 하기에 순결하며 합당하다고 생각하니? 만일 오늘 너에게 부름이 주어진다면 너는 받아들일 수 있겠니?

잠시 생각에 잠겨 침묵이 흘렀읍니다. 그 후에 그는 이렇게 말했읍니다.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유혹이 모든 곳에 있읍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요구하신 이래로 저는 순결하며 봉사하기에 합당합니다."

이것은 놀랍고 아름다우며 전혀 꾸밈이 없는 신성한 경험이었읍니다.

나는 아들에게 고맙다고 말하며 키스를 하고 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 다음 잘 자라고 했읍니다. 나는 침실로 돌아와서 아내에게 모든 것이 잘되어 가고 있으니 편히 잠을 자라고 말했읍니다.

나는 부모들에게 교회에서 따르라고 장려하고 있는 실행과 실습에 많은 지혜가 들어 있음을 압니다. 가정을 밤을 갖고 페리 장로님의 말씀처럼 가족 기도를 실행하며 가장의 축복을 주고 부모와 자녀간의 접견을 가지는 것에는 모두 장점이 있읍니다. 이 모든 것들은 중요하며 합당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실행을 하는 것과 그런 활동을 보고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런 것은 사람들을 참여시키며 가르치며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는 수단입니다. 모두가 영혼을 구원하고 승영에 이르는 목적을 위해 포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내와 자녀를 갖게 해주신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들은 내 생활을 참으로 의미있게 해줍니다. 나는 회복된 교회와 내 주변의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영감적인 프로그램을 주고 계신, 살아 계신 예언자를 주신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나는 생수의 원천 즉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복음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수단과 목적을 혼동하지 않고 또한 모든 계명의 기초가 되는 영을 희생한 채 실행에만 치우치지 않도록 축복받기 위해 겸손히 간구합니다. 자녀들과의 접견, 기도, 대화가 성결케 되고 무미 건조하지 않고 "축은 사람의 떼"가 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스페서 더블류 켐볼 대관장, 상좌

인생의 신비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인생은 지상에 태어남으로 해서 시작되지 않았읍니다. 우리는 지상에 태어나기 전에 영체로 살았었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자녀입니다.

수년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당시 어린 소년이었던 두 아들은 양탄자 위에서 레슬링을 하고 있었는데 눈물이 나올 정도로 심하게 하고 있었읍니다. 그래서 나는 조심스럽게 발을 그들 사이에 집어 넣어 그들을 떼어 논 다음 큰 아이를 잡아 앉히면서 이렇게 말했읍니다. "애, 이 작은 원숭이들아. 그렇게 심하게 놀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 아이는 팔짱을 끼며 서운하다는 표정으로 "나는 원숭이가 아니에요. 아빠, 나는 사람이에요."라고 항의했읍니다.

내 어린 아들들에게 느낀 충만한 사랑은 세월이 흘러도 가셔지지가 않습니다. 나는 아들에게서 중요한 교훈을 배웠읍니다. "나는 원숭이가 아니에요, 아빠, 나는 사람이에요"라고 한 말이 수년 동안 때때로 생각이 납니다. 나는 내 어린 아들에게서 중요한 교훈을 배운 것입니다.

인생의 주기는 빨리 흘러 지금은 나의 아들들도 자신의 아들에게 아버지가 배운 교훈을 가르쳐 주고 있읍니다. 그들은 우리가 그들이 자라는 것을 지켜 보던 것처럼 자신의 자녀들이 자라는 것을 지켜 보고 있읍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됨으로써 어려서는 배울 수 없었던 것을 알게 되었읍니다. 지금 아마 그들은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를 알 것입니다. 또한 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하고 기도하는지 알 것입니다.

또 그들의 자녀들은 속히 성장하여 그들 자신의 자녀들을 갖고 이렇게 하여 영원한 인생의 주기는 끝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미국 서해안에는 어네스토 개저리가에 인생의 주기를 조각한 대리석 동상이 있읍니다. 그 동상에는 아장아장 걷는 아기들, 어린 아이들, 청년들, 연인들, 성인들, 노인들이 새로 태어난 아이를 쳐다보고 있지만 뒷면에 조각된 두 사람 즉 노쇠한 부부는 서로 부축하며 그들을 둥치고 가족의 무리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읍니다.

세상에 탄생함으로 사람의 생은 시작되고 시간이 되면 죽음의 장막을 지나 사라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우리가 여기 존재하는지 모르고 있읍니다.

동상이 나타내는 것보다 더 분명한 것은 없읍니다만 조각가는 그것을 *인생의 신비*라고 이름지었읍니다.

때때로 우리는 탄생시에 자연이 나타내려고 하는 것에 경외로움을 느낍니다. 우리는 창조의 형태를 볼 때 너무나 질서 정연하고 아름다움에 경건함과 점손함을 깊이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의 의미를 깨달게 된 순간 인간이 행하고 있는 거칠고 무절제한 것들로 인해 섬뜻함을 느낍니다.

세상에는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이 매우 많습니다. 왜 인생은 공평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매우 부자며

어떤 사람들은 매우 궁핍하며

어떤 사람들은 너무 아름답게 생겼고 어떤 사람은 애처로울정도로 심한 불구자며

어떤 사람들은 재능을 부여 받았으며 또

저능아도 있읍니다.

왜 불공정하며 왜 자라기도 전에 죽음을 맛보아야 합니까? 왜 무관심과 고통과 슬픔이 있읍니까?

왜 이혼, 근친 상간, 욕설, 학대 그리고 참혹한 행위가 존재하는 것입니까?

만일 인생에 질서가 있고 의미가 있다면 그러한 것들은 사람들이 서로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행하는 행동에서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사랑, 헌신, 희생, 신앙 그리고 겸손을 볼 수 있읍니다. 우리는 용감하고 영웅적인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읍니다.

마침내 인생의 신비가 열릴 때 무엇이 밝혀지겠읍니까?

나는 목사가 되기 위해 공부하던 어떤 사람을 알고 있읍니다. 그는 성임받기 바로 전에 성직에서 물러났읍니다. 왜냐하면 그는 너무나 많은 질문에 대한 답을 못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직도 충실하지만 약간 혼동된 상태의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합니다. 그는 다른 직장을 얻어 결혼하여 생활하는 중에 우리 선교사들이 그를 찾았읍니다.

그는 교회의 교리를 조금 공부하고 그것이 자기가 믿을 수 있는 것이라고 느꼈읍니다. 그리스도 교리의 바탕을 볼 수 있었읍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가족에게 유익한 프로그램과 활동에 더욱 더 흥미를 느끼고 있었읍니다.

그가 인생을 깨닫게 된 것은 바로 침례를 받은 후였읍니다. 그가 알고나서 놀란 것은 교회의 프로그램들이 모두 튼튼한 교리의 바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교리의 폭과 깊이를 상상할 수도 없었읍니다. 일단 교회의 활동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심을 돌려 공부를 하던 그는 목사가 되는 것을 포기하게 했던 진지한 질문들에 만족할만한 답을 찾았읍니다.

어떤 교리는 그에게 전혀 생소하였읍니다. 그는 성경 연구가 였으나, 새로운 계시를 읽기 전에는 그것을 성경에서 보지 못했었읍니다. 그후 그는 성경을 보다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었읍니다.

그 교리는 매우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며 그리고 매우 많은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거부한다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것이며 그것이 없이는 인생은 이치에 맞을 수가 없으며 단지 신비에 싸이게 됩니다.

그 교리를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인생은 이 지상의 탄생에서 시작되지 않았읍니다. 우리는 이 지상에 태어나기 전에 영의 상태로 살았읍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전세에 대한 교리는 고대 기독교인들에게 알려졌던 것입니다. 거의 500년 동안 이 교리가 가르쳐졌지만 배도의 암흑 시대로 빠져들어간 한 성직자에 의해 이단으로 거부당했읍니다.

그들은 이 전세의 교리와 죽은 자를 위한 구속의 교리를 거부한 후 인생의 신비를 결코 풀 수가 없었읍니다. 그들은 마치 너무 짧은 줄에 진주를 끼워 목걸이를 만들려는 사람들과 같이 되었읍니다. 그들은 그것을 모두 함께 끼울 방법은 없읍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우리가 영으로 살았었다는 생각이 왜 그렇게 이상하게 들립니까? 기독교인의 교리는 죽은 후에 다시 살게 될 것이라는 의미의 부활을 주장합니다. 만일 우리가 죽음을 초월하여 살 수 있다면 왜 탄생 전에 살았다는 것이 이상하겠읍니까?

기독교 세계에서는 대체로 부활후의 우리의 상태가 이 생에서의 우리의 행위에 따라 결정된다는 생각을 받아들이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지상 생활에서의 어떤 상황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 우리의 행위에 따라 결정되었다는 것을 왜 그들은 믿을 수가 없읍니까?

경전은 전세의 교리를 가르치고 있읍니다. 주님께서는 자신만이 아는 이유로 경전을 통해 여기 저기 산발적으로 몇 가지 질문에 답

을 주셨읍니다. 우리는 그 답을 찾고 얻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거룩한 것들이 성실치 못한 사람들로부터 가리워졌읍니다.

이 교리를 나타내고 있는 많은 구절 중에서 교리와 성약 93편에 나오는 요한의 간증에서 짧은 두 문장을 인용하겠읍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에 관해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읍니다. "그가 태초에 계셨고 창세 이전에 계셨고(교리와 성약 93 : 7)

또 다른 문장은 우리에 관해 언급하면서 똑같이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읍니다. "너희도 태초에 아버지와 함께 있었나니" (교리와 성약 93 : 23)

전세에 대해 꼭 필요한 사실은 밝혀졌읍니다. 비록 그것이 완전하지 않을지라도 인생의 신비를 풀어 주었읍니다.

우리가 전세의 교리를 이해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과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그와 같이 영체로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또한 이 생은 시험의 기간이며, 출생으로 시작되지도 않았으며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인생은 인간들이 스스로 만들고 있는 모든 혼동된 해악 속에서도 의미와 목적을 갖고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축구 시합을 관람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요. 양팀은 막상막하의 경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팀은 규율을 잘 지키도록 훈련을 받았으며 다른 팀은 반대였읍니다. 그들은 속이고 훌륭한 스포츠맨 정신에 해당되는 모든 규칙을 어깁니다.

경기가 동점으로 끝나면 한 팀이 결정적으로 이길 때까지 계속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축구장은 곧 진흙탕으로 변해 갑니다.

양팀 선수들은 진흙으로 뒤범벅이 되고 있으며 상대편을 속이는 것이 점점 험한 행동으로 변하고 있읍니다.

다친 선수들이 경기장 밖으로 실려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심하게 다쳤으며 다른 사람은 치명적으로 다쳤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그야말로 경기가 아니고 싸움이 되었읍니다.

관객들은 매우 실망하고 염려되었읍니다. "왜 이 경기를 계속 진행시키지? 어느 팀도 이길 수가 없어. 중단시켜야 해."

여러분이 이 경기를 주최한 사람에게 가서 이 무용하고 무익한 싸움을 중지시키라고 요구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요. 여러분은 이것은 어처구니 없는 짓이며 아무런 목적도 없는 짓입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는 선수들을 생각치도 않습니까?

그는 조용히 당신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며 이 경기는 중요한 목적이 있지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읍니다.

이것은 관중들을 위한 경기가 아니고 참가한 선수들을 위한 것이며 이 경기는 계속 진행시키는 것은 바로 그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들이 당면하는 어려움으로 인해 그들은 많은 유익을 얻을 것입니다.

그는 유니폼을 입고 의자에 앉아 경기에 참가하기를 원하는 선수들을 가르키며 "그들 모두가 다 참가해 보고 오랫 동안 준비하고 열심히 훈련받은 날이 오면 그때 나는 시합을 중단시키겠읍니다."고 말하였읍니다.

그 때까지 어느 팀이 앞서 가든지 상관없읍니다. 현재의 점수는 실제로 중요치 않습니다. 시합 중에 또 다른 시합이 있읍니다. 팀에 어떤 일이 생기던지간에 각 선수는 자신의 차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규칙을 지키는 팀에 소속된 선수들은 그들의 팀이 어쩐지 항상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원히 불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운명의 장에서는 어떠한 팀이나 선수도 규칙을 지킴으로 해서 영원히 불리하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궁지에 몰리거나 학대 당하거나 심지어는 잠시 패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팀에 속한 각 선수들은 점수판에 어떻게 나타나든 그들 자신은 빛써 승리한 것입니다.

각 선수는 자신에게 필요한 만큼 충분한 시험을 받게 될 것인데, 그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가 하는 것이 시험입니다.

마침내 경기가 끝났을 때 그들은 그 목적을 알게 되며 그리고 시합중 가장 힘들었던 때에 참가할 수 있었다는 것에 감사를 드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그렇게 절망적으로 생각하신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는 언제라도 모두 중단시키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모든 선수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고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준비해온 시험을 치를 기회를 갖기 전에는 중단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의 그와 같은 시험은 각 개인에게 정반대의 효과를 가져다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또 다른 성약인 몰몬경의 다음 세 구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읍니다. "여러 해를 두고 이들은 전쟁과 유혈과 기근의 어려움을 당하였느니라.

"또한 니파이 백성들 간에는 살인과 불화와 온갖 완악한 죄가 있었으나 의인의 도움 곧 의인들의 기도로 하여 저들이 부지되었더라.

"그러나 보라 니파이인들과 레이맨인들이 끔직하게 오랜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강탈하여졌으나, 한편으로 많은 고난을 겪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손하여졌고, 한량없이 겸손하여진 자가 많더라"(앨마서 62 : 39-41)

분명히 여러분은 생활이 역경으로 가득찼지만 그것으로 더욱 강해지고 다듬어진 어떤 사람들과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같은 시련을 받고 더 고통을 받고 괴로움을 당하고 불행하게 된 것을 알 것입니다.

전세의 교리에 대한 지식이 없이 인생을 이해할 길이 없읍니다.

출생이 인생의 시작이라는 생각은 비합리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면 인생을 설명할 방법이 없읍니다.

인생이 죽음으로 끝난다는 생각 또한 어리석은 생각이며 그것을 믿으면 인생을 맞이할 방법이 없게 됩니다.

우리가 전세의 교리를 이해하게 될 때 모든 것이 제자리에 맞게 되고 통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린 소년 소녀들이 원숭이가 아니며 그들의 부모나 처음 조상도 원숭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과 부모 자녀의 관계에 있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지상의 창조에 대한 목적 또한 명백합니다.

지상 생활에서 주어지는 시험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태희 방문자

구세주의 필요성도 명백합니다.

우리가 복음 원리를 정말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을 보며 우리의 대속과 구속을 볼 수 있읍니다.

우리는 의식과 성약의 필요성을 이해하게 됩니다.

최사함을 위한 침수로서의 침례의 중요성과 성찬을 취함으로써 그 성약을 새롭게 하는 이유를 이해하게 됩니다.

나는 단지 전세의 교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이 짧은 대회 말씀에서 그 이상은 말씀드릴 수가 없읍니다. 단 하루 또는 단 한시간이라도 그것에 관해 말씀드릴 수 있다면 좋겠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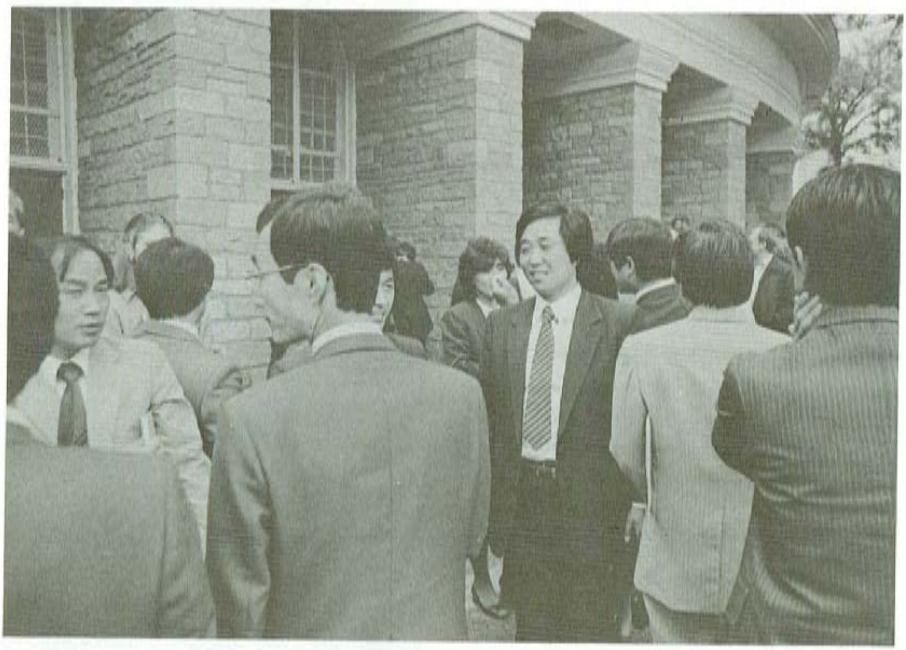
나는 이 교회의 프로그램과 활동의 바탕에는 인생의 의문에 답을 얻을 수 있는 깊고 넓은 교리가 있음을 확신합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될 때 기쁨을 얻게 됩니다.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단어는 경전에서 계속 되풀이 되어 나옵니다. 말일성도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교리를 알게 되면 부모가 되는 것이 성스러운 의무라는 것과 자녀를 생산하는 것은 거룩한 특권임을 알게 됩니다. 유산은 생각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차살을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약점과 문제점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쁨의 근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즐거워하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예지니 바꾸어 말하면 빛과 진리니라."(교리와 성약 93 : 36)

하나님께서 그의 메시지를 듣게 될 우리와 모든 사람들이 빛을 찬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간증과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



대회 방문자

라 벨

토요일 오후 모임

토마스 에스 몬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영국 런던의 트라팔가 광장에 있는 국립 미술관은 전세계에서 요뜸가는 미술관입니다. 이 미술관은 컨스터블(영국 화가, 1776-1837, 풍경화의 대가) 코너와 렘브란트(네덜란드 화가, 1606-1669, 초상화로 유명함) 화랑을 돌아보도록 자랑스럽게 권장하며 또한 모든 방문객들에게 터너(영국 화가 1775-1851, 풍경화의 대가)의 걸작들을 돌아보도록 권고하고 있읍니다. 세계 각처에서 오는 방문객들은 영적인 감명과 영감을 받고 떠납니다.

최근 국립 박물관을 방문하는 동안, 나는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서 화가의 이름이 없는 매우 훌륭한 초상화와 풍경화를 보고 깜짝 놀랐읍니다. 거기서 나는 다음과 같은 설명문이 적혀 있는 큰 플래카드를 눈여겨 보았읍니다.

"이 전시품은 미술관 내에서 드러나 있기는 하나 약간 방치된 장소인 하층에 있는 여러 점의 그림 중에서 뽑아 온 것입니다. 이 전시품은 방문객들에게 그림을 그린 화가가 누구일까 하고 너무 신경쓰지 않고 그림을 보도록 권장하고 있읍니다. 몇몇 경우에는 우리도 정확히 모르고 있읍니다.

"그림의 라벨에 적힌 내용은 가끔 거의 무의식적으로 그림에 대한 우리의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읍니다. 이곳에는 방문객들이 일단 한번 그림을 보고 각 작품에 대한 자신의 평가를 한 후에 읽어 보기를 바라는 뜻으로 일부러 라벨을 붙이지는 않았읍니다."

그림의 라벨은 어떤 사람들의 겉모습과 같습니다. 이것은 가끔 오해를 낳기도 합니다. 주님은 한 무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화 있을찐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마 23 : 27-28)

겉으로는 재능이 없고 허약하며 평범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읍니다. 초라한 출생지인 통나무집 앞에 서 있는 소년 아브라함 링컨(미합중국 제16대 대통령, 1809-1865, 미국 남북 전쟁시 대통령으로 재임했음)의 그림 밑에는 전형적인 라벨이 붙어 있었읍니다. 그곳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읍니다. "초라한 집에서 살고, 제대로 입지 못하며 잘 먹지도 못했음" 그 소년의 진정한 라벨인 "불멸의 영광을 얻을 운명을 지녔음"이라는 말은 예기되지도, 언급되거나 적혀 있지도 않았읍니다.

한 시인은 다음과 같이 표현했읍니다.

한 소년이 얼마나 훌륭한가는 아무도 모른다.
우리는 기다리며 지켜 보아야 한다.
그러나 고귀한 인물도
한때는 소년이었네.

시대와 장소는 다르지만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의 소년 사무엘 역시 그의 또래의 다른 젊은이와 그 모습이 비슷했음에 틀림없었을 것이다. 사무엘이 잠자리고 음성을 듣고 있다가 그를 부르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늙은 엘리가 부르는 음성인 줄 잘못 알고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사무엘상 3 : 4)라고

대답했읍니다. 그러나 엘리는 소년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음성이 주님의 음성이라고 말하자 사무엘은 엘리의 권고에 따라 곧 다음과 같은 유명한 대답으로 주님의 부름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삼상 3 : 9) 그 다음의 일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읍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은 알았더라."(삼상 3 : 19-20)

그후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렀으며 초라한 말구유의 요람에서 갓난 아기가 자랄 때 예언이 성취되었읍니다. 이 사건을 묘사할 만한 라벨은 전혀 없었읍니다. 베들레헴에서 아기가 태어남으로써 큰 은사와 무기보다 더 강한 권세 그리고 시이저(로마 황제)의 동전보다 더 오래 가는 보물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초라한 환경에서 태어난 이 아기가 "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딤전 6 : 15)요, 약속된 메시야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될 아기였읍니다.

소년 시절 예수는 성전에서 박사들 가운데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며 묻기도 하였읍니다. 그의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그의 지혜와 대답을 기이하게 생각하고 놀랐읍니다. 요셉과 그의 아내 마리아가 그를 보고 놀랐읍니다. (눅 2 : 46-48 참조) 성전에 있던 해박한 선생들에게 소년의 겉모습의 라벨은 번뜩이는 예지를 나타내 보여 주었으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한 미래의 온 인류의 구속주로서의" 참된 모습은 보여 주지 않았읍니다.

예언자 이사야의 메시아에 관한 예언은 특별한 의미를 전해 줍니다.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사 53 : 2) 이것은 우리의 주님을 묘사한 예언이었읍니다.

마태는 배신자 유다와 음모를 꾸며 주님의 생명을 빼앗으려는 사악한 죄인 무리들의 필요성을 기록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유다는 사악한 무리들에게 그들이 찾는 예수님이 사도들 중에서 어느 사람이라는 것을 가리켜 주기로 했던 것이었읍니다. 성스러운 경전에 나와 있는 다음 구절은 독자의 간담을 서늘하게 해줍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가로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하셨는지라

"곧 예수께 나아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저희가 나아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마 26 : 48-50)

이같이 배반자의 입맞춤이라는 라벨은 주님을 확인해 주었읍니다. 그래서 유다는 피할 수 없는 수치와 급변의 라벨을 스스로 붙이게 되었읍니다.

때때로 어떤 도시와 나라는 특별한 라벨이 붙어 있어 잘 확인할 수 있읍니다. 동부 캐나다에는 춥고 오래된 그런 도시가 있었읍니다. 선교사들은 그곳을 "물과 같은 킹스톤"이라고 불렀읍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이 간격을 두고 계속 그곳에서 봉사하도록 지명을 받았는데도 6년 동안 단 1명의 개종자만이 있었읍니다. 아무도 킹스톤에서는 침례를 주지 않았읍니다. 그곳에서 봉사한 선교사들에게 한번 물어 보십시오. 킹스톤에서 보낸 시간은 참혹 생활을 하는 나날과 같았읍니다. 심지어 다른 지역으로의 선교사 전근을 꿈에서조차 맨 먼저 생각하는 것이었읍니다.

그 당시 선교부장으로서 나의 책임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기도하고 같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읍니다. 내가 이 슬픈 딜레마에 대해 기도하고 깊이 생각하는 동안 나의 아내가 디터 피터슨 널리가 쓴 *"브리감 영의 생애의 유년 시절 이야기"*에서 발췌한 내용에 나의 주의를 환기시켜 주었읍니다. 아내는 큰 소리로 읽어 주었읍니다. "브리감 영은 춥고 눈이 펄펄 내리는 달에 온타리오주 킹스톤에 들어왔다. 그는 거기서 30일 동안 열심히 노력하여 45명에게 침례를 주었다. 여기에 대답이

있었읍니다. 만일 선교사 브리감 영이 이러한 수확을 거두어 들일 수 있었다면 현재의 선교사들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나는 패배의 순환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킹스톤에서 선교사들을 철수시켰읍니다. 그러자 그 소문이 조심스럽게 퍼져 나갔읍니다. "곧 선교 사업을 위해 새 도시가 열리게 됩니다. 브리감 영이 전도하여 30일 동안 45명에게 침례를 준 바로 그 도시에서 말입니다." 선교사들은 장소에 대해 숙고했읍니다. 그들은 주께 보고서를 통해 이 산그리라(지상의 낙원)에서 봉사할 임무를 맡겨 달라고 간청했읍니다. 많은 시일이 지났읍니다. 신중히 선발한 4명의 선교사, 즉 두 명의 새로운 선교사와 두 명의 경험이 많은 선교사가 이 벅찬 모험을 위해 선택되었읍니다. 작은 지부의 회원들은 지지할 것을 서약했으며, 선교사들은 생명을 내어 걸기로 서약했읍니다. 주님은 두 서약을 존중해 주셨읍니다.

3개월 만에 킹스톤은 캐나다 선교부 산하에서 개종자가 가장 많이 나오는 도시가 되었읍니다. 회색 석회석의 빌딩은 그대로 서 있었고, 도시의 모습은 변화하지 않았으며, 주민들도 변함없이 그대로 계속 남아 있었읍니다. 변한 것은 태도였읍니다. 의심의 라벨이 신앙의 라벨에 굴복당하고 만 것이었읍니다.

교회의 킹스톤 지부의 지부장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밝혀 주는 라벨을 달고 있었읍니다. 구스타프 바케르 형제는 독일에서 이민 왔읍니다. 그는 탁한 악센트의 영어로 말했읍니다. 그는 결코 자동차를 사지도 타지도 않았읍니다. 그는 이발사로 열심히 일했읍니다. 그의 일과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선교사의 머리를 깎아 주는 특권을 갖는 것이었읍니다. 결코 이발 요금을 받지 않았읍니다. 사실상 그는 자신의 호주머니에 깊숙히 손을 넣어 하루 동안 받은 팁을 모두 선교사들에게 주곤 했읍니다. 킹스톤에는 자주 비가 오는데 비가 내리는 날이면 바케르 지부장은 택시를 불러 선교사들을 택시에 태워 그들의 아파트로 보내고는 자기는 혼자서 하루 일과가 끝나면 작은 상점문을 잠그고 휘몰아치는 빗속을 걸어 집으로 가곤 했읍니다.

내가 구스타프 바케르 형제를 맨 처음 만난 것은 그가 바친 십일조가 예상한 수입에서 기대한 것보다 훨씬 초과한 것을 알았을 때였읍니다. 주님은 십일조로 10퍼센트 이상을 요구하지 않으신다고 설명하는 나의 말을 그가 듣기는 하나 믿지는 않았읍니다. 그는 단순한 반응을 보였는데 가능한 한 그가 바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액수는 그의 수입의 절반이나 되었읍니다. 그의 사랑하는 아내도 그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읍니다. 십일조를 바치는 그들의 독특한 태도는 그들이 은퇴할 때까지 계속되었읍니다.

구스타프 바케르 지부장과 그의 아내 마가레테는 천국과 같은 가정을 이룩했읍니다. 그들은 자녀를 두는 축복을 받지 않았으나 교회의 많은 방문자들을 부모처럼 돌보아 주었읍니다. 옷타와에서 온 세련되고 박식한 한 지도자는 이렇게 말했읍니다. "저는 바케르 지부장을 방문하기를 좋아합니다. 저는 영적으로 새롭게 되어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겠다고 다짐하며 떠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러한 변치않는 신앙을 존중해 주셨읍니다. 지부는 번창하였고, 회원이 너무 불어나 전세 건물의 홀이 비좁아 그들 소유의 아름다운 현대식 예배당으로 이사를 갔읍니다. 바케르 지부장 내외는 고국인 독일에서 선교 사업을 하고 그후 아름다운 워싱턴 신전에서 신전 사업을 행함으로써 그들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읍니다. 그후 바로 3개월 전 그의 지상에서의 사명은 끝이 났읍니다. 구스타프 바케르 형제는 그의 영원한 동반자의 사랑스런 팔에 안겨 평화롭게 운명했읍니다. 이 순종심이 많고 충실한 종에게 적절한 단 하나의 라벨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분이요,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시는 분임" (삼상 2 : 30 참조)

자주 보이나 마지못해 주어지는 라벨은 "심신 장애자"라는 라벨입니다.

수년 전 스팬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님이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님, 브르스 알 맥콩키 장로님, 그리고 나에게 슈레브풋트 루이지애나 스테이크 축복사를 임명하실 때 얻은 경험을 말씀해 주셨읍니다. 킴볼 대관장님은 택함에 관한 주님의 뜻을 알 수 있게 해준 접견 방법과 찾는 방법과 기도하는 방법을 설명하셨읍니다. 몇 가지 이유로 추천된 후보자들 중에는 이 특별한 시기에 이 임무를 맡을 적임자가 없었읍니다.

어느덧 하루가 다 가고 저녁 모임이 시작되었읍니다. 갑자기 킴볼 대관장님은 스테이크 부장을 향하여 에배당 정면에서 뒷쪽의 3분의 2 정도 되는 곳에 앉은 형제가 누구인지 물어 보셨읍니다. 스테이크 부장은 그가 제임즈 워맥 형제라고 대답하자 킴볼 대관장님은 "주님이 형제님의 스테이크 축복사로 선택하신 분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모임 후에 고등 평의회실에서 나와 접견을 갖도록 해주십시오."라고 말씀하셨읍니다.

찰즈 케이글 스테이크 부장은 깜짝 놀랐읍니다. 제임즈 워맥 형제는 정상적인 남자의 라벨을 달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읍니다. 그는 제2차 세계 대전 중 전투하다 끔찍한 상처를 입었읍니다. 그는 두 손과 한 팔을 잃었으며, 더구나 그의 시력은 거의 전부를, 그의 청력은 일부를 잃었던 것입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 그를 법대에 입학시키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읍니다. 그러나 그는 루이지애나 주립 대학교 법과에서 3등으로 졸업했읍니다. 제임즈 워맥 형제는 "심신 장애자"라는 라벨을 달기를 거절했읍니다.

그날 저녁 킴볼 대관장님이 워맥 형제를 만나 주님께서 그를 축복사로 임명하셨다고 말했을 때 방안에는 한동안 침묵이 흘렀읍니다. 얼마 후 워맥 형제는 이렇게 말했읍니다. "킴볼 대관장님, 저는 축복사가 축복받는 사람의 머리 위에 그의 손을 얹는다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회원의 머리 위에 얹을 손이 없읍니다."

킴볼 대관장님은 침착하게 인내심을 갖고 워맥 형제가 킴볼 대관장님의 앉으신 의자의 뒤로 오게 하시고는, "워맥 형제님, 앞으로 기대어 형제님의 팔의 살린 몽당 부분이 내 머리 위에 닿게 해보십시오."라고 말씀하셨읍니다. 워맥 형제가 기뻐한 것은 그의 팔의 몽당 부분이 킴볼 대관장님께 닿았기 때문이었읍니다. 그러자 "제 팔이 대관장님께 닿을 수 있어요! 정말 대관장님께 닿을 수 있어요!" 하고 외쳤읍니다.

킴볼 대관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물론 형제님의 팔은 내게 닿을 수 있읍니다. 형제님의 팔이 내게 닿을 수 있다면 형제님이 축복하는 모든 사람에게 닿을 수 있어요! 내가 형제님 앞에 앉게 될 제일 키작은 사람이 될거요."

킴볼 대관장님이 제임즈 워맥 형제에 대한 역원 지지를 스테이크 대회에서 묻게 되자, "열렬히 찬성하는 회원들의 손이 하늘을 향해 빈쩍 올려졌읍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읍니다.

다윗이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지명되었을 때 예언자 사무엘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은 그날의 행사에 꼭 맞는 라벨이었읍니다. 그것은 모든 충실한 회원의 생각임에 틀림없었읍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삼상 16 : 7)

겸손한 마음의 라벨이 담긴 메시지는 인생의 색무늬 융단에 짜여진 금실과 같습니다. 소년 사무엘의 경우 그러하였고, 예수님의 경험에서 구스타프의 간증이 그러하였으며, 또한 제임즈 워맥 형제의 부름에서도 그러하였읍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삼상 3 : 4 참조)라는 대답이 우리 각자가 누구인지 알게 해주는 라벨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자유의지와 사랑

매리온 디 햄스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믿으시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일을 다 하셨고 또 하실 것이나 우리의 자유의지만은 강요하시지 않습니다."

나는 오늘 아침에 자유의지의 가치와, 우리를 위해 그것을 지켜 주고 또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도록 이끌어 주고 힘이 되어 준 사랑의 가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해 전 나는 어떤 생각이 머리에 떠올랐는데 처음에는 그것이 단지 공상에 지나지 않거나 아니면 이야기의 주제 정도로 생각되었읍니다. 그러나 지상의 이곳저곳을 여행하며, 가족이나 기타 사랑하는 사람들 곁을 떠나 있는 경우가 많게 되자 그 생각이 자주 머리에 떠올랐읍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지구 문명의 종말이 왔다는 것과 같은 공포할 이야기를 동시에 들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까요?

한 가지 현상은 누구에겐가 전화를 걸려는 사람들로 거리가 온통 정신없이 혼잡하게 될 것입니다. 전화선이 온통 마비되어 전화기가 있는 곳마다 누구에겐가 "나는 당신를 사랑하오."라고 말하려는 사람으로 온통 붐빌 것입니다. 또한 "정말 미안하오."라는 말도 있겠고, "난 참 어리석었소"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 주위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보게 되면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 날 수도 있음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줍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것은 반드시 그러한 재난만이 아니라, 일상 생활과 일상적인 관계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기회가 있을 때 사랑을 표시해야 합니다. 부족한 점을 다 메꾸고 모든 좌절감을 다 물리칠 때까지 그것을 뒷날로 미루기만 한다면, 현명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원망과 자만심과 이기심이나 조급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인생의 참 의미와 그 가능성을 잃게 되고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을 위한 삶을 잃게 됩니다. 좌절과 불안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날까지, 사랑하며 베풀어 주기를 미룬다는 것은 큰 실책입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읍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볼 수 없읍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태도와 행위를 시정하고 개선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그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믿으시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일을 하셨고 또 하실 것이나, 우리의 자유의지만은 강요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요일 4 : 19)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의 특권, 또 우리가 선택한 것에 책임을 지고 그 결과를 경험하는 책임을 부정하거나 묵살시키는 과정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실, 주님은 제멋대로이며 불순종하는 자녀들의 그릇된 판단으로 인하여 눈물 흘리셨다고 기록되어 있읍니다.

"네 형제들을 보라. 저들은 내 손의 솜씨니 내가 저들을 만드는 날에 저들에게 지식을 주었고 에덴 동산에서 내가 저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도다."(모세서 7 : 32)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머지 백성을 보시며 우시니…"(모세서 7 : 28)

우리는 창세 전에 하나님에게서 자유의지를 받았읍니다. 경전에서 가르치고 있는 바, 천국 회의에서는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계획 이외에도 다른 안이 있었다고 합니다. 루시퍼도 자신의 계획을 제시하도록 허용되었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극히 크시어 우리를 자유에 따르는 위험에서, 선택의 권리와 책임에서 우리를 막지 않으셨으리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지도 능력이나 대인 관계에서 지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너무나 깊고, 그 원리는 너무나 귀중한 것이므로, 그 결과를 인식하고 있었던 주님은 우리가 선택하기를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루시퍼는 마음속에 사랑도 없었고, 자유에 대하여 참되게 생각해 보지도 않고, 또 그것을 존중하지도 않았읍니다. 그는 그 원리나 우리 인간들을 조금도 신임하지 않았읍니다. 그는 강요된 구원과 생존을 주장하였고 자유의지 없이 지상에 나왔다가 다시 되돌아가는 그런 주장을 내세웠읍니다. 한 사람도 잃지 않으리라고 그는 주장했읍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계획대로 한다면, 누구도 더 현명해지나, 더 강해지거나, 더 동정적이거나, 겸손하거나 감사하며, 더 창의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전세의 상태를 떠나기 전에 자유가 위험스럽고 힘든 것임을 알았읍니다. 우리는 사랑이 우리를 가슴아프게 하고 고통과 실망을 가져오기 쉽다는 것을 알았읍니다. 그러나 사랑과 선택의 자유에 반대되는 것은 우리를 아버지와 같은 형지기의 직분으로 영원히 이끌 수 있는 성장과 창조적 능력을 위한 기틀을 마련해 줄 수 없다는 것도 알았읍니다. 아버지의 영의 장자는 마음속의 깊은 사랑으로 자기 앞에 놓인 개인적인 대가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영원한 의미를 아시고는, 구속의 역할을 자원하여서,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도록 도와 주셨읍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선택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이 지상에서 지금도 선택하고 있읍니다.

최근에 나는 십대를 갓벗어난 아름다운 숙녀가 스테이크 대회에서 처음으로 말씀하는 것을 들었읍니다. 그녀는 자기 가족을 알지 못했읍니다. 그녀는 이집저집 떠돌아다녔으며, 여러 가지 실수도 많이 저질러 마음의 상처도 많이 받고 아무런 희망도 없었읍니다. 그런데 교회 회원인 어느 노부부가 그녀를 데려가 사랑을 보여 주며 가르쳐 주었읍니다. 그녀가 준비한 이야기는 재치있고 재미있었지만, 말씀을 하면서 눈물로 간증을 드리는 모습은 아름답기까지 했읍니다.

"내가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 인간임을 깨닫도록 도와 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읍니다. 내가 특별한 인간이라고 가르쳐 준 사람도 없었읍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랑과 그를 보내신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쳤읍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고 가르쳤읍니다. 나를 위해 말입니다. 내가 얼마나 가치있는 인간이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겠읍니까!

스스로 선택하여 이 지상에 왔으나 그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지혜의 교훈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책임은 그들을 돕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하여 그 의미를 분명히 알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자유의지를 사랑하지 않고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생각이 최고라고 여겨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의 뜻을 강요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실패를 무릅쓰고라도 강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육, 규칙, 훈련, 훈육은 물론 필수적인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보여 주신 크신 사랑과 인내를 본받아서 우리도 능력이 미치는 대로 가르치고, 설득하고, 권고하여 도와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양심과 신앙에 따라서, 우리가 참으로 사랑한다면, 우리의 뜻을 강요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유의지를 결코 박탈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사탄의 방법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이 세상에서 자신의 반항적인 방법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허락되었읍니다. 그는 지상의 첫 가족과 마주친 이래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끊임없이 싸움을 걸어 왔읍니다.

모세서에 묘사된 장면을 잠시 생각해 봅시다.

"사탄이 있더니 손에 큰 사슬을 쥐었는데 그 사슬이 온 지면을 암흑으로 덮었고 바라보고 웃으며, 그를 따르는 사자들도 기뻐하더라."

그리고 또한 이렇게 기록되어 있읍니다.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며 아버지와 아들에 대하여 간증하고 성신이 많은 사람에게 내려오시니."(모세서 7 : 26-27)

인간의 영혼을 위한 다툼은 계속됩니다. 우리는 계속 선택해 나갑니다.

전세나 현세에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위해 큰 대가를 치루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잘 사용하도록 온갖 노력을 다 하셨으나, 거기에는 책임이 부여되어 있음을 분명히 밝히셨읍니다.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신 30 : 15-16, 19)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한복음 3 : 16)고 경전에 기록되어 있읍니다. 그 기록하신 아들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의 생활로 우리에게 훌륭한 모범을 보이셨으며 그의 생애에서 그가 우리 인간 세계에 사시기로 선택하신 것보다 더 큰 감동을 내 마음에 준 것은 없읍니다.

"자녀들은(즉, 우리는)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매 그는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히 2 : 14, 16-18)

그 사랑을 통해 이렇게 되었으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히 4 : 15)

주님은 우리의 약점을 아시며 우리가 유혹받음도 알고 계십니다. 그는 천사처럼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하나님에게 자비롭고 충실하게 변호해 주시고자 살과 피의 몸으로 오셨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다른 사람의 약점"을 알고, 참으로 충실하고 자비로운 대제사나 상호부조회 교사 또는 친구나 아내 혹은 남편이 되고자 한다면, 타인과의 관계를 좀더 증진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으며 고귀한가는 우리가 도저히 짐작할 수도 없지만, 우리는 여기서 배우고 또 배우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에서 죄없으셨으며, 그러한 이유로 회개도 항상 첫째 원리인 신앙과 동반하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스도의 성스런 은사는 우리가 항상하고, 성장하여 변화되고 지혜와 자비와 용서를 배울 수 있는 길을 마련하셨읍니다. 우리가 자유의지를 현명하게 사용하는 데서 기타 유익한 자질과 모든 축복이 나오게 됩니다.

사랑을 품거나 사랑의 정신없이 계획되거나 수행되는 어떠한 행위나 프로그램이나 규칙, 또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의 자유의지를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 또는 그의 지도자나 백성들에게 합당치 못한 것임을 확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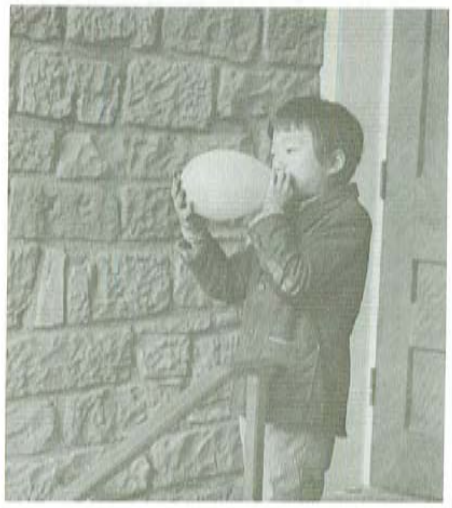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자유의지를 보호하셔서 우리가 역경을 헤쳐 나가며, 영원한 창조적인 봉사에서 나오는 큰 축복을 누리는 다른 기쁨을 맛보게 도와 주십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 우리는 선택하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나는 이 일을 몇 년 전 필리핀의 마닐라에서 경험했읍니다. 그때 아내로부터 호텔에 있는 내게 한 밤중에 걸려 온 전화는 우리 외아들이 큰 사고를 당해 움직이지도 못하고 생명까지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었읍니다. 그는 병자 축복을 받고자 집에 실려 오고 있는 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집에 도착했으리라고 생각되었을 때쯤 나는 전화를 걸었읍니다. 잠시 후에, 조용하게 가라앉은 아내의 음성이 들렸읍니다. "네 명의 사위들이 우리 아들의 주위에 서서 병자 축복을 하고 있읍니다." 하고 아내가 말했읍니다. "방금 물이 기름을 붓고 줄이 축복을 하려던 참이에요. 당신이 여기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 애가 걱정하고 있어요. 그 아이가 아버지 아닌 다른 사람에게서 축복받기는 이번이 처음일거에요. 그러나 지금은 위안을 받은 것 같습니다." 나는 지구의 반바퀴쯤 떨어진 외로운 호텔 방에서 무릎을 꿇고 축복기도를 드리며 그들과 함께 했읍니다. 그러자 갑자기 방안이 아늑하고 따사로와졌습니다.

모두들 전화통에 매달려 전화선이 지극히 바쁘게 될 때가 우리 생애에 혹시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우리는 우리가 품고 있는 사랑을 생각해 보고, 나타내야 하며, 우리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과,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른 모든 사람과 우리의 성스런 구세주와 아버지 하나님에게 사랑을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우리 함께 "예수께서 베푸신 사랑"을 부릅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친구냐 적이냐

찰즈 에이 디데이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같은 목적을 가지며 그분의 뜻을 옹호하는 강한 수호자가 될 필요가 있읍니다.

인간이 존재하기 시작한 때부터 사람들은 자존심과 야망을 채우고 권력과 위력을 과시하며 다른 편을 지배하기 위해 세상을 친구와 적의 두 편으로 갈랐읍니다.

군대 지도자들은 "친구냐 적이냐"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며, 어느 편인가를 재빨리 분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고안해 냈읍니다. 이렇게 친구와 적을 택하는 과정은 옛날 성경 이야기에서도 볼 수 있읍니다. 전쟁이 끝날 무렵에, 에브라임인들은 요단강을 통해 도망하려 했읍니다. 불행하게도 이 탈출구는 그들의 적인 길르앗인들에 의해 이미 봉쇄되어 있었읍니다. 길르앗인들은 누가 자기 편이며 누가 적인가를 알아야 했읍니다. 그들은 도망자들에게 물었읍니다. "네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 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능히 구음을 바로 하지 못하고 씁볼렛이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 나루턱에서 죽였더라"(사사기 12 : 5-6)

그 발음을 바로 하지 못한다는 것은 곧 죽음을 뜻했읍니다. 그날 죽은 사람은 42,000명이나 되었읍니다. 분명히 그것은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었고, 오해를 불러 일으킬 여지가 없었읍니다.

"친구냐, 적이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없읍니다. 대답은 단순히 이것 아니면 저것입니다. 물론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하여 친구인 것처럼 가장하려 할 수도 있겠지만, 결과는 언제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선별 과정과 잠재적인 거룩한 사람을 택하는 과정에 유사한 점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인간이 존재하기 시작한 때부터 역사는 인간의 그릇된 행위가 계속되어 왔으며, 지금도 인종, 종교, 문화, 정치적 이유로 분열을 하며 심한 전쟁을 일으키고 있으며, 인류에 대한 이러한 죄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당화하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읍니다.

오늘날 이 복잡한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끊임없는 전쟁과 마지막 파괴를 피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참된 메시지를 상기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스도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읍니다.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위하여 선을 행하며 못된 일로 너희를 이용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니삼 12 : 44)

그러나 우리가 깊이 숙고해야 할 필수적이고도 개인적인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구 관계인가 또는 적대 관계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잘 이해된다면 영생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잘못 이해되고, 잘못 사용되고, 잘못 생각하고, 잘못 전술되면 영적인 죽음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죽음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경고하였읍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좇아 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좇아 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

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야고보서 4 : 1—4)

하나님의 원수는 무엇입니까? 경전은 이것을 정확하게 정의하고 있읍니다.

"무릇 육으로 난 인간은 아담이 타락한 때로부터 하나님의 적이요, 영원토록 하나님의 적이 되리라."(모사이야서 3 : 19)

이 강한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은 인간이 육욕적인 생활을 버릴 수 있을까, 또는 이 지상이 양식과 피난처와 위안과 기쁨과 오락, 그리고 신까지 제공하는 밀음을 버릴 수 있을까 하고 궁금하게 여길지도 모르겠읍니다. 그런 사람이 이 우의를 키우는 방법을 알게 될 때 영원한 근원을 세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신앙으로 깨달을 수 있을까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엡 2 : 8)

그러면 하나님의 참된 친구는 무엇입니까?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님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읍니다. "가장 그리스도다운 사람은 참으로 가장 위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으로 진지하게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사람됨과 행동이 결정됩니다."(대회 보고, 1951년 4월 93페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이상으로 선택함으로써 우리는 그분처럼 되고자 하는 소망과 그분과 친교를 맺고자 하는 소망을 마음에 품게 됩니다."(대회 보고, 1951년 4월 98페이지)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것은 중보자요 평강의 왕이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가능한 일입니다. 이제 예언자 베냐민의 다음 가르침을 숙고해 보도록 합시다.

"무릇 육으로 난 인간은 아담이 타락한 때로부터 하나님의 적이요, 성신이 인도하시는 대로 맡겨 육으로 된 자기를 버리고 주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성도가 되며, 어린 아이같이 되어 유순하고 온유 겸손하며 인내하며 사랑이 충만하여, 주께서 인간에게 합당하다 여기어 내리시는 모든 것에, 어린 아이가 그 부모에게 하듯 기꺼이 순종하지 아니할진대, 영원토록 하나님의 적이 되리라."(모사이야서 3 : 19)

인생의 참된 목적 중의 하나는 우리의 구세주이며 구속주의 중보자와 친구가 되어, 그분의 성역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지지하고, 그분의 친구, 그분의 제자로 부름받기에 합당하도록 자격을 갖추고 그의 아버지의 면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을 너희에게 함은 너희로 예배하는 방법을 깨달아 예배하는 자가 누구임을 알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와서 정한 시간에 아버지의 충만함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교성 93 : 19)

예언자와 사도들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친구가 되는 것이 중요함을 간증하였읍니다.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님이 지난해 연차대회에서 다음과 같은 간증으로 말씀을 끝낼 때, 내 마음은 크게 감동되었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가 세상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박히셨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은 나의 친구이며 구세주이시며 나의 주님이며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성도들이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의 영과 함께 영원한 상속을 받도록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합니다."(성도의 빛, 1983년 1월호, 5페이지)

"그분은 나의 친구"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친구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같은 목적을 가지며, 그분의 뜻을 옹호하는 강한 수호자가 될 필요가 있음을 뜻합니다.

우리는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에서 큰 교훈을 배울 수 있는데 그 우정은 주님께 충실하겠다는 성약에 기초를 두고 있었읍니다. 나는 그 우정의 몇 가지 특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삼상 18 : 1)

"요나단이 그 아비 사울에게 다윗을 포장하여 가로되"(삼상 19 : 4)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셨느니라."(삼상 20 : 42)

개인으로서 특히 십대의 청소년은 어떤 친구를 택하여 사귀며 신뢰하며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읍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를 거절할 충분한 힘이 있읍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친구로 받아들일 충분한 힘이 있읍니까? 친구가 된다는 것은 마음으로 즐거워하며 더 낮은 표준에 굴복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와 같은 표준을 유지하며 더 낮은 표준들에 대항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상호간의 우정이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의 기초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주는 방법이라고 깊이 생각하고 있읍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쁘게 지키라. 보라 그리스도의 말씀은 너희가 행하여야 할 바를 모두 전하여 주심이라."(니이 32 : 3)

조건과 모범이 모두 주어졌읍니다. 그런데 왜 그분의 증인이 됨으로써 그분의 제자가 되기를 주저합니까? 왜 아직도 마음에 갈등을 겪고 있읍니까? 그분의 친구가 되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우리는 자녀에게도 우정과 사랑의 영원한 관계를 세우라고 가르침으로서 같은 목표를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너희 자녀를 빛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라 명하였느니라."(교성 93 : 40) 우리는 우리의 아들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대하고 있읍니까? 우리는 모범으로 가르치고 있읍니까? 우리는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읍니까? 우리는 그들과 함께 교회에 참석하고 있읍니까? 우리의 영적인 발전 및 그리스도나 그분의 아버지와 친구가 될 수 있는 자격은 우리가 가정에서 얼마나 충실하게 복음에 따라 생활하며, 우리가 얼마나 성실하게 자녀들에게 가르침을 전하느냐에 달려 있읍니다.

"너희는 너희 자녀를 헐벗고 굶주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어 서로 싸우거나 다투지 아니하고…… 악마를 섬기지 아니하리니 그는 모든 의의 적이라."(모사이야서 4 : 14)

우리의 목표는 의를 택하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친구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침례를 통해 맺은 성약은 하나님의 친구가 되겠다는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야고보서 2 : 23)받았읍니다. 여러분이 전에 하나님의 친구가 되지 못했다면,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경전에 대한 지식, 예언자에 대한 간증, 우리 종교에 대한 믿음, 그리고 개인적인 간증을 갖고 있읍니다. 나는 나의 구속주가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나는 그분을 나의 친구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나 역시 그분의 친구라고 불리우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모두가 그분의 제자요, 친구가 되도록 자격을 갖추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네 부모를 공경하라"

폴 에이치 던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우리가 노인이 되어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노인들을 공경하도록 합시다."

솔트레이크시티에서의 지금 시각은 오후 3시입니다. 여러분은 많은 가정에서 연차 대회 실황을 들을지 또는 프리감 영 대학교의 미식 축구 경기를 볼 것인지를 두고 서로의 주장대로 채널을 바꾸려고 하고 있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나 역시 스포츠를 좋아하는 편이므로 이곳에 앉아 있으면서 전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들려주신 현명한 권고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나는 그 말씀이 이곳에서도 합당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폴, 이것을 명심해라. 하루는 교회를 위한 날이고 엿새는 즐거움을 위한 날이란다. 그러므로 하늘 나라에 가는 기회는 6대 1이란다."

또한 이런 말씀도 하셨읍니다. "나는 우리 조그만 교회를 지나칠 때마다 내가 안으로 들어섰을 때 주님께서 '누구지?'라고 하시지 않도록 잠시 들어가 머물다 가기를 원한단다."

하루는 나의 한 손녀의 생일 파티가 벌어지고 있는 동안 나는 여느 할아버지와 같이 그 손녀를 무릎에 앉히고 나이, 지혜, 경험 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읍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손녀는 나를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읍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태어나셨어요?" 그것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이에 관해 말하면서 이렇게 물어보았읍니다. "당신은 언제 늙어가고 있는지를 말할 수가 있읍니까?" 나는 "아니오"라고 말했읍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읍니다. "당신은 다음과 같을 때 늙어가는 것입니다.

○ 이를 닦는 동안 숨이 조금 가빠질 때
○ 여러분이 모든 답을 할 수 있으나 아무도 질문을 하려 하지 않을 때
○ 화장품보다는 짙은 화장을 더 생각하게 될 때
○ 흔들 의자에 앉아 의자를 흔들기가 힘들게 느껴질 때
○ 사위를 끝내고 나서 거울이 김으로 뿌옇게 되어 여러분의 모습을 볼 수 없음을 기쁘게 생각할 때
○ 아침에 일어나서 신발을 한 짝만 신고는 잠자리에서 일어난 것인지 잠자리에 들려는 것인지 기억이 나지 않을 때

이 외에도 몇 가지 다른 징조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잘 계획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늙어간다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한 완성기를 어떻게 보내는가 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달려 있읍니다.

인생의 황금기에 접어든 사람들에게 나이란 단지 성장이 멈추고, 꿈이 시들고, 감정을 느낄 수 없는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나이가 오히려 증오스러운 것이 될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특성은 연대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며 마음으로 인한 것입니다. 다글라스 맥아더 장군은 한때 이렇게 말했읍니다. "열의를 갖고 사십시오. 이상을 버린다고 해서 늙는 사람은 없읍니다. 연륜은 피부를 주름지게 하지만 열의를 버리는 것은 영혼을 주름지게 만듭니다. 인간은 믿는 만큼 젊어지며 의심하는 만큼 늙습니다. 또한 확신하는 만큼 젊

어지며 두려워하는 만큼 늙고, 희망을 갖고 있는 만큼 젊어지며 실망하는 만큼 늙습니다."

역사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욱 훌륭해지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읍니다. 미켈란젤로는 69살이 되어서야 비로소 시스틴 성당의 유명한 프레스코 벽화를 그리기 시작했읍니다. 그는 90세를 일기로 죽을 때까지 시와 그림과 조각 작품으로 줄곧 바쁜 나날을 보냈읍니다.

독일의 천재 문학가인 괴테는 81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고전적인 명작 "파우스트"를 끝냈읍니다. 그는 그것을 40여년 전에 시작했으나 다시 그것을 이어서 쓰는 동안 그의 남은 생애에서 신선한 상상력과 통찰력이 지칠로 우러났던 것입니다.

허버트 후버 미국의 전대통령은 72세 때 38개국에 식량 공급을 조정하는 일을 맡았읍니다. 그는 84세 때 미국 대표로 벨지움에 갔었읍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80세가 넘어서도 발명을 했읍니다. 벤자민 플랭클린은 75세가 넘어선 때까지 정치적으로 중요한 인물이었으며 현명하고 통찰력을 겸비한 미국의 외교관직을 수행했읍니다.

나의 어머니는 지금 85세가 넘었지만 지금도 그림을 그리시며 정원을 돌보고 계십니다. 어머니의 그림은 고전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했을 때는 80세가 넘어서였읍니다. 과거의 우리 에언자들과 오늘날의 컴불 대관장님의 위대한 영적 공헌을 생각해 보십시오.

윈스톤 처칠경이 세계 제 2 차 대전 시에 영국 국민들에게 그의 피와 수고와 땀과 눈물을 약속한 것은 65세였읍니다. 앨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80대에 들어서도 병자를 돌보며 적도 부근의 아프리카를 돌아다니고, 원고를 쓰고, 피아노로 바하를 연주했읍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은 여러 면에서 보통 사람들을 능가하는 재능을 부여받은 비범한 사람들이었고 비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들 모두가 갖고 있던 가장 비범한 재능은 열성이었으며, 매일매일을 의욕과 관심으로 대하려는 날카로운 안식(眼識)과 그리고 영혼의 황폐한 곳을 개간하여 인생을 이끌어 나가고자 한 태도였읍니다. 랄프 월도우 에머슨은 이렇게 표현했읍니다. "인간은 해아릴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에야 비로소 나이를 헤아리게 된다." (존 바틀릿, *유명한 인용문*, 보스톤 : 리틀 브라운 앤드 컴패니, 1968년 609페이지)

나이든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특권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분들이 우리의 생활을 헤아릴 수 없이 축복해 주는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훈계를 잊지 마십시오.

잠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읍니다.

"젊은 자의 영화는 그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그 백발이니라. (잠언 20 : 29)

또한 욥기에는 이런 말씀이 있읍니다.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모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욥기 12 : 12-13)

시편에는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읍니다. "나를 늙은 때에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한 때에 떠나지 마소서." (시편 71 : 9)

나는 현재 위치에서 나이드신 분들에게 가족들이 함께 시간을 나누고 관심을 갖도록 권고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그러한 경험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은 오래 된 잡지에 나와 있었읍니다. 작가의 이름도 언급되어 있지 않으며 단지 마음이 우울한 사람이 썼다고만 되어 있읍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읍니다.

"바로 옆집에 아주 훌륭한 노인이 살고 있읍니다. 그는 지금도 사리가 분명하고 활동적입니다. 그는 특별한 아침이 되자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목욕을 하고 면도를 한 다

음 가장 좋은 옷을 입었읍니다. 분명히 그들이 오늘 올 것이라고 생각했읍니다.

"그는 매일 노인회의 노인들을 방문하기 위해 주유소까지 걸어가는 일을 하지 않았읍니다. 그것은 그들이 집으로 오는 것을 맞이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들이 오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길이 잘 내다보이는 현관에 앉아 있었읍니다. 분명히 그들은 오늘 올 것입니다.

"그들이 왔을 때 깨어 있기 위해서 그는 낮잠도 자지 않기로 했읍니다.

"그에게는 여섯 자녀가 있었는데 딸들 중의 두 명과 그들의 결혼한 자녀들이 불과 몇 마일 떨어져 있는 곳에서 살고 있었지만 꽤 오랫 동안 그를 보러 오지 않았읍니다. 그러나 오늘은 특별한 날이므로 분명히 그들은 오늘 올 것입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 그는 케익을 자르기를 거절했으며 아이스크림을 냉장고에 남겨 놓도록 했읍니다. 그는 기다렸다가 그들이 오면 함께 후식을 먹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9시 가량 그는 그의 방에 들어가 잠자리에 들 준비를 했읍니다. 불을 끄기 전에 그가 한 마지막 말은 '그들이 오면 나를 꼭 깨워다오.' 하는 것이었읍니다.

"그날은 바로 그의 91세가 되는 생일이었읍니다."

복잡하게 발전해 나가는 현대 세대에서 "아름다움보다는 연륜"이라는 옛말이 바뀐 것 같아 마음이 혼동됩니다. 오늘날처럼 젊음과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때는 없었읍니다. 젊음과 아름다움도 소중한 특성이지만, 연령과 경험은 무한한 자산이 될 수 있읍니다.

그리고 컴퓨터 시대의 기술이 우리 노시민들의 생활을 풍요롭게 하고 연장시켜 주는 데 탁월한 역할을 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인간적 관계까지 대체하거나 향상시켰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방금 인용했던 경전 구절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중요한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읍니다.

첫째, 노인에게는 장점이 있읍니다.

둘째, 우리는 나이가 들고 경험을 함으로써 얻는 지혜와 이해력을 통해 배울 수 있읍니다.

셋째, 나이든 사람들은 능력이 있고, 생산적이며, 쓸모가 있으며 무시되어서는 안됩니다.

과연 우리가 이러한 결론을 수행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 의아해 하는 분들은, 주님께서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창 4 : 9)라고 질문한 가인에게 그렇다고 대답하신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마태복음 19 : 19)

나는 마지막 문제점은 이러한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수행할 것인가?" 나이많은 친구들과 친척들에게 다음과 같이 하면 어떻겠읍니까?

1. 그들의 조언을 구합시다.
2. 그들을 규칙적으로 방문하거나 전화를 합시다.
3. 그들을 우리의 활동에 참여시킵시다.
4. 그들의 경험담을 들도록 합시다.
5. 그들이 기본적인 생활 필수품을 갖고 있는지 알아봅시다.
6. 병에 걸린 노인들을 돌보아 드립시다.
7. 그들을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여 도움을 받는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라 고귀한 인격을 갖춘 인간으로 대합시다.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조부모님, 친구들, 그리고 이웃들과 일상적인 정을 나누도록 합시다. 우리가 동정이 아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우리의 관심을 보여 줄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 권고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출애굽기 20 : 12 참조)

마지막으로, 우리가 노인이 되어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노인들을 공경하도록 합시다. 우리도 늙어가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전해 드립니다. 아멘 *

주님의 집

애드니 와이 고마쯔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우리가 신전에 가서 모든 의식을 받고 계명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충만한 신권의 축복을 받을 수 없으며, 승영에 이를 수도 없읍니다."

최근 수개월 동안 조오지아의 아틀란타, 사모아의 아피아, 통가의 누크알로파, 칠레의 산티아고 등지의 여러 신전이 완공되어 헌납되었읍니다. 또한 현재 계획 중이거나 건설 중인 신전도 있읍니다. 물론 세계 각 곳에 있는 많은 신전에서는 의식이 수행되고 있읍니다.

나는 동경 신전장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하신 특별한 부름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읍니다. 축복에 참여하기 위해 거룩한 집에 모여드는 성도들과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즐거움이고 특권입니다.

교회는 왜 신전을 지으며 그것이 있어야 합니까?

이것은 약 5년 전에 동경 신전을 건립하기 시작한 무렵 한 청부업자가 한 질문입니다. 그는 일본에서 불교나 신도교에서 사당이나 신전을 짓는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리스도 교회에서 신전을 짓는다는 말은 처음 듣는다고 했읍니다. 기독교의 많은 종파들이 아름다운 예배당이나 성당을 짓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 교회의 신전에 대해서는 전에 들어 본 적이 없었읍니다. 그리스도 교회임을 공언하는 많은 교회 중에서도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만이 유일하게 신전을 건립합니다.

그 청부업자는 신전을 신성한 건물이고 거룩한 집이며 그곳에서는 산 자와 죽은 자에 대한 구원의 영광스러운 사업이 수행되며, 죽은 자를 위한 침례와 그밖에 아내가 남편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죽은 자까지도 산 자와 똑같이 가족으로 함께 인봉되는 의식이 집행되는 곳이라고 들었읍니다.

교회가 조직되고 3년 후인 1833년 8월 2일에 요셉 스미스가 받은 계시 중 그에게 내려진 지시를 보면 신전 건립에 관한 명확한 설명이 있읍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에게 준 방식에 따라 시온 땅에 집을 한 채 지어 내게 바침은 곧 나의 뜻이니라.

"참으로 내 백성의 십일조로 속히 지으라.

"보라, 이것이 나 주가 저희 손에 요구하는 십일조요, 희생이니, 이로써 시온의 구원을 위하여 집 한 채를 지어 내게 바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니,

"모든 성도가 감사드리는 곳이요, 여러 직분과 직책을 맡아 성역을 베풀도록 부름받은 모든 자가 교훈을 받는 집이 되게 할지어다.

"이로써 저들이 저희 성역과 이론과 원리와 교리를 이해함에 온전케 되며 너희에게 그 열쇠가 부여된 지상의 하나님의 왕국에 관계되는 일체의 일에 있어서 온전케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나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집을 지어 내게 바치며 더럽히지 않게 부정한 것을 일체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 나의 영광이 그곳에 머물러 있으리라.

"참으로 내가 그곳에 임하리니, 내가 그 안에 들어갈 것임이라. 그 안에 들어오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모두 하나님을 보리라.

"그러나 더럽힘을 받으면 나는 그 안에 들어가지 아니할 것이요, 따라서 나의 영광도

그곳에 있지 아니하리니, 나는 거룩하지 아니한 신전에 들어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교성 97 : 10-17)

당시에는 교회의 회원수가 아주 적었지만 그들은 온 희생을 다 바쳐 커틀랜드 신전을 건립하고 헌납했읍니다. 주님께서는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그 신전을 용납하셨읍니다. 모세, 일라이어스, 엘리야도 나타나서 각자의 열쇠와 율법을 위임했읍니다.(교성 110편 참조)

그러나 커틀랜드 신전에서의 신전 의식이 시작되기도 전에, 성도들은 폭도들의 습격을 받고 도피하지 않으면 안되었읍니다. 그 신전은 간악한 자들의 수중에 들어가게 되었고, 계시에 언급된 바와 같이, 그것이 더럽혀졌으므로 주님께서는 그것을 부인하시게 되었읍니다. 성도들의 노력으로 미주리주에 신전을 지었으나 그들은 삶을 위해 또다시 그곳을 떠나지 않으면 안되었읍니다.

약 5년 후에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다음과 같은 계시를 받게 되었읍니다.

"이는 저가 와서 너희가 잃었던 것 곧 하나님께서 취하여 가버리신 것 곧 완전한 신전을 또다시 회복한 곳을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음이라.

"이는 저들 곧 나의 성도들이 죽은 자를 위하여 침례받을 침례반이 이 세상에는 없음이니라.

"이는 이 의식이 나의 집에 속하여 있어 너희가 가난하여 내게 집을 지어 바칠 수 없을 때 외에는 내가 가납할 수 없음이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이름으로 이 집이 건립되게 하라. 그리하여 내가 그곳에서 나의 백성에게 나의 의식을 나타낼 수 있게 할지어다.

"이는 내가 창세 이전부터 숨겨온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관한 일을 나의 교회에 드러내 보이려 함이라(교성 124 : 28-30, 40-41)

교리와 성약 124편에 기록되어 있는 이 계시는 "충만하신 신권"에 관해 언급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며 어떻게 얻을 수 있겠읍니까? 요셉 스미스는 이렇게 가르쳤읍니다. "만일 사람이 하나님의 충만하신 신권을 얻는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얻으신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얻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방법이란 모든 계명을 지키고 주님의 집에서 집행되는 모든 의식을 순종하는 것이다."(*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302페이지)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은 부가하여 다음과 같이 가르쳤읍니다. "하나님의 왕국에서 승영이라는 충만한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고자 원한다면 다른 곳에서는 행하여질 수 없는 이 성스러운 의식을 주님의 집에서 받아야 합니다. *어떠한 남자도 혼자서 승영에 이를 수 없으며, 어떠한 여자도 이 축복을 혼자서 누릴 수 없읍니다. 남편과 아내가 주님의 신전에서 인봉되어 계속하여 주님의 계명을 지킬 때 승영에 이르게 되고 계속 발전하여 주님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운명이요, 그것이 주께서 그의 자녀에게 바라시는 바입니다."(구원의 교리 2 : 40)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신전에 가서 모든 의식을 받고 계명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충만한 신권의 축복을 받을 수 없으며 승영에 이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신전 의식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훌륭한 축복입니다.

나는 생애의 대부분을 교회 회원으로 살아왔읍니다. 나는 17세 때 침례를 받았으며, 21세 때 멜기세덱 신권에 성임되었읍니다. 젊었을 때 교회에서 많은 지명을 받아 봉사했으며 훌륭한 경험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신앙과 간증을 얻는 데 유익한 많은 개념들을 배우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아내와 함께 신전에 들어가 축복과 새롭고 영원한 성약을 받고 그곳에서 행해지는 의식을 이해하고 나서야 비로소 내가 교회의 참되고 완전한 회원이라는 느낌이 들었읍니다.

나는 나의 가족 중에서 침례를 받고 교회에 들어온 첫번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

상에서 복음을 듣지 못한 나의 조상들을 위해 선전 의식을 대신해야 하는 책임을 지고 있었읍니다. 또 자녀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그들의 마음속에 선전 의식의 중요성을 품게 해주는 책임도 있었읍니다. 내게는 네 명의 자녀가 있읍니다. 큰 아이는 결혼을 해서 두 아이를 두고 있읍니다. 우리에게 대단히 소중한 손자들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성약 안에서 태어났으며, 손자들도 그렇습니다. 내가 자녀나 손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은, 또 내가 그들에게 남기 줄 수 있는 가장 귀중한 유산은, 우리를 대대로 사랑과 행복 안에서 묶어 주는 선전 사업과 제브 사업의 중요성과 복음의 참된 간증입니다.

세상에는 선전에 가기 위해 개인적인 큰 희생을 치르고 먼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의 의로운 소망을 들어주시고 그들의 노력에 무한한 축복을 내려 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최근 한 그룹은 오키나와에서 비행기로 1,448Km을 날라 동경 선전에 왔읍니다. 그들 중에는 결혼을 하려고 온 젊은 한 쌍이 있었읍니다. 그들은 저금한 모든 금액을 교통편을 위해 지불했읍니다. 그래서 결혼 축하연이나 신혼 여행에 쓸 돈이 없었읍니다. 그 한 쌍과 함께 온 사람들은 그들의 곤경을 알고 나자, 각자 호주머니를 뒤져 가지고 있던 돈을 모아 그들이 동경에서 하루 동안 신혼 여행을 즐길 수 있게 해주었읍니다. 이 젊은 부부는 선전의 축복을 누렸을 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들의 아량과 친절을 받고 감사했읍니다.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한 바울의 가르침은 확실히 꼭 들어맞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에베소서 2 : 19)

나는 선전 의식의 중요성과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가져다 주는 축복에 대해 확고한 간증을 드립니다. 나는 제보 사업과 선전 사업을 가르치며 맛보는 기쁨과 이 간증에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모두 주님의 집의 충만한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대회 방문자

모로나이 천사의 방문

마크 이 피터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몰몬경은 천사의 성역과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 말일에 회복되었읍니다.

약 2주일 전에 우리는 교회 역사상 가장 중요한 기념일을 지냈읍니다.

그날은 바로 1823년 9월 21일이었읍니다. 이날 모로나이 천사는 뉴욕주 팔마이라 근처의 농장에서 소년인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처음으로 나타났읍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온 세상 사람들에게 모로나이 천사가 실제로 방문했음을 엄숙히 간증드립니다. 그것은 사실이며, 확고 부동한 진리입니다. 모로나이 천사는 왔읍니다!

하나님의 천사이며, 하늘의 사자로서 이 영광스러운 분은 육신을 입고서 요셉 스미스를 방문했읍니다. 그 사실은 꿈도 아니며 더구나 신비스러운 일도 아니었읍니다.

그것은 실제의 방문이었읍니다. 육신을 지닌 두 사람은 서로 대화를 나누었읍니다. 영원한 장막에서 온 육체와 뼈를 가진 부활한 모로나이는 필멸의 육체를 가진 농장의 소년 요셉에게 결코 잊을 수 없는 방문을 여러 번 되풀이하였던 것입니다.(요셉스미스서2 : 30-54 참조)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천사들의 성역을 믿지 않고 있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의 성역을 행하십니다. 주님은 아담의 시대부터 이와 같은 교통의 수단을 사용해 오셨읍니다. 주님이 오늘날 그와 같은 방법을 계속해서 사용해서는 안될 이유라도 있을까요?

천사들은 구약 시대 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에도 많은 백성들에게 성역을 행하였으며 주님의 메시지를 전했읍니다.

아브라함은 천사들과 함께 걷고 이야기를 하였읍니다. 한 천사는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을 도와 주었읍니다. (출 14 : 19 참조) 또 어떤 천사는 예언자 이사야의 시대에 침략한 병사들과 싸웠으며, (사 37 : 36 참조) 다니엘이 사자굴에 있을 때, 한 천사가 사자들의 입을 봉하고 그의 생명을 구출했읍니다. (단 6 : 22 참조)

가브리엘 천사는 나사렛의 동정녀 마리아에게 구세주의 어머니가 되리라는 것을 알려 주었읍니다.(눅 1 : 30 참조) 또한 그는 침례 요한의 부친에게 장차 예언자가 될 아들이 곧 태어나리라는 것을 말해 주었읍니다.(눅 1 : 13 참조)

요셉과 마리아가 거룩한 아기와 함께 애굽으로 피신할 때에 그들에게 방향을 가리켜 준 것도 천사였으며 사악한 헤롯왕이 죽자 천사가 그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일러 주었읍니다.(마 2 : 13, 19-20 참조)

구세주께서 어린 아이들의 존엄성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뵈옵느니라."(마 18 : 10)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실 때가 임박했을 때 만일 그분이 그 쓴 잔을 피하기를 원하셨더라면 도움을 받기 위해 열 두 군단의 천사들을 부르실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마 26 : 35 참조) 그렇다면 천사들이 있을까요? 만약 천사들이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천사들이 무덤에서

물을 굴려 치워 놓았으며, 여인들은 천사들이 그곳에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였읍니다.(마 28 : 2,5 참조)

스데반이 그의 박해자들에게 마지막 간증을 할 때,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이 빛이 났읍니다.(행 6 : 15 참조)

한 천사가 베드로를 감옥에서 해방시켜 주었으며,(행 5 : 19 참조) 바울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에 대해 언급했읍니다.(고전 13 : 1 참조)

경전의 말씀은 천사들의 성역의 목적이 "인간들에게 회개를 부르짖어 전하며…그리스도의 말씀을 주님께서 택하신 그릇에게 간파함으로써, 저들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간증을 갖도록 하는 것이니라."(모로 7 : 31)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읍니다.

주님께서도 여러 시대에 걸쳐서 만일 천사들이 나타나는 일이 그쳤다고 하면, 그것은 인간들의 불신앙과 배도의 영 때문이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러나 신앙만 있으면 천사들의 성역은 땅이 존속하는 한, "땅 위에 단 하나라도 구원받을 자가 있는 한"(모로 7 : 36) 계속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진실로 종말이 이를 때까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계시자 요한에게 말일에 천사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자로서 다시 공중에 날게 될 것이라고 계시해 주셨읍니다. 요한은 천사들 가운데 한 분이 하늘에서 땅으로 날아가며 여러 시대에 걸쳐 잃어버렸던 영원한 복음을 지상에 다시 가져다 주는 것을 보았읍니다.(계 14 : 6 참조)

그 천사가 바로 모로나이였읍니다. 그는 약 1,500년 전에 미대륙에 살았으며, 그 당시의 하나님의 예언자였읍니다. 그와 그의 부친 몰몬은 미대륙의 역사를 기록하여 세월이 흘러도 손상되지 않도록 금판에다 그 기록을 새겼읍니다. 이는 그 기록이 말일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기록을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해, 모로나이는 자신이 몰로 만든 상자에 그 기록을 담아 땅속에 묻었읍니다. 비평가들 중에는 이 사실을 극히 이상한 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읍니다. 그러나 모로나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더욱 이상한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가 행한 일은 고대에 여러 민족이 그들의 귀중한 기록들을 보존하고 보호하기 위해 따랐던 확고 부동한 관습과 완전히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록은 수세기에 걸쳐 금속판에 새겨졌읍니다. 그중의 일부가 다시 발견되었읍니다. 그러한 보물들은 한국에서부터 비롯하여 스리랑카까지, 고대 앗수르와 바사에서부터 인도까지, 자바에서 망족에 이르는 지역 그리고 이태리, 그리스에서 발견되었으며 또한 사해 두루마리가 팔레스타인의 쿰란 동굴에서 발견되었읍니다.

이러한 기록들이 모두 금으로 된 것은 아니었읍니다. 고대인들은 은판이나, 놋쇠판이나, 동판이나, 납판이나 어떤 경우에는 주석판에 기록을 하였읍니다. 그런데 주석판은 다른 금속보다는 산화하기가 쉽기 때문에 완전히 영구적인 것이 못된다는 사실이 증명되었읍니다.

이와 같은 발견품들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팔레스타인에서 다른 사해 두루마리와 함께 발견된 동 두루마리였읍니다. 거기에도 고대의 성스러운 기록이 담겨 있읍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었던 다리오왕은 모로나이가 한 것과 같이 금판과 은판에 기록을 하여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해 돌상자 속에 넣어 땅속에 묻어 두었읍니다. 다리오왕의 기록은 현재 번역, 출판되었읍니다. 누구든지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리오왕은 세 가지 언어로 기록했읍니다.

고대 앗수르의 사르곤 이세의 왕도 똑같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었으나 그의 책을 만들기 위해 여러 종류의 금속, 즉 금, 은, 놋쇠 심지어는 주석도 사용했으며 그도 역시 메끄러운 흰색 석고석에 글자를 새겼읍니다. 그는

미래의 후손들을 위해 그러한 기록들을 보존하기를 갈망했읍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읍니까? 다리오왕과 모로나이와 같이 그는 기록을 보존하기 위해 잘 다듬어 놓은 돌상자 속에 담아 그의 궁전의 기초가 놓인 땅속에 묻어 두었읍니다. 그의 기록도 역시 번역, 출판되었읍니다.

1965년 한국에서 발굴된 19장의 얇은 금판으로 된 책에는 한자로 새겨진 불경의 일부가 수록되어 있읍니다. 이 귀중한 기록을 수록하고 있는 얇은 금판의 크기는 약 35평방 센티미터인데, 마치 책처럼 펴고 덮을 수 있게 경첩이 달려 있읍니다.

또한 1964년 이태리 베르지에서 발굴된 판의 길이는 19센티미터이고 그 폭은 9.5센티미터이며 페니키아 문자로 새겨져 있는 것으로 아스타르테 여신의 사당 헌납에 관한 것입니다. 이 판은 리하이의 시대와 비슷한 약 주전 500년경의 것으로 추정되고 있읍니다.

특히 흥미로운 사실은 이러한 고대 기록들의 일부가 모로나이가 만든 것과 같이 특별히 만들어진 돌상자에 감추어져 있으며, 어떤 것들은 한 개의 돌을 완전히 잘라서 만들어진 것이며, 또 다른 것들은 여러 부분을 시멘트로 한데 결합시킨 것이었다는 점입니다. 어떤 돌상자는 흑요석으로 된 것으로 안과 밖이 아름답게 새겨져 있었읍니다. 이러한 것은 여러 가지 귀중한 물건을 보관하는 데 사용되었읍니다. 커다란 돌상자는 곡물을 저장하기 위해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졌읍니다.

멕시코와 중앙 아메리카에서 크고 작은 돌상자가 많이 발견되었으며, 그 중에는 내부와 외부 양쪽에 아름다운 무늬가 새겨진 것들도 있읍니다.

어느 누구도 고대 백성들이 금판에 새겨 보관한 기록에 대해 더 이상 의심할 필요가 없으며, 하물며 기록을 보관해 두던 돌상자와 금속 상자에 대해 의심할 필요도 없읍니다.

물론 고대에는 금속 기록이 있었읍니다. 그 기록들은 금, 은, 동 또는 납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읍니다. 그러한 것들 중 리하이가 예루살렘을 떠나던 시기의 것으로 추정된 것들도 많습니다. 물론 이러한 관습은 리하이를 통해 미대륙에 전해졌던 것입니다.

미대륙의 예언자들 중에서 마지막 분은 모로나이였읍니다. 그와 그의 부친인 몰몬은 바벨탑을 짓던 시대에 미대륙으로 온 초기 백성인 야렛 백성의 기록을 포함해서 일천여 년을 점하고 있는 그들의 백성들에 관한 성스러운 기록들을 편집했읍니다. 야렛 백성들의 기록은 스물 넉 장의 단단한 금판에 새겨져 있었읍니다.

전쟁으로 그의 민족이 멸망당하고 치열한 싸움에서 남은 유일한 생존자가 된 모로나이는 돌상자를 만들어 그의 부친과 자신이 작성한 기록을 다리오왕과 사르곤왕이 한 것과 똑같이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해 그 돌상자 속에 넣어 땅속에 묻어 두었던 것입니다. 그 기록은 주님이 따로 정해 두실 때까지 땅속에 그대로 있었읍니다.

오늘날 우리가 천사들에 대해 언급할 경우, 천사들의 성역이 실제로 있었다면 그것은 과거의 일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하는 일부 비평가들로부터 비웃음과 경멸을 받기가 일쑤입니다.

그들은 또한 하늘의 계시나 사도와 예언자는 베드로와 바울의 시대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계시는 없으며, 지상에는 더 이상 사도와 예언자가 없다고 확신하고 있읍니다. 그들은 성경에 어떠한 경우에도 필요한 모든 것이 수록되어 있으며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침서는 성경만으로 충분하다고 가르칩니다. 그들은 세상에 수백 개의 다른 종파와 교리가 있는 것처럼 경전의 뜻이 갖가지 해석에 따라 바뀐다는 것을 잊고 있읍니다.

우리는 오늘날에도 계시가 있음을 선언합니다! 현재 지상에는 사도와 예언자가 있으며, 그들은 영감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암흑의 기간이 지난 후 지상에 그의 성스러운 교회를 다시 세

워 주신 현대에 여러 번 반복된 기이한 천사의 방문이 실제로 있었읍니다.

모로나이는 요셉 스미스를 방문함으로써 성경상의 두 가지 예언을 성취했읍니다. 계시자 요한은 지상에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 것을 보았읍니다. (계 14 : 6-7 참조)

요한은 또 말일을 뜻하는 "[하나님의] 심판하실 시간"(계 14 : 7)에 이 천사가 날아가리라고 말했읍니다. 이 일은 바로 현대에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읍니다.

그 천사는 예언대로 방문했으며, 모로나이가 바로 그 천사였읍니다. 그가 방문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새로운 경륜의 시대가 열렸읍니다. 그것은 다른 어떤 종교 운동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읍니다. 그것은 새롭고 성스러운 사건이었으며, 하늘로부터 오는 현대의 계시였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복음을 현대의 백성들에게 소개하는 새로운 시도였읍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 뿐입니다. 공중에 나는 그 천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갖고 있었으며 거룩한 진리의 축복을 위해 그것을 지상에 다시 가져왔읍니다.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그 천사는 바로 모로나이였읍니다.

그는 어떤 형태나 모양이나 방법으로 영원한 복음을 회복하였을까요? 그 복음은 어떤 실체적인 도구를 통해 회복되었을까요?

주님의 영감을 받은 선견자였던 고대의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그의 사업을 행하신다고 가르쳤읍니다. 사실상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종과 예언자들에게 그의 계획을 계시하지 않고는 실제로 아무런 일도 행하지 않으시리라고 말했읍니다. (아모스 3 : 7 참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 지상에 복음을 다시 가져 오는 천사에 대해 어떤 일을 행하기를 원하실까요? 지상에는 하나님께서 방문하실 예언자들이 없었으며, 세상 사람들은 예언자들을 믿지 않았읍니다. 만일 주님께서 살아 계신 예언자가 봉사하지 않도록 하시는 등, 아무런 일도 행하시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 지상에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 그의 천사를 보내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그의 신성한 목적을 달성하실 수가 있겠읍니까? 만일 천사의 방문을 받을 예언자가 없다면 말일을 위해 예언된 천사의 방문이 어떻게 성취될 수 있겠읍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은 한 가지 뿐입니다. 그것은 곧 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 새로운 예언자를 세우는 것이었읍니다. 그분은 1823년 뉴욕주 팔마이라 근처에 살았던 요셉 스미스 이세라는 사람을 통해 그 일을 하셨읍니다. 바로 이 젊은이에게 천사가 나타났읍니다.

천사는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다시 알리키 위해 어떤 방법으로 요셉 스미스에게 복음을 전했읍니까?

예언자 이사야는 이사야서 29장에서 팔레스타인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기에 앞서(17절 참조) 말일에 "티끌에서"(사 29 : 4) 나올 고대 기록에 대해 설명하고 있읍니다. 그는 이 기록이 책으로 나오게 되며, "경각간에"(사 29 : 5) 멸망될 한 백성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읍니다.

이사야는 이 책의 말이 유식한 자에게 전해지나 그가 받아들이지 아니할 것이며 이 책이 무식한 자에게 전해질 것이라고 예언했읍니다. 이 무식한 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 스미스이며, 이사야의 묘사에 적합한 인물입니다. 이는 요셉이 정규 교육을 조금밖에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요셉의 손에 의해 하나님의 기이한 능력으로 그 기록이 세상에 출판되어 기이하고 기이한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읍니다. (이사야 29 : 11-12, 14; 요셉 스미스서 2 : 63-65 참조)

이 책이 몰몬과 모로나이가 고대에 준비한 바로 그 기록이었읍니다. 이 책에는 미대륙의 고대 예언자들이 가르친 단순하고 아름다운 복음의 진리가 충만하게 들어 있읍니다. 이 책은 몰몬경이라 불리었으며 모로나이가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도움으로 세상에서 출판되게 한 책이었읍니다. 이리하여 영원한 복음이 담겨 있는 이 기록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는 구원에 필요한 진리를 인간에게 회복해 주었읍니다.

모로나이는 주후 약 400년경에 그 기록을 땅에 감추었는데도 그 기록이 묻힌 곳을 정확히 알고 있었읍니다. 마치 다리오왕이나 사르곤 이세 황제가 각기 자기 시대에 행한 것처럼 그 기록을 돌상자 속에 담아 땅에 묻었던 것입니다.

그 기록을 이와 같이 감추어 둔 모로나이는 그것을 다시 찾아 새로운 예언자에게 전해주어 출판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에게서 선택받았던 것입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그는 복음을 지상에 다시 회복하였읍니다. 왜냐하면 그 기록에는 간결하고 충만한 복음이 들어 있기 때문이었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큰 기적이었읍니다.

따라서 모로나이는 요셉 스미스를 방문함으로써 요한계시록 14장과 이사야 29장에 나와 있는 성경의 두 가지 예언을 성취했읍니다. 그는 천사로서 지상에 왔으며 요셉 스미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준비된 금판의 기록을 넘겨 주었읍니다.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증인이며, 성경과 마찬가지로, 나사렛 예수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세주요 구속주이심을 선언하고 있읍니다. 그 책은 온 인류가 읽을 수 있게 되어 있읍니다. 매해 20여 개국 이상의 언어로 100만 권이 출판됩니다.

우리는 오늘 다시 몰몬경이 참된 책이며, 천사의 성역과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 말일에 회복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모로나이가 1823년 9월 21일 천사로서 방문하여 그의 고대 기록을 세상에 드러내 주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렇게 하였음을 간증드립니다. 출판하기 전에 그는 평판이 좋은 12명의 미국인으로 하여금 금판의 기록을 만져 보게 함으로써 금판의 기록을 보고 만진 것에 대해 간증할 수 있게 했읍니다.

우리는 요셉 스미스가 진실로 지금까지 선명된 목적을 위해 특별히 세우심을 입은 하나님의 현대 예언자였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우리는 가장 엄숙하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속주요,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가 그의 성임받은 종들이며, 그분이 이 말일에 회복하여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권세로써 우리가 말씀하고 있으며 우리가 종사하고 있는 이 사업이 참되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의 부인인
카밀라 킴볼 자매

지상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할 우리의 책임

신권희

잭 에이치 고슬린드 장로

"온 천하에 다니며 만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마가복음 16 : 15)는 주님의 가르침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몇 년 전에 "마지막 설교"라는 제목으로 연속된 노변의 밤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었읍니다. 유명한 말일성도 학자들은 그들이 마지막으로 강의를 한다는 가정하에서 어떤 주제가 가장 중요할 것인지를 각자 선택하게 되었읍니다. 우리는 그러한 주제 선택에서 여러 가지 매우 흥미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읍니다. 나에게 있어서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전에 그의 제자들에게 그와 같은 "마지막 설교"를 하신 것이 생각났읍니다. 그의 마지막 설교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읍니다. 그가 다룰 수 있는 영원한 지혜의 말씀에 관한 많은 주제 중에서 그는 이렇게 간단히 말씀하셨읍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마가복음 16 : 15)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마가복음 16 : 20)

나는 오늘 저녁에 주님의 마지막 설교에 관해 말씀드리면서 신권 소유자이신 여러분에게 성약에 따라 가르치며,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로서 신앙과 혼돌리지 않는 결심으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 줄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아론 신권을 소유한 젊은 형제들은 내가 말씀드리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복음을 이 지상 끝까지 전해야 할 중요한 책임이 주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추구하고 있는 영원하며 승영에 이른 삶인 하나님의 생은 본래부터 인간의 구원에 관여되어 있읍니다. "인간에게 불사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사업이며 영광"입니다. (모세서 1 : 39 참조) 하나님 아버지는 그의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조건들을 수행하심으로써, 스스로 영화롭게 되며, 진보되며, 그의 영역을 넓히십니다. (교성 132 : 31 참조)

바울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딤전 2 : 4)기를 원하신다고 했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인간의 가치가 심히 크며"(교성 18 : 10)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시편 49 : 8)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구세주이며 구속주이신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죽음의 사슬을 끊게 하시고, 타락한 인간의 죄를 속죄하게 하셨읍니다. 주님께서 모든 인간의 고통을 대신 하심으로 인해 모든 인간은 회개를 조건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읍니다. (교성 18 : 11—12 참조)

모든 사람에게 회개를 외치라는 우리의 부름은 무한하고 영원한 속죄의 결과입니다. (교성 18 : 10—14 참조) 복음을 가르치고 의식을 행함으로써 주님의 속죄는 각 개인의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읍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읍니다.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로마서 10 : 14)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이 부름을 완수하는 방법을 모범으로 보여 주셨읍니다. 그는 나사렛의 회당에서 회중에게 행한 첫번째 설교에서 이사야를 인용하면서 그의 성역의 목적을 말씀하셨읍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누가복음 4 : 18-19)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동일한 사명을 수행해야 하는데 그것은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행하든지 너희도 이를 따라 행하라"(니파이삼서 27 : 21) 우리에게는 속죄 그 자체를 제외하고는 우리의 이웃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경우, 구세주께서 하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사실 우리는 "인간을 구원하는 자"가 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교성 103 : 10)될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성스러운 사업이 우연히 이루어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성스러운 성약을 통해 이러한 책임을 그의 왕국에 부여하셨으며 또한 이러한 성약을 성취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청소년이나 청년들도 이러한 성스러운 임무를 갖고 있으며 또한 그것을 행할 힘이 있습니다.

존 에이 윗소 장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전세의 상태에서 우리 자신을 위한 구원 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모든 인류를 위한 구원자가 되기로 동의했습니다.…그러므로 이 계획을 수행하는 것은 단지 아버지의 일이나 구세주의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이기도 합니다."(*유타 케보 및 역사지*, 1934년 10월, 189페이지) 우리는 *조지 앨버트 스미스* 대관장의 다음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생의 지식을 이기적으로 간직하고 있으면서, 그것으로 축복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것은 받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는 데 있는 것입니다."(*대회 보고*, 1935년 4월, 46페이지) 그러므로, "메시지를 전해 들은 사람들은 이 세상이 조직되기 전에 빚어진 영원한 성약으로 인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책임이"있다고 장로는 말했습니다. (*신천 및 교회 행정*, 존 에이 윗소 편, 솔트레이크시티 : 데저렛북사, 1954년 318-19페이지)

이러한 중대한 전세에서의 약속은 구원의 의식으로 우리에게 다시 새롭게 확인됩니다. 예를 들면 침례를 통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법사에 하나님의 증인이 되"(모사이야서 18 : 9)기로 성약을 맺습니다.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그의 영을 더욱 풍성하게 부어 주시"(모사이야서 18 : 10)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성찬을 취할 때, 그리스도께서 이 성스러운 의식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온 세상에 그의 기록을 나타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을 상기하며 이 성약을 새롭게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충실한 자에 대한 약속은 "그의 영이 항상 저희들과 함께"(교성 20 : 77)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모든 나라로" 갈 수 있도록 "높은 곳에서 임하는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교성 38 : 32-33 참조) 요셉 스미스는 커틀랜드 신전을 헌납할 때 하나님의 종들에 대하여 기도했습니다. "당신의 권능으로 무장하여 이 집에서 나아가며 당신의 이름을 받들며 당신의 영광이 저들을 둘러 싸며 당신의 천사가 저들을 지키게 하시며,

"저들이 이곳으로부터 전리 안에서 심히 크고 영화로운 소식을 땅끝까지 전파하게 하시고…."(교성 109 : 22-23)

우리는 계명에 순종하고 이러한 성약을 완수함으로써, 성결케 되고 청결케 되며 영적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우리가 성공하고자 한다면 이 사업에 반드시 함께 하는 영의 동반과 성령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모로나이는 계명의 완성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죄사함을 얻으며,

"죄사함을 받은 뒤에는 온유하여 마음이

낮아져서 이 온유함과 겸손해진 마음으로 인하여 성신이 임하시는 것이라. 이 성신이란 보혜사라. 소망과 온전한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시나니" (모로나이서 8 : 25-26)

사랑은 우리 자신이 개심한 증거이며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한 관심으로 표명됩니다. 야곱은 니파이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읍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 영육의 복리를 위함이라, 내가 너희로 심히 우려함이요." (니파이이서 6 : 3) 모사이야의 아들들은 "만인 중에 하나라도 멸망됨은 참아 내지 못할 괴로운 일이므로…저들은 만인에게 구원을 전파하기를 원하였"(모사이야서 28 : 3)읍니다.

사랑은 우리의 가장 큰 재산입니다. 요한은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요일 4 : 18)는다는 것을 알았는데 이러한 두려움과 마치못해 하는 마음은 선교 사업의 기쁨을 맛보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됩니다. "사랑으로써 역사하는 믿음"(갈 5 : 6)을 행사함으로써 우리는 영적인 권능을 부여받을 수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지닌 신앙을 보시고 권세로써……역사하시"(모로 10 : 7)기 때문입니다.

모로나이가 지적했듯이 이 온전한 사랑은 우리가 회사함을 받은 결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로 회사함을 받"(모사이야서 4 : 26)기 위하여 영적 또는 세상적인 면에서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공급해 주는 것은 필수 불가결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임무를 받았으면서도 구원을 추구함에 있어서 그것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했읍니다. "만일 우리가 선교 사업에 관한 우리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무를 다했다면 구원받을 수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지우실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엔사인, 1977년 10월호, 5페이지) 이것은 야곱의 가르침에서도 찾아볼 수 있읍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맡겨진 책임을 다하며, 전력을 다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지 아니하였을 때 백성들이 짓는 죄를 다시 떠맡지 아니하려 주 앞에 우리의 사명을 다하였으므로, 백성들의 피가 우리들의 옷에 묻지 않게 하도록 힘을 다하여 일하였느니라. 만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저들의 피가 우리의 옷에 묻게 될 것이요 마지막 날에 우리가 흠없다 하지 못할 것이라." (야곱서 1 : 19)

이것은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복지가 문제가 되고 있으며 비회원인 형제 자매의 영원한 복지도 역시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근면에 대한 약속은 영화로운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사실을 알고 있읍니다.

- 사람을 주님께 데려가는 일은 "네게 가장 값있는 일이 될"(교성 16 : 6)것입니다.
-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너는 네 동포에게 가장 훌륭한 선을 베풀며 네 주되시는 이의 영광을 증진시키리라." (교성 81 : 4)
- 시온을 세우려 힘쓰는 자들은 "성신의 능력과 은사를 얻을 것이라."(니파이일서 13 : 37)
- 충실한 종들은 "존귀와 영광과 불사 불멸과 영생의 관을 쓰게 되리라"(교성 75 : 5)
- "많은 사람을 내게로 데려오게 될 때면 너희 기쁨은 얼마나 더 크겠느냐"(교성 18 : 16)

형제 여러분, 이 점을 분명하고 명백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일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구원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여러분이 이 구원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한 신권의 맹세와 성약에 따른 여러분의 부름을 온전히 영화롭게 할 수 없읍니다. 왜냐하면 신권은 봉사의 수단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브르스 알 맥콩키 장로는 이렇게 말씀했읍니다. "선교 사업에 대한 이 부름은 우리가 따라야 할 길에 대하여 어떠한 선택권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자발적으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허락하는 단순한 초대

권도 아니며 우리가 이 부름을 편히 행할 수 있기 때문만도 아닙니다. 이 부름은 명령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그 부름에 대해 선택의 여지가 없읍니다." (대회 보고, 1960년 10월, 54페이지)

청남 여러분, 여러분은 왜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께서 "모든 청남은 반드시 선교 사업을 행해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셨는지 이해합니까? 봉사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며 여러분의 의무입니다. 또한 성인 부부도 이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신 킴볼 대관장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있읍니까?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의 가르침*, 551페이지 참조) 그는 "시간은 바야흐로 다가왔읍니다"라고 말씀했읍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아가" 브리감 영 대학 영화 제작과 1974년 필름) 이러한 봉사는 여러분 자신에게도 이로운 것이지만 교회 및 여러분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비회원에게도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는 청남 및 부부의 숫자가 늘어가고 있읍니다. 여러분이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 준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경전을 공부하고, 도덕적으로 순결을 지키며, 선교 사업을 하겠다는 목표를 마음속 깊이 굳게 세워 지상 생활과 영적인 생활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교회의 회원으로서 또한 신권 소유자로서 여러분의 성약에 따라 전해 드리려고 애썼읍니다. 나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이 맺은 성약에 대한 간증을 얻도록 주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구하시기를 권합니다. 그런 다음 여러분이 "지켜야 할 모든 성약"을 지킬 때 주님께서는 "너를 위하여 하늘을 진동하게"(교성 35 : 24) 할 것입니다.

선교 사업의 책임과 기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가치있는 일입니다.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험을 해보아야 합니다.

나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하신 질문으로 말씀을 끝맺겠읍니다. "형제들아 이 위대한 대업을 향하여 나아가지 아니하려느냐?" (교성 128 : 22)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해 드립니다. 아멘. *

선교 사업의 축복

제일스 엠 던 장로
홀리데이 노드 스테이크 빌리 뷰 제11와드

"나는 복음 선교사로 생활하는 동안 내 생애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힘에 넘치고, 열정적이며, 낙천적이었으며 확신에 차 있었음을 느꼈읍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오늘날 선교사들 사이에서 널리 유행하는 표현을 빌리자면 이것은 "경외스러운" 경험입니다. 영이 나와 함께 하시어 나의 마음을 진정시키며, 나의 생각을 여러분에게 잘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청년 시절에 처음 선교사로 떠났을 때만 해도 사실 선교 사업에 대하여 별로 이해하지 못했읍니다. 나는 복음에 대한 간증은 약했지만 내가 하고 있었던 일이 옳다는 것은 확실히 믿었읍니다.

우루과이 몬테비데오에 도착했을 때 첫번 선임 동반자로 웨인 지 쉬이스 장로를 지명받았읍니다. 나는 곧 그가 나에게 관심을 쏟고 있음을 알게 되었읍니다.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을 함께 지내면서 그는 나에게 복음의 기본 원리를 가르쳐 주었으며 최선을 다해 복음 토론을 알게 해주었읍니다. 그는 또한 스페인어의 기초 문법도 가르쳐 주었으며 올바른 선교 사업의 방향을 제시해 주었으며 나의 마음을 신성한 것에 돌리도록 도와 주었읍니다.

쉬이스 장로는 우리가 가르친 첫번째 개종자를 나에게 침례주도록 했읍니다. 타리오라는 개종자는 거의 대부분의 토론을 내 동반자에게 배웠지만 내 동반자는 내가 그 의식을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했읍니다. 나는 열심히 침례 기도문을 스페인어로 외웠읍니다. 이 거룩한 의식을 이해시키기 위해 특히 발음 연습을 계속했읍니다.

나는 데저렛 지부 침례탕에서 마리오와 함께 서서 나의 팔을 직각으로 들고 "하비엔도 시도 코미시오나도 포르 제수크리스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위임을 받아 나는 그대를 침례하노라."라고 말하던 자신의 모습을 결코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나는 위탁을 받아 그림을 그리고, 위임을 받아 군인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읍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내게도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장로로서 구세주로부터 개인적으로 위임을 받아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위한 침례를 베풀었을 때 나는 영혼 속 깊은 곳으로부터 간증과 긍지와 감사함을 느꼈읍니다. 나는 가장 중요한 분을 섬기고 있음을 알았읍니다. 나는 또한 그 침례를 베풀 수 있는 권능을 위임받았음을 알았으며 마리오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결하고 깨끗하고 합당한 존재가 되어 침례탕에서 나왔음을 알았읍니다. 그 침례를 베풀도록 해준 나의 동반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주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8월에 우리 와드의 아론 신권을 소유한 청소년들은 지역 양로원에서 생활하는 노인분들을 위하여 성찬식을 집행하도록 지명받았읍니다. 도움이 될까해서 나는 그들과 같이 갔읍니다. 실제로 내가 도울 일은 별로 없었읍니다. 모든 것은 잘 진행되었지만, 나는 그 모임을 통해 잊지 못할 경험을 하게 되었읍니다. 그 양로원 지부장님은 모임이 끝날 즈음 나에게 와서 이렇게 물었읍니다. "혹시 빌리 이 던씨와 친척이 되지 않습니까?"

나는 그에게 "예, 그분은 나의 아버지십니다."라고 말했읍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말했읍니다. "당신의 부친은 내가 가장 좋아한 선교사 동반자였읍니다. 우리는 함께 선교사로 봉사했읍니다. 머피 선교부장님이 섬 여행을 위해 우리에게 T형 포드차를 보내 주셨던 것을 난 잊을 수가 없읍니다.…" 그런 식으로 그는 50년 전 하와이에서 나의 부친과 함께 선교 지역에서 봉사했던 경험담을 말하며 추억에 잠기곤 했읍니다. 그런 말을 하는 그의 눈빛은 환해지고 얼굴에 미소가 감돌아, 마치 그러한 소중한 경험들을 어제 일같이 기억해 냈읍니다.

선교사들 사이의 인간적인 관계는 선교 사업의 결과로 받게 되는 가장 큰 축복에 속합니다. 선교사 생활을 하며 맺는 다른 사람과의 우정과 긍정적인 영향력은 영원히 계속될 수 있읍니다.

선교사가 느끼는 큰 기쁨 중의 하나는 복음을 통해 한 인간 또는 한 가족의 생활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며 불행한 어머니, 잘피를 못잡는 아버지, 빗나간 청소년들이 참된 행복과 마침내 영생으로 이끄는 길을 찾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선교사는 얼마나 개종자 수효를 올렸는가에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좀더 훌륭한 삶을 살도록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모든 선교사는 그의 개인적인 목표에 관해서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스스로 신앙의 집을 재축하며 실천에 옮길 때 가장 특별한 영적인 느낌 즉 충만한 확신과 용기와 극복하는 힘을 얻게 되고 그리고 어떤 성질의 문제를 당하거나 그 결과가 어떠하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며 실패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는 복음 선교사로서 주님께 봉사하는 동안 내 생애에서 그 어떤 다른 일을 할 때보다도 더 힘에 넘치고 열정적이며 낙천적이었으며 확신에 차 있었음을 경험으로 알았읍니다. 특히 최근에 선교부장으로 부름받은 것과 관련해서 나는 하나님께서 그의 사업을 행하기 위해 나를 보내셨으며 그의 사업이 이루어질 것임을 알고 있읍니다. 또한 세계 역사상 가장 훌륭한 젊은 세대들과 함께 선교 사업을 행하면서 특별한 일들을 완수하기 위해 서로를 돕고 나를 도와주었음을 알고 있읍니다. 나는 하루의 시작을 보기를 좋아했으며 매일 매일의 경험을 소중히 하고 있읍니다.

선교사는 남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내가 젊은 선교사 시절에 배웠던 한 가지 사실은 신체적인 단련이 극기와 같은 어떤 대가를 치름으로써 얻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적인 단련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임 동반자가 된 후에 몬테비데오에서 칼로스 가르시아를 만났읍니다. 그는 14세쯤 되었읍니다. 우리가 그의 이웃인 카라바잘스의 집에서 선교사 토론을 가르치는 데 그가 참여하면서 그와 알게 되었읍니다. 그는 우리가 그의 가족을 가르쳐 주기를 원했으며 그의 부모님과 여동생과 남동생을 만나게 해주려고 애썼읍니다. 우리는 가르시아 가족을 가르쳤으며 교회에 가입하게 되는 것을 지켜 보았읍니다. 어느 날 우리가 가르시아 집에 방문했을 때 약 15센티미터 정도의 크기로 새겨진 빨간 글자가 거실 벽에 걸려 있는 것을 보았읍니다. 거기에는 "이요 테르체로"라고 적혀 있었는데 그것은 "그리고 나는 세번째이다."라는 뜻이었읍니다.

우리는 칼로스에게 그 말의 의미를 물어 보았읍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읍니다. "에,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읍니다. 하나님이 첫번째이며 나의 가족과 다른 사람들이 두번째이며 그리고 나는 세번째입니다." 나는 그의 가르침을 결코 잊을 수가 없읍니다.

최근에 나는 아내인 페니와 6명의 딸들과 함께 봉사한 선교부에서 우리 선교사들을 사랑하고 감사하게 되었으며 특히 콜롬비아 선교사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모국에서 봉사하는 세상의 모든 선교사들에게도 똑같이 말씀드릴 수 있읍니다. 그들은 뛰어난 선교사들입니다. 콜롬비아인 선교사들은 미남이고 매력적이고 지적일 뿐만 아니라 헌신적이며 능력이 있고 효율적으

로 선교 사업을 했읍니다. 어떤 비범한 콜롬비아인 선교사와 북미인인 그의 후임 동반자는 그들의 특별한 은사와 재능으로 인해 한 달에 52명을 침례했읍니다. 다른 콜롬비아인 자매는 교회의 회원이 되기 전 1년 동안 14명을 개종시켰으며 정식으로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읍니다. 이들 젊은이들은 대단한 축하의 말도 받지 않고 선교 사업을 마치고 귀환했읍니다. 많은 귀환 선교사들은 그들이 어디서 살게 될지 몰랐읍니다. 어떤 귀환 선교사의 부모는 그들이 귀환하면 집에 그들이 거할 곳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기도 했읍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장래를 마련해 주실 것이라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먼저 섬겼읍니다. 이 젊은이들에게 적절히 맞는 찬사의 말을 찾을 수 없읍니다. 콜롬비아인 선교사들에 관하여 내가 유일하게 아쉬워하는 것은 숫자으로 3배가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선교사와 선교 사업에 관해 이야기하면 어떤 젊은이는 스스로 합당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에 눈을 돌리는 수가 있읍니다. 젊은이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무도 여러분에게 비난의 손가락질을 할 사람은 없읍니다. 여러분의 신권 지도자들은—여러분의 고문 및 감독—스스로를 내세워 심판하거나 비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돕기를 원합니다. 만약 합당성 여부로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정원회 고문에게 이야기하거나 필요하다면 감독님을 만나 그와 함께 여러분 자신이 주님과 함께 하는 올바른 길로 들어서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과 우리와 그리고 수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되겠읍니까.

한번은 우리 선교부에서 봉사하기 위해 최근에 보고타에 도착한 어떤 선교사가 첫번 접견에서 나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읍니다. "저, 부장님, 선교사로 부름을 받기 전에 그리고 선교사 훈련 센터에서 내가 저지른 모든 문제점이나 나에 관한 소문을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나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읍니다. "아닙니다. 장로님, 나는 하나도 들은 것이 없읍니다. 솔직히, 심각한 도덕적인 범법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듣게 되지 않습니다. 나에게 문제가 되며, 주님께 문제가 되는 유일한 것으로 생각되는 한 가지 사실은 지금부터 장로님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장로님께서 이 선교부에서 봉사하도록 하나님에 의해 부름받았다는 것과 장로님께서는 구세주를 위해 힘있고 효율적인 주창자가 될 수 있음을 알고 있읍니다. 장로님은 바로 이곳에서 그리고 지금 당장 나가서 주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장로님이 참으로 누구이며, 장로님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 줄 수 있는 기회를 받았읍니다." 그는 나의 반응에 약간 놀란 것 같았으며 내가 그렇게 대답함으로 접견이 훌륭하게 끝났읍니다.

이 젊은이는 우리가 전도하기 어렵다고 여기던 우리 선교부의 어떤 지역에서 심혈을 다해 열심히 봉사했읍니다. 그는 가르치고, 개종시키고, 침례를 주었읍니다. 그는 구역 관리자가 되었고, 지역 관리자가 되었읍니다. 그는 훌륭한 사람이 되어 그가 행한 일에 대한 나의 고마운 마음을 간직한 채 선교부를 떠났읍니다.

특히 선교사의 생활에 주어지는 선교 사업의 유익과 축복 즉, 영혼 속 깊이 커다란 평안과 위안을 받게 된 것 보다 더욱 큰 것은 그에게 임한 간증으로써, 그것은 필경 한꺼번에 모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훈에 교훈을 더하듯 조금씩 주어질 것입니다.(사 28 : 13 참조) 나는 지금 선교사로서 여러분에게 바로 그 간증의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며 모든 인류의 지도자며 세상의 본이 되신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읍니다. 그는 왕이시며 우리의 상담자이시며 우리의 친구가 되십니다. 그는 우리의 가장 순수하고도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경배와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받으실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마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부름받음

본 제이 페더스토운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아론 신권을 지도해 나가시는 훌륭하신 모든 형제님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교회에 중요합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을 교육시키는 재능은 신의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것을 활용할 길이 열려 있을 때는 언제나, 마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강하게 부름받습니다."

해롤드 비 리 대관장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대가족을 거느린 유명한 오페라 가수에게) 여러 자녀 중 어느 자녀를 가장 좋아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녀의 대답에는 참된 모성애가 깊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이는 병이 나서 누워있는 자녀나 집에서 나가 아직 돌아오지 않은 자녀입니다.'"(*처치 뉴스*, 1964년 6월 13일, 14페이지)

모든 감독과 고문들은 이와 같이 깊은 돌보는 마음을 가지고 일에 임해야 합니다.

훌륭한 지역 대표인 존 소넨버그 장로는 젊은 치과 의사 시절의 경험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일곱 명의 어린 자녀들이 있었으며, 집안에 차가 한 대 뿐이었다고 합니다. 그의 아내가 시내로 볼일 보러 갈 때는 버스를 타고 가야 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와 일곱 명의 자녀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정차하여 그 자녀들과 소넨버그 자매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 자매는 자기 몫의 버스표를 내고 나서도 계속 일곱 자녀의 버스표를 상자에 넣었습니다. 버스 운전사는 놀라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인, 이 아이들은 모두 댁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소풍을 가시는 것입니까?"

그녀는 "소풍가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모두 내 아이들이랍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대에서 젊은이들이 커나간다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안정과 높은 표준과 기도와 그들을 돌보아주는 부모님과 아론 신권 고문들이 필요합니다.

최근에 타계한 훌륭한 과학자요 교육자였던 헨리 아이링 박사는 생전에 그의 제자들과 겨루어 보기를 즐겼습니다. 60대 중반에 들어서도 그는 제자리에서 책상 높이까지 뛰어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는 3,40 미터의 도보 경주에서 대학생들과 겨루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몇 해 전의 어느 날, 교회 행정 건물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와 처남, 메부지간인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이 사무실에서 나오다가 헨리 아이링씨가 지팡이를 들고 그곳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그가 물었습니다. "헨리 형제, 그 지팡이는 무엇하는 것이요?"

헨리 아이링 형제는 "멋을 위해서죠, 대관장님, 멋을 위해서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교회 전체의 젊은이들에게 그처럼 많은 영향력을 발휘했던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는 "멋"이 있었습니다.

지난 여름 나부 아론 신권 기념 야영지에서는 특별 선교사 준비 실습 모임이 있었습니다. 감독님들이 아론 신권이 참여하는 이 모임을 사회했습니다. 모든 청년들은 그 자신의 선교사 준비서를 받았습니다. 이천 명의 젊은이들이 이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한 감독이 어떤 청년이 참여하려 하지 않는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는 그룹에서 조금 떨

어진 풀밭에서 빈둥거리고 있었읍니다. 그는 때때로 웃기도 하였으며 장난을 하는 것 같았읍니다. 그는 선교 사업을 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듯이 참석하려 하지 않았읍니다. 그날 밤 야영불을 둘러싸고 간증회를 갖는 자리에서 이 청년은 일어나서 말하기 시작했읍니다. "오늘 아침 나는 선교사 준비 실습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읍니다. 그러나 들고는 있었읍니다. 귀로 들으면서 많이 생각해 보았읍니다. 그리고는 감정에 휩싸여 '나는 선교사로 나가기로 결심했읍니다.'"라고 말했읍니다.

일 년 전에 아리조나주 플레그스텝에서 독수리 소년단을 위한 특별 연회가 열렸읍니다. 그곳에는 1,150명의 독수리 소년단원이 있었읍니다. 몰몬 교계의 책임자인 존 워닉 씨가 선교 사업을 나갈 생각인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 보라고 했읍니다. 1,150명 전원이 일어났읍니다.

후에 그 소년들 중에 끼어 있던 한 카톨릭 교파의 소년이 감독에게 와서 말했읍니다. "나는 몰몬이 아닙니다. 그런데 선교사로 나가기로 결심했읍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말에 감독님은 "너의 부모님께 말씀드려 보자"고 했읍니다. 그 가족을 방문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 그 가족은 복음 토론에 대하여 들어보아야겠다고 결정을 하게 되었읍니다. 이제 그 소년단원을 포함한 가족 전원이 교회 회원이 되었읍니다.

와드 유추얼에서 수영 모임을 가졌읍니다. 감독단은 양복을 입은 채로 참석했읍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벌써 수영을 하고 있었읍니다. 대제사인 훌륭한 노인이 개회 기도를 하자 모두 다 가만히 있었읍니다. 기도를 하는 동안에 수영장 안에서 철썩이는 소리가 났읍니다. 감독단 보좌가 말했읍니다. "나도 전에 여러 번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이 생각되어, 기도하는 동안에 수영할만큼 불경스런 장본인이 누구인가 하고 한쪽 눈을 떠 보았읍니다.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열 두 살난 스페인 소년이 어쩌다가 수영장의 깊은 쪽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읍니다 그의 눈빛은 두려움과 공포로 가득했읍니다. 나는 양복에 구두도 벗지 못한 채로 수영장 안으로 들어가, 그 소년을 잡아 물가로 나오도록 도와 주었읍니다. 그는 수영장의 가장자리에 앉았고, 나는 물속에서 기다렸읍니다. 그 대제사께서는 계속해서 기도했읍니다."

그 보좌는 말을 계속했읍니다. "만일 기도가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를 구하려 했다면 그 소년은 익사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물에 들어갔을 때에도 감독님은 전혀 눈을 떠 보지 않으셨읍니다."

감독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마음속으로 항상 기도하여, 여러분의 청소년들이 고통을 받고 있을 때를 꼬집어 여러분에게 알려 주시게 하십시오.

어떤 세일즈맨이 어느 집 문앞에 이르렀읍니다. 집안에서 어떤 소년이 의무적으로 지루한 듯 피아노 연습을 하고 있었읍니다. 그 세일즈맨은 "애, 너의 어머니 집에 계시니?" 하고 물었읍니다. 그 소년은 "아저씨 생각에는 어떠세요?"라고 되물었읍니다.

이 어머니가 아들이 연습하는 것을 지켜 본 것처럼, 우리는 청소년을 어디서나 지켜보고 돌보고, 사랑하는 훌륭한 사람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해 전에 집사인 테리가 소년단에서 철야 야영을 하고 있었읍니다. 그날 밤에도 보름달이 훤히 떠 있었읍니다. 고문은 테리의 팔을 잡고 말했읍니다. "자, 우리 잠시 걸어볼까." 그들은 어느 정도 길을 따라 걸었읍니다. 고문은 이렇게 말했읍니다. "테리야, 여기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자." 그들은 함께 무릎꿇고 기도했읍니다. 기도를 마친 후, 테리의 고문은 그에게 말했읍니다. "테리, 너 기도하니?" 테리는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읍니다. "테리야, 앞으로는 일생 동안 매일 기도하겠다고 약속하겠니?"

테리는 이렇게 말했읍니다. "나는 약속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절대 약속하

지 않았어요." 그는 기도에 관해서 생각해 보고 그것이 좋다고 결정했읍니다. 그것은 훌륭한 일이었읍니다. "예, 일생 동안 기도하겠어요."

테리는 고등 학교에 진학한 다음, 다시 유타 대학의 축구팀에서 쿼터백으로 좋은 성적을 올리고, 핏츠버그 스틸러스 프로 축구 팀에 입단했읍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읍니다. "나는 그 약속을 지켰읍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드렸읍니다." 테리는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읍니다.

지도자가 수행할 수 있는 가장 그리스도를 닮은 행위의 하나는 양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해롤드 비 리 태관장님은 이렇게 말씀했읍니다. "인간의 사랑은 그가 얼마나 받느냐에 의해서가 아니라, 얼마나 주느냐로 측정됩니다." (모험가-탐험대 모임에서 해롤드 비 리 장로가 하신 말씀 중에서 발췌 1968년)

프랑스 과학자인 렌느 드 샤르당씨는 이렇게 말했읍니다. "언젠가 우리가 바람과 파도와 조류와 중력을 정복하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의 힘을 바친다면, 인류 역사에서 인간은 두번째로 불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인생에서는 브루포드 레이놀즈라는 위대한 사람이 그러한 사랑을 보여 주었읍니다.

11세 소년 시절, 나는 매주 화요일 저녁마다 리챠즈 와드로 가곤 했읍니다. 소년단이 그들의 대대 모임을 그곳에서 갖곤 했던 것입니다. 나는 바닥에 엎드려 지하실 창문을 통해 지켜 보곤 했읍니다. 소년단원들은 순찰대 대회를 열어, 부싯돌이나 철을 사용하여 불을 부치고, 응급 치료법을 연습하고, 게임을 하기도 했읍니다. 나는 집사가 되고 소년단이 되기까지 참고 기다릴 수가 없었읍니다.

내가 집사로 임명되었을 때 나는 또한 소년단에 등록했읍니다. 브루포드 레이놀즈는 상당한 기간 동안 집사 정원회 고문으로 일했으며 소년단 단장의 일도 맡아 했읍니다.

내가 소년단에 가입한지 두 달 후에 제2급 자격에 필요한 시험을 치르기 위해 레이놀즈 형제의 집으로 갔읍니다. 시험을 끝내자 브루포드 레이놀즈 형제가 내게 말했읍니다. "본, 자네는 훌륭한 지도력을 갖추고 있네. 그러나 자네가 대대 모임을 대하는 태도가 산만하니 자네를 쓸 수가 없네. 자네의 태도가 개선된다면 우리는 자네를 필요로 하게 될 걸세."

가난한데다 비활동적인 대가족 출신인 나는 인간적 관심을 별로 받지 못했읍니다. 부친은 내게 내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었읍니다. 나는 나의 행위에 대하여 많이 생각해 보았읍니다. 나는 변화하기로 결심했읍니다. 다음 화요일에 나는 조금도 한눈을 팔지 않았읍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거의 완전에 가깝게 알았읍니다.

브루포드 레이놀즈 형제는 자신이 한 말을 충실하게 지켰읍니다. 나는 순찰대 지도자 보조자가 되었고, 그 다음에는 순찰대 지도자, 선임 순찰대 지도자 보조, 그 다음에는 선임 순찰대 지도자가 되었읍니다. 그는 나를 믿어 주었으며 내 생애에 큰 영향을 미쳤읍니다.

약 5년 전쯤 나는 브루포드 레이놀즈 형제님을 전화로 불렀읍니다. 그는 당시 감독의 직을 맡고 있었읍니다. 나는 이렇게 말했읍니다. "가까운 시일내에 형제님의 와드 성찬식에서 말씀드릴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는 "우리는 총관리 역원에게 부탁하기로 되어있지 않은데요." 라고 말했읍니다.

"형제님이 부탁하시는 게 아니라 제가 형제님께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하고 내가 말했읍니다.

그러자 그가 말했읍니다. "부활절에 오셔서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그래서 나는 구세주의 생애에 대한 말씀을 준비했읍니다.

나는 이야기를 시작하며 우선 그 와드 회원들에게 그들의 감독님이 내 생애에서 얼마나 훌륭한 분이었는지 말해 주었읍니다. 나도

그들에게 내가 전에 그 와드로 가 땅바닥에 엎디어 창문 너머로 안을 들여다 보던 일을 말해 주었읍니다. 나는 그가 내게 가르쳐 준 위대한 교훈의 예를 그들에게 이야기했읍니다. 나는 그들에게 그가 내게 미쳤던 영향력과 내가 지도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내게 말씀해 주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읍니다. 그런 다음 나는 그들에게 내가 그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말했읍니다. 감독님에 관하여 간단히 이야기한 뒤에, 나는 구세주에 관하여 말했읍니다.

내가 말씀을 마치자, 레이놀즈 감독님이 일어섰읍니다. "우리는 총관리 역원의 말씀이 끝난 다음에는 말씀드리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하고 그는 말했읍니다. "그러나 페더스토운 장로님이 알지 못하는 이야기를 조금 보충해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집사 고문과 소년단 단장으로 있었을 때, 다른 청소년 그룹의 일도 맡아 보고 있었읍니다. 두 그룹은 화요일에 모임을 가졌는데, 소년단은 7시 30분에 다른 그룹은 8시에 가졌읍니다. 나는 소년단 모임의 시작을 보아 준 다음 두번째 그룹이 만나는 링컨 와드로 떠나곤 했읍니다. 8시 30분이 되면 소년단 모임의 마지막 반 시간을 끝맺기 위해 되돌아 오곤 했읍니다. 페더스토운 장로는 나의 선임 순찰대 지도자였으며, 나는 대대의 책임을 그에게 맡기곤 했읍니다. 페더스토운 장로만이 바닥에 엎드려 지하실 창문으로 들여다 본 것은 아닙니다. 나도 링컨 와드에서 돌아올 때 쯤이면 그렇게 했읍니다. 나는 어떻게 진행되어 나가는지 알아보고 싶었읍니다.

"어느 날엔가는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밤 9시가 되어서야 가까스로 소년단 모임에 돌아올 수 있었읍니다. 나는 창문가에서 들여다 볼 틈도 없이 소년단 모임을 갖는 방으로 급히 내려갔읍니다. 문가에서 들어 보면 청소년 모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많이 알 수 있답니다. 나는 문가에서 귀를 기울이고 들었읍니다. 페더스토운 장로는 소년단장의 말씀 시간에 대원들을 함께 불러 모아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읍니다. 나는 그가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었읍니다.

"갑자기 나는 내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읍니다. 뒤돌아 보니, 우리 대대를 시찰나온 네 명의 소년단 지역 지도자들이었읍니다. 나는 소년단장이 소년단실 밖에서서 문가에서 말을 듣고 있는 것을 그들이 보고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난처했읍니다. 나는 할 말을 찾지 못해, 조용히 하라는 표시로 손가락을 입술에 대고 그들에게 문가에서 들어보라고 손짓했읍니다. 그들은 모두 문에 기대어 들었읍니다. 잠시 후에 한 사람이 말했읍니다. '저 청년은 언젠가 이 세상에서 훌륭한 지도자가 될거요.'

그 말에 브루 레이놀즈 형제는 이렇게 말했읍니다. "아닙니다. 언젠가 그는 이 교회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아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2년 전 우리는 1940년에서 1950년 대에 리차즈 와드에서 우리를 이끌어 준 브루포드 레이놀즈 형제님과 다른 청소년 지도자들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재회의 모임을 갖기로 결정했읍니다. 전에 그 와드에서 자랐던 소년들이 성인이 되어 그 예배당 안을 가득 채웠읍니다. 우리는 기금을 모아 멋진 선물을 사서 그분들에게 드리고 오버헤드 프로젝터를 사용하여 그 시절의 몇 가지 활동과 소년들의 사진을 보았읍니다. 우리는 브루포드 레이놀즈 형제님과 다른 훌륭한 분들에게 진심으로 한 마디씩 치사를 드렸읍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한 마디 말씀해 주시기를 청했읍니다. 브루포드 레이놀즈 형제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인 채 말문을 꺼냈읍니다. "오늘이 내 생애 최고의 날인 것 같습니다." 나는 그 말씀에 관해 생각하면서 이제는 성인이 된 당시의 집사반 소년단 그룹을 둘러보았읍니다. 그들 중에는 세 분의 스테이크 부장과 두 분의 선교부장이 있었으며 스테이크 부장단에 계신 분이 여러 분이고, 감독 또는 보좌로 일하는 사람이 서른

세 분이나 되며 한 사람은 총관리 역원으로 일하고 있읍니다. 그리하여 나는 여러분이 영향을 미친 청소년들이 성장하여 왕국에서 지도자가 되는 것을 되돌이켜 본다는 것이 바로 인생이로구나 하는 생각을 했읍니다.

재회의 모임을 가진 후 얼마 안되어 역시 감독으로 있던 그의 아들 브루포드 레이놀즈 이세가 전화를 걸어 말했읍니다. "제 부친이 입원하신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심장마비 증세로 아주 위독하십니다. 말일성도 병원에 계시는데 아시는가 해서요" 나는 그 사실을 몰랐읍니다. 나는 그에게 당장 찾아가 뵈고 싶은데 한 시간쯤 후에 비행기를 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읍니다. 나는 떠나기에 앞서 병원으로 어떻게 곧장 가야할지 몰랐읍니다. 그것에 관해 그는 이렇게 말했읍니다. "괜찮습니다. 부친은 내일 퇴원하여 집으로 오실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말했읍니다. "부친께 나의 사랑을 전해 주십시오.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찾아가 뵙겠읍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 잠시 생각한 후에 일단 모든 것을 미루기로 했읍니다. 나는 가방을 챙겨 비행기표를 사서 말일성도 병원에 있는 브루포드 레이놀즈 형제님에게로 갔읍니다. 내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그와 눈길이 마주쳤읍니다. 세월을 뛰어 넘어 훌륭한 지도자와 소년간에 나누었던 사랑이 되살아났읍니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 옆에 앉아 말했읍니다. 내가 말문을 열었읍니다. "형제님이 병자 축복을 받으신 사실은 알고 있지만, 제가 형제님의 침대 곁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해 드려도 괜찮겠지요?" 내가 무릎을 꿇고, 우리는 함께 기도했읍니다. 내가 기도를 마쳤을 때, 나와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읍니다. 나는 몸을 굽혀 그의 이마에 입맞춤을 하고 떠났읍니다.

브루포드 레이놀즈 형제님은 한 시간 뒤에 운명했읍니다. 나는 그의 아들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위대한 고문의 임종을 지켜 보았읍니다.

하는 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횃불을 들게 하셨네
내가 캄캄하고 어두움 속에서
횃불을 높이 쳐들자
곧 많은 사람들이 그 빛에
호산나를 외치며
별도 없는 어두운 밤길에 횃불을 들고
걷는 나를 따랐네
사람들이 찬양하며 열광하고 공허에
잠길 때까지도
나는 그들이 가까이 따른 것이
횃불이었음을 잊고 그들이 나를
따르는 것으로 상상했네
나는 불타는 횃불을 들고 오느라
팔이 쑤시고 아팠으며,
발도 지쳐 언덕가에서 헛디디어
넘어졌네
넘어지면서 횃불이 떴어져
그만 불길도 꺼져 버렸지
그러나 보라, 군중 속에서 한 젊은이가
힘차게 소리지르며 뛰어나와
연기나는 횃불을 잡아 다시
높이 쳐들자
하늘의 바람이 부채질하여
그것은 인간의 영혼을 밝혀 주었네
내가 어둠 속에 누워 있으니
몰려가는 군중의 발길이
나를 타고 넘어가 저 앞으로 나아가며
그들의 찬양 소리만 크게 들렸네
나는 깊숙한 그늘 속에서
이 영화로운 진리를 깨달았네
그 누가 횃불을 들고 있든지
사람들이 따르는 것은 바로
횃불이라는 것을 (횃불 든 사람", 작자 미상)

참으로 그렇습니다. 그들은 횃불드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파숫군이 되도록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불가사리를 던지는 사람이 되십시오

데이비드 비 헤이트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사실상 조용히 멀리 떠내려 가 방황하고 있으면서 그들의 집 문을 두드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선량한 사람들이 있읍니다."

전세계의 수백 개나 되는 집회소에 모인 모든 신권 소유자들과 함께 하게 되어 나는 기쁜 마음을 금치 못하겠읍니다. 왜냐하면 오늘밤 이곳에서 행하는 말씀이 "인간에게 불사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모세서 1 : 39) 구세주의 계획에 관한 고대와 현대의 예언이 속히 성취되도록 하는 일과 조화를 이루며 또한 그 일에 도움이 됨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위대한 사업이 맡겨져 있읍니다. 오늘밤 나는 교회에 활동적으로 참여하다 비활동화된 형제들과 가족들을 찾아 활동화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밤 말씀을 듣는 모든 성인 형제와 소년들은 비활동 회원으로 분류된 성인 형제와 소년들을 활동화시키고 그들과 우정·증진을 하여 모든 사람이 궁극적인 평화와 영생의 기쁨을 얻고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할 신권 책임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헌신적으로 키꺼이 봉사해 주기를 바랍니다.

지난 달에 나는 판이하게 다른 두 가지 메시지를 받았읍니다. 그중 하나는 최근에 미합중국 조세 법정에 최연소자로 임명된 사람이 갖는 워싱턴시에서의 선서식에 참석해 달라는 초청장이었읍니다. 이 직책은 미국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대단히 영예로운 직입니다.

그 초청장을 받은 후 몇 시간 뒤에 나는 한 순경의 방문을 받았읍니다. 그는 나에게 어떤 젊은이를 아는지 물어 보았읍니다. 나는 "물론, 알고 있지요. 그런데 왜 그러십니까?"라고 반문했읍니다. 이 젊은이는 순경에게 나를 안다고 진술했읍니다. 마약, 부도덕, 비싼 마약을 사기 위한 절도, 창녀와의 불법적인 관계, 그리고 싸구려 하숙집 생활에 관한 지저분한 이야기가 나와 관련되어 있었읍니다. 내가 이 젊은이를 만나 도와 주고 싶다고 말하자, 순경은 그의 정서적인 상태가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은 그를 만나지 않는 것이 좋을거라고 제언했읍니다.

이 두 젊은이의 가족을 나는 잘 알고 있읍니다. 그들은 같은 와드의 회원이었읍니다. 둘다 아론 신권을 부여받았으며 같은 주일학교 교사에게서 배웠읍니다. 그들의 가정에는 경전과 교회 잡지 뿐만 아니라 교재도 있었읍니다.

한 명은 멜기세덱 신권을 부여받고 선교사로서 선교 사업을 마치고 신전에서 결혼했으며, 법대에 재학 중 감독단에서 봉사했읍니다. 이제 스티븐 젠슨 스위프트 판사는 정부로부터 연방법원 판사로 임명되는 영광을 얻었읍니다.

다른 젊은이는 멜기세덱 신권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았으며 받지도 못했읍니다. 일류 사립학교에 다녀 선교 사업에 대한 흥미를 갖지 못했읍니다. 그는 결혼도 하지 않았으며 나쁜 사람들과 어울렸고, 복음 원리가 그의 생활 방식과 다르기 때문에 복음 원리를 비웃는 자가 되었고, 사실상 가족과 사회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버림받게 되었읍니다. 그의 가족은 경전, 가정의 밤, 가족 기도, 개인 기도, 가정에서 신앙의 간증을 듣는 일 등에 흥미가 없었기 때문에 가족의 생활

양식은 그를 영적으로 고무시켜 주지 못했읍니다.

스티븐 스위프트 판사는 워싱턴 디 시에서 가정을 이루어 연방법원 판사로서 안락하게 생활합니다. 그는 우리의 사랑과 칭찬과 최대의 존경을 받고 있읍니다.

다른 젊은이에게는 우리의 사랑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진실로 특별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나는 우리가 그를 개심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구세주께서 말씀하신 사람은 바로 그러한 젊은이입니다.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일백 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아흔 아홉 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 다니지 아니하느냐." (누가복음 15 : 4)

바울은 직접 체험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며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갈라디아서 6 : 7)고 가르쳤읍니다.

청남은 씨 뿌리는 자요 청녀도 씨 뿌리는 자입니다. 누가 이들 씨 뿌리는 자들을 훈련하고 지도합니까? 누가 그들에게 씨 뿌리는 자의 자루 속에 넣을 적합한 곡물이 어느 것인지를 가리켜 주며, 그들의 어깨에 씨 뿌리는 자의 자루를 메는 방법을 누가 가르쳐 줍니까? 처음으로 밭에 나가는 젊은 씨 뿌리는 자에게 제철이 언제인지 또는 씨를 얼마나 멀리 뿌리는지를 누가 가르칩니까? 아마 관심을 쏟는 아버지나 사랑하는 어머니나 교사와 정원회 회원이나 기타 사랑하는 사람이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해 줄 것입니다.

컴볼 대관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우리가 초기에 문제에 대한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보상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노력은 많이 기울이되 성과는 적은 것입니다. (스펜서 더블류 컴볼 1974년 6월 상호향상회 대회) 우리의 청소년을 구함으로써, 우리는 세대를 구하게 됩니다.

대관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는 정원회와 와드 보고서에 비활동 회원으로 나와 있는 성인 형제와 소년의 수가 증가하며 그들의 아내와 가족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추세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읍니다.

우리는 다음 사실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모든 비활동 성인 형제에게는 감독과 정원회 회장과 가정 복음 교사가 있읍니다.

모든 비활동 성인 자매에게는 감독과 상호부조회 회장과 방문 교사가 있읍니다.

모든 비활동 청녀들에게는 감독과 청녀 회장단이 있읍니다.

모든 비활동 청남에게는 감독과 정원회 회장이 있읍니다.

그리고 교회의 모든 회원에게는 스테이크 부장이나 선교부장이 있읍니다.

해롤드 비 리 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했읍니다. "이 백성의 필요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조직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신권이 제 기능을 다하게 하는 것입니다. (대회 보고, 1972년 10월, 124페이지)

이같이 놀라운 비활동 추세에 대한 여러분의 관심은 이제 우리의 시급한 우선 순위의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비회원이든, 비활동 회원이든, 활동 회원이든 모든 인간의 가치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큽니다. (교성 18 : 10 참조)

복음은 우리에게 교회의 모든 회원을 동료 회원을 강화할 책임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구세주께서는 사도 베드로에게,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누가복음 22 : 32)고 지시하셨읍니다.

멜기세덱 신권 정원회의 활동 촉진 프로그램에 관한 지침은 이미 지역 대표의 지시 사항과 함께 스테이크 부장에게 배부되었읍니다.

멜기세덱 신권 정원회 참여의 기본 개념을 명확히 설명하고 재강조하며, 정원회의 회원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나는 대관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의 다음 말씀을 읽어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스테이크 부장, 감독 및 멜기세

데 신권 정원회 지도자가 소속 회원들에게 효과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위한 그들의 노력을 체계화시키는 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계시로써 신권 소유자들은 정원회로 조직되어야 한다고 지시하셨읍니다. 정원회 회장단은 각 정원회 회원의 활동에 책임이 있읍니다. 정원회 회원이 '각 회원의 가정을 방문하는'(교성 20:51) 가정 복음 교육은 정원회 회원을 돌보고 강화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관리 대제사요, 가정 복음 교육 위원회 즉 와드 신권 집행 위원회의 위원장인 감독은 멜기세덱 신권 정원회 회장과 그룹 지도자와 상의하여 가정 복음 교육의 목적을 위해 가족들을 정원회와 그룹에 지명해 주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원들은 그들의 소속 정원회의 가정 복음 교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특별히 필요한 경우 비활동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와 수련 장로와 그들의 가족은 가장 효과적인 우정 증진과 가정 복음 교육을 할 수 있는 정원회나 그룹에 지명될 수 있읍니다. 가정 복음 교사들은 그들의 소속 정원회 회장단이나 그룹 지도자에게 보고합니다.

"비활동 회원은 가르치는 데 특별한 재능을 가진 형제들은 선별된 비활동 가족의 가정 복음 교사로 감독에 의해 지명되어야 합니다. 이들 가족이 활동화되면, 가정 복음 교사는 다른 비활동 가족을 돕도록 지명받을 수 있읍니다."

"대제사에게 지명된 비활동 장로나 수련 장로가 그의 가정 복음 교사에 의해 신권회에 나오면 그는 그의 필요 사항에 따라 대제사나 칠십인 그룹, 또는 장로 정원회에 참석할 수 있읍니다. 감독은 멜기세덱 신권 정원회나 그룹 지도자와 상의하여 결정을 내립니다."

"멜기세덱 신권을 받기에 합당한 수련 장로는 장로로 성임받고 장로 정원회 회원이 되어야 합니다. 연령은 멜기세덱 신권 성임을 결정하는 요소가 아닙니다. 성인 형제들은 그들의 부름에 필요한 때나 영감에 의해 또한 그들의 합당성에 따라 신권 직분에 성임됩니다."

멜기세덱 신권 정원회와 정원회 회원의 참여에 관하여 사려깊게 준비된 이 말씀은 다음과 같은 한 가지 목적을 지니고 있읍니다. 즉, 스테이크 부장, 감독 및 멜기세덱 신권 정원회 지도자가 딴 길로 들어선 자들을 다시 데려오기 위해 가장 생산적인 방법으로 그들의 신권 정원회 회원들을 조직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미 많은 스테이크에서 효果한 성과를 거두며 활동 촉진 프로그램을 열성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읍니다. 교회의 대부분의 와드와 스테이크에서는 그들의 성공담을 열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공담은 많이 있읍니다. 스테이크 및 와드 지도자들은 할 일을 알고 있읍니다. 영감받은 가정 복음 교육, 신전 준비 세미나, 순수한 사랑으로의 우정 증진, 합당한 교회 임무——이러한 모든 것이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계획하여 "실천해야"합니다.

사실상 조용히 멀리 떠내려 가 방황하고 있으면서 그들의 집 문을 두드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선량한 사람들이 있읍니다. 딴 길로 들어선 회원들은 관심을 가진 사람에 의해 교리를 받아들이는 개심과 사교적인 융화를 경험해야만 합니다.

로렌 에이슬리는 어느 날 오후 늦게 폭풍이 부는 해변을 따라 걸었읍니다. "그의 등뒤에서는 바람이 몹시 불었고 머리 위에서는 바다 갈매기가 시끄럽게 울었읍니다." 해변에 온 관광객들은 밤마다 해변에 올라온 조개와 물고기를 잡아 큰 솥에 넣어 끓였으며, 조가비는 기념품으로 집에 가져 가곤 했읍니다. 에이슬리는 기념품을 수집하는 관광객들에게서 좀 떨어진 돌출부의 해변까지 멀리 걸어 내려가서 "믿을 수 없을 만큼 완전한 모양의 커다란 무지개를 보았읍니다. 그 기슭에서 그는 모래에 있는 무엇인가를 응시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식별했읍니다."

모래 구덩이에서… 불가사리가 그의 앞발을 애써 위로 밀어 올리며 숨막힐 듯한 진창

에서 그의 몸을 떼내려 하고 있었읍니다. ("이 놈이 아직 살아 있을까?" 하고 에이슬리가 물었읍니다.)

"응, 살았어." (무지개 속에 있는 남자는) 이렇게 말하더니 재빨리 부드럽게 그는 불가사리를 집어서 멀리 바다속으로 던져 버렸읍니다.

"만일 앞바다의 인력이 충분히 세다면 불가사리는 살 수 있을거야…." 하고 그는 말했읍니다.

처음에 에이슬리는 "밤새 바다가 수백 마리를 밀어올릴 때 한 마리의 불가사리를 다시 바다에 던지는" 인간의 노력이 무력함을 생각했읍니다. 그는 "조개 수집가들과 말없는 물고기들이 산 채로 삶아지고 있는 김이 나는 솥을…." 슬프게 바라보며 멀리 걸어갔읍니다.

다음날 아침 에이슬리는 해변으로 나갔읍니다. 불가사리를 던지는 사람이 있었읍니다. "묵묵히 에이슬리는 아직도 살아 있는 불가사리를 집어서 멀리 파도 속으로 던졌읍니다… '이제 알겠어요.' '나도 불가사리를 던지는 사람이라 불러 주세요.' 하고 그는 말했읍니다."

그는 불가사리를 던져 넣으면서 이렇게 말했읍니다. "마치 씨를 뿌리는 것 같애, 정말 무한히 큰 우주에 생명을 뿌리는 것 같애." 그는 불가사리를 던지는 사람이 몸을 굽혀 다시 한 번 던지는 것을 보았읍니다. 에이슬리는 그와 함께 했읍니다. 그들은 "탐욕스러운 바닷물이 그들의 주위에서 노호하는 동안 다시 계속 던졌읍니다.

그들은, "비록 무한의 공간에서 외롭고 작은 존재일지라도, 살아 있는 불가사리를 집어 던졌읍니다." 그들은 어깨를 펴고… "천천히, 신중하게 잘…던졌읍니다. 그것은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었읍니다."(로렌 에이슬리, 불가사리를 던지는 사람, 뉴욕 : 하코트, 브레이스, 조바노비치 출판사, 1978년, 177-73, 184페이지) 그들이 구하고자 했던 불가사리를 구해 준다면 그 순간 순간이 참으로 중요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불가사리를 던지는 사람, 비전을 갖고 불가사리를 던지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구세주의 제자라는 의식을 갖고 있으며, 생명과 희망과 가치가 있을 때 그것을 구할 필요성을 느끼며, 그 생명체가 친구가 없는 해변에서 죽어 가도록 방치하지 않고, 그 생명체가 소속된 곳으로 던져 주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물질주의와 냉소주의와 절망이 현존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최대의 희망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불가사리를 던지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마태복음 19 : 19)는 주님의 계명을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는 이 성스러운 사업에 종사하는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셔서, 우리의 결심이 더욱 굳건해지며 우리의 성공이 더 값진 것이 되도록 기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읍니까?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
십이사도 정원회

"그러나 주님의 교회 회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리스도다운 행동을 하지 않는 몇몇 사람들의 태도와 행동은 마땅히 고쳐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말씀 제목을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읍니까?"(니삼 27 : 27 참조)라고 정했읍니다. 여러분은 이 제목이 예수님께서 니파이 백성들에게 던진 질문을 약간 바꾼 것임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이 제목은 하나님의 각 신권 소유자가 생각해 보아야 할 시기에 알맞은 질문입니다.

이 제목은 최근 내가 관심을 갖게 된 일부 아버지와 남편의 충격적인 행동에 관한 보고서에 자극을 받아 택한 것입니다. 그들의 불의한 행동은 아내와 자녀 학대와 관련되어 있읍니다.

나는 이러한 보고를 들었을 때 스스로 이렇게 자문했읍니다. "교회의 어떤 회원 즉, 하나님의 신권 소유자가 어떻게 그의 아내와 자녀 학대에 관한 죄를 범할 수 있을까?"

신권 소유자가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와 같은 행동은 교회의 가르침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는 상반되는 것입니다.

신권 소유자로서 우리는 구세주의 성품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그분은 그의 성역에 종사하는 모든 신권 소유자들에게 주는 계시에서 그의 신성한 성품인 주요한 덕성을 명확히 말씀하셨읍니다. 여러분은 교리와 성약 4편의 이 구절을 찾아 보고 계실 것입니다. 이 계시는 교회가 조직되기 일 년 전에 주어졌읍니다.

"신앙, 덕행, 지식, 절제, 인내, 형제애, 경건, 자비, 겸손, 근면을 기억하라."(교성 4 : 6)

그러한 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덕성입니다. 이것이 곧 그리스도다운 성품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성품 중에서 몇 가지 말씀해 보겠읍니다.

신권 소유자는 *유덕*합니다. 유덕한 행동이란 그가 깨끗한 생각과 순결한 행동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는 마음에 음욕을 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은 "신앙을 부인하고" 영을 지니지 못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교성 42 : 23 참조)

그는 간음하지 않으며 "이와 비슷한 어떠한 일도 하지"(교성 59 : 6) 않습니다. 이것은 사통, 동성 연애, 수음, 어린이 추행 또는 그 외의 성도착 행위를 뜻합니다.

덕성은 신성 다음에 가는 것으로 경건의 속성입니다. 신권 소유자는 유덕하고 사랑할 만한 것을 열심히 구해야 하고 품격을 떨어뜨리거나 더러운 것은 구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 덕성(덕)은 "쉬지 말고 〔그의〕 생각을 장식해" 줄(교성 121 : 45) 것입니다.

신권 소유자가 어떤 모양으로나 어떤 표현으로나 덕성의 길에서 떠나면 영을 잃어 버리고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는 자기가 섬기기로 선택한 분에게서 죄의 벌을 받습니다. 그 결과 때때로 교회는 징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유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행동을 용서해 주거나 관대히 봐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신권 소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소유하기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 반드시

도덕적으로 순결해야 합니다.

신권 소유자는 *절제*합니다. 이것은 그가 자신의 감정과 말을 삼가한다는 뜻입니다. 그는 적당히 행하고, 제멋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한 마디로 그는 자제력을 갖고 있으며, 그는 감정을 다스리는 주인이지 감정의 노예가 아닙니다.

아내에게 욕설을 하고 말로나 행동으로 학대하거나 자녀들에게 이와 똑같이 행하는 신권 소유자는 *중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읍니다.

남자가 자신의 기분을 절제하지 않으면 슬프게도 그는 자신의 생각을 자제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다음 그는 자신의 정욕과 감정의 희생자가 되어 신권 소유자로서의 행동은 말할 것도 없고 교양있는 사람의 행동에도 전혀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맥케이 대관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자신의 기분을 절제할 수 없는 사람은 자신의 정욕을 절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그의 주장이 종교적이긴 하더라도 그는 흡사 동물에 가까운 일상 생활로 전락하게 됩니다.(*임프로먼트 이라*, 1958년 6월호, 407페이지)

신권 소유자는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란 또 다른 형태의 자제입니다. 그것은 만족감을 지연시키고 "격정을 다스리는"(앨마서 38:12 참조) 능력입니다. 인내심이 있는 남자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중에 후회할 성급한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인내는 역시 가운데서의 자제입니다. 인내심이 있는 남자는 다른 사람의 결점을 이해하고 있읍니다.

인내심이 있는 신권 소유자는 그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실수와 실패를 너그럽게 볼 것입니다. 그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의 결점을 찾지도 않고 비평하거나 비난하지 않을 것입니다.

신권 소유자는 *친절*합니다. 친절한 사람은 동정적이고 다른 사람을 부드럽게 대합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느낌에 사려깊고 정중하게 행동합니다. 그는 협동심이 강합니다. 친절은 다른 사람의 약점과 과오를 용서해 줍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더욱 유덕하고, 친절하고, 보다 더 인내심이 많고, 우리의 감정을 더 잘 자제함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더욱 그리스도를 닮게 되는지 아시겠읍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 회원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을 몇 개의 생생한 표현을 사용하여 설명했읍니다. 그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옷입으며",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갈 3:27; 엡 4:22, 24)고 권고했읍니다.

그런 표현은 신권을 소유한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읍니까?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의 삶의 방법을 우리의 생활에서 본받아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는 꼭 "거듭나야" 하며 그리스도다운 성품에 맞지 않은 세상적인 탐욕과 과거의 행동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행동을 절제하기 위해 성신을 구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까요?

나는 몇몇 형제들이 범한 중죄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다음과 같은 점이 궁금했읍니다. "그들은 주님께 그들의 감정이 폭발하지 않도록 도움을 구했을까요? 그들은 신권의 축복을 받으려 했을까? 그들은 성신의 영향력으로 그들의 감정을 절제하려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였을까?"

예수님은 우리가 "의에 굶주리고 목말라야"(니삼 12:6) 한다고 말씀하셨읍니다. 이렇게 하려면 우리는 열심히 의롭고 유덕한 생활을 하려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열심히 변화되기를 바라고 주님의 도움을 구한 후 그리스도다운 삶으로 변화된 생애를 산 어떤 남자의 예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라모나이의 부친은 니파이 백성들에게 십

한 적대감을 가진 왕이었읍니다. 모사이야왕의 아들인 아론이라는 위대한 선교사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레이맨인들의 나라에 왔읍니다. 그는 왕궁으로 나아갔으며 그후 왕과 인생의 목적에 관한 복음 토론을 갖게 되었읍니다. 일단 왕이 그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게 되자 아론은 왕에게 그리스도와 구원의 계획과 영생의 가능성에 대해 가르쳤읍니다.

이 메시지에 큰 감명을 받은 왕은 아론에게 다음 질문을 했읍니다. "내가 어찌해야 그대가 말하는 영생을 얻겠느냐? 어찌하면 내가 하나님에 속한 자로 태어나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충만하겠느냐?"(앨마서 22 : 15)

아론은 왕에게 그의 모든 죄를 회개하는 데 도움을 얻기 위해 신앙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말했읍니다. 자신의 영혼을 구하려고 열망하는 왕은 아론이 지시하는 대로 이렇게 했읍니다.

"하나님이시여, 아론이 저에게 하나님이 계시다 하니, 참으로 하나님이 계시고 당신께서 하나님이시거든 제게 당신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을 알기 위해……저의 모든 죄를 버리겠나이다."(앨마서 22 : 18)

이제 형제 여러분이 이 점손한 자람의 말을 다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알기 위해 저의 모든 죄를 버리겠나이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각자 정말 그리스도를 알기 원한다면 우리의 죄를 버려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그를 알지 않고서는 그와 같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왕처럼 똑같은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간악한 뜻의 뿌리를" (앨마서 22 : 15) 뽑을 때까지 반드시 기도를 해야 할 사람들이 있읍니다.

의롭고 유덕한 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그렇게 하도록 구한다면 우리 가운데 누구라도 할 수가 있읍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러한 훌륭한 성품이 없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리리라."(교성 4 : 7)고 권고하셨읍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이러한 성품을 지닐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는다."(벧후 1 : 8)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구세주를 아는 것이란 그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할 때 그의 아들과 같이 되도록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는 것은 모든 신권 소유자의 의로운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분이 행하신 대로 행해야 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모든 *사악한 것과 모든 세상적인 탐욕을 버리*고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니라."(마 16 : 24 참조)

그분은 그의 제자들이 행함으로써 그를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나는 우리의 아내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여러분의 아내는 여러분의 가장 소중하고 영원히 함께 하는 배필이요 동반자입니다. 그녀는 소중히 여김을 받고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온 마음을 다해 누군가를 사랑하라고 하신 계명은 두 가지 뿐입니다. 여러분이 큰 계명으로 잘 알고 있는 첫번째 계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마 22 : 37)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두번째 계명은 이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아내를 사랑하여 결합하며 *다른 아무 여자와도 결합하지 말라.*"(교성 42 : 22)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는 명을 받은 사람은 오직 두 사람밖에 없는데 그 사람은 바로 주 하나님과 아내입니다.

어떤 사람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읍니까? 그것은 우리의 모든 감정과 헌신을 다해 사랑한다는 뜻

입니다. 여러분이 온 마음을 다해 아내를 사랑할 때, 그녀의 품격을 떨어뜨리거나 비평하거나 그녀의 결점을 찾거나 또는 말로나 거친 행동으로 그녀를 학대할 수 없음은 틀림없읍니다.

"아내와 결합한다는 것"(교성 42 : 22 참조)은 어떤 의미가 있읍니까? 그것은 그녀와 가까이 있고 그녀에게 충실하고, 그녀를 강화하며, 그녀와 대화를 나누고 그녀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가족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의 가정은 가족에게 평화와 기쁨의 보금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의 아버지를 특히 신권 소유자인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자녀는 아무도 없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의무는 가정을 행복과 기쁨이 가득한 곳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는 가정에 언쟁, 불화, 다툼 같은 불의한 행동이 있을 때 그렇게 할 수 없읍니다.

가정의 축복사로서 여러분은 가정에서 지도력을 발휘할 중요한 책임이 있읍니다. 여러분은 가정을 주님의 영이 거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항상 "서로 다투는 정신을 가진 자는 내게 속한 자가 아니요, 악마에게 속한 자니라"고(니삼 11 : 29)고 한 구세주의 말씀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악마가 절대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형제 여러분, 나는 분명히 말씀드렸읍니다. 나는 여러분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교회의 회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리스도다운 행동을 하지 않는 몇몇 사람들의 태도와 행동은 마땅히 고쳐져야 합니다.

신권 소유자로서 우리는 세상에서 보는 것보다는 훨씬 더 그리스도다운 태도를 지니고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처럼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비롭고 사려깊게 대해야 합니다. 그분은 친절하시고, 사랑이 많으시며 인내심을 갖고 우리 각자를 대하십니다. 우리가 이와 똑같은 사랑을 아내와 자녀에게 베풀어야 하지 않겠읍니까?

나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읍니까?"(니삼 27 : 27 참조)라는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했읍니다. 여러분은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거니와 나와 같은 자라야 하느니라."(니삼 27 : 27)고 하신 주님의 대답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와 같이 되기를 기대하시며, 우리의 생활에서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갈 5 : 22-23)를 보여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그리스도다운 성품은 각 신권 소유자의 특성이 되어야 하고 모든 말일성도 가정에 충만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영예롭게 받든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읍니다. 또한 그렇게 되어 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온 인류가 그리스도다운 성품을 지니기 위해 남성들이 결의와 행동에서의 단합이 절실히 필요한 때는 일찌기 없었읍니다.

그분을 따르는 것은 그분의 성품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결심을 갖고 오늘밤 신권회를 마치고 돌아갑시다.

우리의 생활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적용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신권 소유자로서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우리 몸에 지니도록 합시다.(앨마서 5 : 14, 19 참조)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로 옷입도록"(갈 3 : 27 참조) 합시다.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요, 구속주이시며 우리의 위대한 귀감이십니다.

이것이 나의 뜨거운 간증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속지 마십시오.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 2 보좌

"주님은 이같이 말씀하셨읍니다. 악인 가운데서 떠나라. 너희 자신을 구원하라. 주의 그릇을 지닌 너희여 깨끗하라."(교성 38 : 42)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합니다.

우선 이 자리에 모이신 청소년들에게 몇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같은 젊은이들은 누구나 인생에서 성공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은 곧 여러분이 가치 있는 일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나는 최근에 미국내의 중고등 학생들에 관한 연구 결과를 읽은 적이 있었읍니다. "최근의 여론 조사에 의하면, 성적이 우수하고 과외 활동에도 열심히 참여하는 고등 학생들의 생활에서 종교가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그 여론 조사는……전국 22,000개의 공립, 사립 및 교구 부속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55,0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었다. 이 조사 결과는 우수 학생의 85퍼센트가 친부모와 함께 생활하며 들이 잡힌 종교 생활을 하는 가정에서 자란 학생들임이 밝혀졌다. 약 45퍼센트는 농촌 지역에서 살고 있다. 우수 학생중 84퍼센트나 되는 학생들이 전통적인 결혼 생활을 찬성했으며, 담배와 마약을 사용하지 않았다. 4퍼센트에 지나지 않는 학생들이 마약을 사용했으며, 89퍼센트는 전혀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오늘날의 기독교, 1983년 2월 18일자, 35페이지)

교회 회원들인 여러분은 혼자 있지 않습니다. 술, 담배, 마약을 상습적으로 사용하는 친구들은 여러분이 그러한 것을 멀리 한다 해서 "고지식한 자"라고 놀려 대겠지만, 사실은 세상에는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이 수만명이나 있읍니다. 교회의 대부분의 청소년들도 그러한 것을 멀리하고 있읍니다. 그 외에도 우수한 성적을 받고 과외 활동에도 참여하는 수많은 학생들중 85퍼센트는 신앙 생활을 하는 훌륭한 가정에서 자랐으며, 그중 89퍼센트가 담배를 전혀 피우지 않았읍니다. 이러한 사실을 참작할 때 여러분이 이러한 것으로부터 홀로 떨어져 있을 때, 실은 대다수의 성취자들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집사와 교사와 제사되시는 여러분들은 참으로 선한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나는 이 점에 대해 진심으로 칭송하는 바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이 믿는 바에 굳건히 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키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마음과 기술을 갈고 닦고, 선교사가 되어 주님께 봉사하고, 여러분 자신과 가족과 여러분이 회원으로 있는 교회에 영예를 안겨 줄 수 있는 생활을 하고자 하는 여러분의 열성에 키빠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술, 담배, 마약을 멀리 할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음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이러한 것은 모두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나는 이밖에도 교묘하고 점점 커져가는 악에 대해 경고하는 바입니다. 그것은 곧 부도덕한 유혹 행위입니다.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요즘들어 십대의 성적인 비행을 많이 듣게 됩니다. 우리 젊은이들 간에도 그러한 현상이 많이 있읍니다.

내가 말씀드리는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만 이 교회의 교리와 표준에서도 명시하고 있듯이 불법적인

성행위를 행하고 있는 청년들은 스스로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뿐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결코 되찾아줄 수 없는 귀중한 것을 앗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소위 누구를 정복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것은 조금도 영광이나 승리나 지속적인 만족감을 주지 못하며 다만 수치심과 슬픔과 후회만을 안겨다 줄 뿐입니다. 그러한 행위에 몰두하는 자들은 자신을 기만하며 상대방을 도적질합니다. 상대방의 순결을 훔친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무 강한 표현으로 적나나하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우리 시대의 추세는 강하고 솔직한 표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간음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현대 계시에서도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며, 이와 비슷한 어떠한 일도 하지 말라"(교성59 : 6)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그러한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면 회개와 용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성신권의 권능으로 성임되고 성별되었으며, 주님의 영감을 받아 그 직분을 수행하시는 감독이 계십니다. 그분은 경험과 이해심이 풍부하며 와드의 청소년들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차 계신 분입니다. 그분은 비밀을 지키는 의무를 지니고 있으며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어 줄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와 함께 이야기하기를 두려워 마십시오.

청소년에 관해 이야기하는 중이지만 나는 교육에 관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나는 교육에 종사하시는 선생님들을 깊이 존경하며 감사하고 있읍니다. 나는 일반 대중들이 우리의 교육 자원과 프로그램중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를 알게 된 사실에 대해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경쟁 사회에 살고 있읍니다. 현재 학교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멀지 않은 장래에 이 사회를 떠맡아 나가기에 합당하게 되려면 가장 훌륭한 학교 교육을 받게 할 필요가 있읍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우수한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읍니다. 오래 전부터 우리는 교회 예산의 상당 부분을 일반 사회 및 종교 교육을 위해 책정해 왔읍니다. 국민적 차원에서도 우리는 공공 교육을 적극 지원해 왔읍니다. 당면한 필요성이 있는 곳에 우리는 항상 지원해 왔읍니다. 그러한 것은 우리 자녀들과 지역 사회와 국가에 대한 투자가 될 수 있읍니다. 그러나, 기금을 늘리는 것만으로 모든 방책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우선 순위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경비를 따져볼 필요가 있읍니다. 지원을 하되, 인적 자원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이제는 나이드신 형제님들에게 관계되는 주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벤슨 회장님도 이에 관해서는 설득력 있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읍니다. 그것은 곧 어느 한 작가가 "세상의 서서히 끼는 때"라고 말한 것에서 벗어나야 하는 책임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우리를 부도덕과 신권 지도자로서의 능력을 무디게 하는 방향으로 이끄는 기만적이고 관능적인 유혹에 관해 말씀드리겠읍니다.

1831년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악인 가운데서 떠나라, 너희 자신을 구원하라. 주의 그릇을 지닌 너희여 깨끗하라."(교성 38 : 42)

현대는 우리 주위에 외설물의 범람가 점점 증가하고 있읍니다. 외설물을 만들어 공급하는 사람들은 수백만불의 이윤을 내는 광산에서 일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이 만들어 내는 것 중에는 기술적인 면에서 촉임수를 쓰는 것도 있읍니다. 그러한 것은 말초적인 본능을 자극시키기 위한 것들입니다. 금지된 열매를 따 먹은 후, 자신이 결혼 생활을 파탄시키고, 자존심을 잃고, 배우자의 마음에 상처를 입혔음을 알게 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이제까지 젊어 온 정글의 숨겨진 폭탄은 외설물을 보고 읽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술이나 담배를 가까이 하려 하지 않는 사람들도 외설물에 탐닉하는 것을 합리화하려는 경우도 있읍니다.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신전에 성임되기에 부적합한 사람입니다.

성 도착증, 폭력, 야수성 등을 묘사한 것들은 그러한 유혹에 빠진 자들이 손쉽게 구할 수 있읍니다.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게 되면, 종교 활동은 빛을 잃게 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물과 기름이 혼합될 수 없듯이, 양자는 서로 혼합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퍼블릭 오피리온* 이라는 잡지에 생각해 보아야 할 연구 과제가 실렸읍니다. 그 기사에는 많은 작가의 의견이 제시되어 있었읍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지의 종교란 편집자인 존 다든씨는 지난 2월호의 기고란에 이런 글을 실었읍니다.

"유력한 텔레비전 작가와 헐리우드 중견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그들은 일반 대중보다 종교성이 훨씬 적었으며 낙태, 동성 연애, 혼외 정사 등과 같은 문제에 대하여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인터뷰에 응답한 104명의 헐리우드 직업인들의 거의 전부가 종교적 배경을 갖고 있었으나, 현재 45퍼센트는 아무런 종교를 갖고 있지 않았으며, 나머지 55퍼센트 중 7퍼센트만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종교 예배 의식에 참석한다고 말했다.

"이 그룹이 쇼를 만들어 내는 주요 역할을 맡고 있었으며, 그것들은 우리 대중 문화의 주종을 이루고 있었다."

"응답자의 80퍼센트가 동성 연애 관계를 나쁘게 보지 않았으며, 51퍼센트는 간음을 나쁘게 여기지 않았다. 혼외 정사를 나쁘게 생각한 49퍼센트의 사람들 중에서도 17퍼센트만이 극히 나쁜 것으로 여겼다고 연구 결과 나타났다. 거의 모두 —97퍼센트— 가 낙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여성의 권리를 찬성했으며, 91퍼센트는 그러한 견해를 적극 지지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실시된 다른 조사 결과, 미국인의 85퍼센트가 간음을 나쁘게 생각하고 있으며, 71퍼센트는 동성애 행위를 그릇된 것으로 보고 대중의 4분의 3은 낙태를 불가피한 사정에 한해 제한하든지 전면적으로 금지할 것을 원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1983년 2월 19일, 제2부, 5페이지)

이러한 자들이 연예 매체를 통하여, 여러 면에서 복음 표준과는 상반된 그들 자신의 표준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있읍니다. 텔레비전 방송과 케이블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것보다 더한 것은 속기쉬운 자들과 자아에 대한 훈련이 부족하여 이러한 외설물에 돈을 쓰는 자들을 유혹하여 올가미로 얽어매는 고질적인 외설 서적 작가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향에 면역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십 세기 전에 니파이는 우리 시대를 미리 보고 이렇게 말했읍니다.

"이는 악마의 왕국이 반드시 흔들릴 것임이요, 악마에게 속한 자들을 깨우쳐 회개하게 함이 필요함이라. 저들이 회개하지 않을진대 악마가 저들을 움켜 쥐어 영원한 사슬에 얽어 맬 것이요, 주의 노여움을 사 멸망당하리라.

"보라, 그 날에 악마가 인간들의 마음에 노여움을 일으키며 선한 것에 대하여 성을 내도록 책동하며,

"많은 다른 자들을 달래어 육욕의 안식처를 좇게 하며 이르기를, 시온에서 모든 것이 잘 되리라. 참으로 시온은 번성하며 모든 것이 잘 되리라고 하리니 이같이 악마가 저들의 영혼을 속여 조심스럽게 저들을 지옥으로 인도해 가느니라.

"또한 보라 다른 자들을 달콤한 말로 꾀어 저들에게 지옥이 없다 하며 이르기를, 악마란 없는 것이매, 나는 악마가 아니로다 하며, 저들의 귀에 속삭여 말하기를 저들을 움켜 잡아 무서운 사슬로 얽어 맬 때까지 하며, 그 때로부터 저들은 빠져 나오지 못하게 되리

니."(니이 28 : 19~22)

흥미있는 표현은 "조심스럽게 지옥으로 인도해 가느니라."와 "저들의 귀에 속삭여"라는 구절입니다. 더러움과 폭력과 악을 만들어 내는 자들의 교묘한 속임수를 얼마나 잘 그려낸 것입니까? 형제 여러분, 나는 대중적인 것에 대한 배척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을 개인적으로 피하자는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 세상에는 문학과 예술과 인생 자체를 고양시키는 훌륭하고 아름다운 것이 많이 있어서, 하나님의 신권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누구든지, "조심스럽게 지옥으로 인도해" 가는 그러한 외설물을 살피거나 구입할 시간조차 없을 것입니다.

다른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읍니다. 내가 이미 다른 경우에 말씀드린 바 있는 말씀 중 몇 구절을 반복하겠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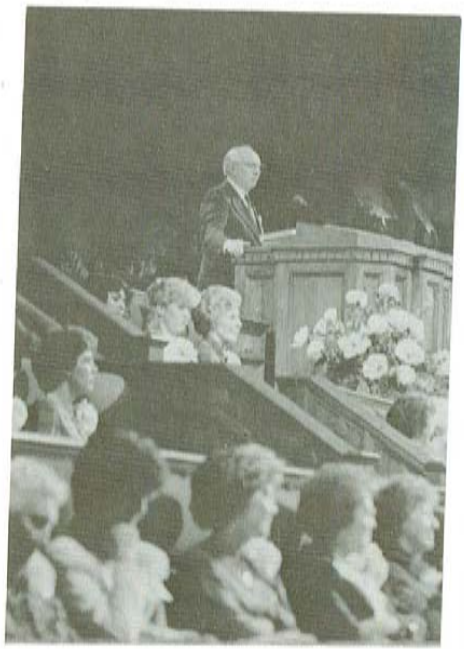
우리 주위에는 많은 비평가들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읍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뜻을 비치기도 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성스럽게 여기는 것을 경멸합니다.

결점찾기에 급급한 그들은 이 대업이 힘차게 전진해 나가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팔마이라에서 타올랐다가 지구 저쪽의 많은 나라와 많은 언어 지역에까지 신앙의 불길에 불을 붙이게 된 그 불꽃을 보지 못했읍니다. 인도주의라는 안경을 쓴 그들은 성신의 영향력을 인식함으로써 받게 되는 영적인 속삭임이 지성의 과정도 그러했듯이 우리 선조들의 행위에 많은 영향을 미쳤음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종교가 마음과 관련이 있는 만큼이나 지성과도 관련이 있음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그러한 비평가들은 이 대업의 기반을 닦아 놓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일한 과거의 사람들을 무시하려 들고 천시하려고 방대한 정보를 캐내고자 노력합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책을 읽는 독자들은 그러한 잘못된 정보를 읽고 그것을 되씹고 맛을 음미하는 데서 즐거움을 찾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맛있고 풍요로운 정찬을 들기 보다는 오이 절임만을 먹는 격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 선조들도 인간이기에 실수를 저지르게 됨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저지른 실수는 그들이 이루어 놓은 놀라운 업적에 비교하면 극히 미미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실수를 부각시키고 더욱 큰 선행을 감추는 것은 만화를 그리는 것과 같습니다. 만화는 재미는 있지만, 보기 흉하고 부정직할 때가 많습니다. 빰에 흠집이 있는 사람도 여전히 아름답고 힘있는 얼굴로 보일 수 있으나, 다른 모양에 비하여 흠집이 너무 부당하게 강조되면, 초상화는 품위를 잃게 됩니다.

이 지상을 거닌 인간중에서 온전한 사람은 오직 한 분이셨읍니다. 주님은 온전한 사회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불완전한 사람들을 사용하셨읍니다. 그들 중에는 실수를 저지르는 사람도 있고, 성격상의 결함도 흔히 찾아볼 수 있으나, 그들이 그처럼 많은 일을 해냈음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나는 진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그것을 환영합니다. 나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실을 합당하게 제시하여 이 교회의 위대한 성장과 힘을 설명하는 요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능자의 영감에 의하여 아름답게 표현된 약속의 말씀이 있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성령으로써, 참으로 말로다 할 수 없는 성령의 은사로써…지식을 너희에게 주시리라."(교성121 : 26)

우리를 비난하는 인본주의자들과, 우리를 멸시하는 소위 지성인들은 이 시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구하지 않고 그에 합당하게 스스로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대개의 경우 부정적이며, 거의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세상의 궤변에 현혹되지 마십시오……오히려, "하나님을 바라 보아 살도록"(앨마서 37 : 47)하십시오.

형제 여러분, 교회는 참됩니다.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분들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으니 그것은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면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생각하고, 지혜의 원천으로 나아가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고는 교회와 그 회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결정이 내려질 수 없읍니다. 교회의 지도자를 따르십시오. 하나님은 그의 사업을 그르치게 하시지 않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영감을 받기에 합당한 생활을 한다면, 이 사업의 진실성과 이 왕국의 위대한 사명에 관해서 우리 마음에 아무런 의심이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신권을 소유하신 여러 형제님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보이시는 모범으로 여러분 주위에 계시는 모든 분들의 존경과 찬양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업의 진실성에 대한 간증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앙을 주십니다

일요일 아침 모임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 2 보좌

"신앙으로 이길 수 없을 만큼 큰 장애나 너무 어려운 도전은 없읍니다."

태버내클 합창단은 "동트니 날이 밝는다"를 노래했읍니다. 나는 팔리 피 프랫이 작사한 이 훌륭한 가사를 한번 읽어 드리고 싶습니다.

동트니 날이 밝는다.
보라 시온 기 날린다.
찬란한 아침이 온다.
하루의 시작 장엄하게
아침 해 솟아오르네
거룩한 진리 빛 앞에
과오의 구름 사라지네
영광 떨리서 타오르나
온 세계에 널리 퍼져
이제 곧 빛 발하리라.

나는 여러분이 주님께 사랑을 바치고 그의 위대한 사업에 충실하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열매를 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읍니다. 나는 이 위대한 사업에 여러분이 쏟은 헌신에 감사합니다. 나는 그 일이 때로는 큰 위압감을 준다는 것도 압니다. 어떤 것은 불필요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노력하고 일함으로써 힘이 생기고 또한 봉사함으로써 기쁨이 생긴다는 것도 압니다.

나는 여러분께서 십일조와 헌물을 바치는데 충실하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이 위대한 사업이 자라고 강화되어 온 세계에 퍼지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감사하다는 말을 필요로 하지 않는 분들입니다. 정직한 십일조를 바치는 모든 사람은 그 일로 인하여 오는 축복의 간증을 가지고 있읍니다. 십일조를 바치는 분들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문을 열고 축복을 부어 주신다는 간증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말 3 : 10 참조)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나는 여러분께 이 사업이 앞으로 전진하고 있다는 확신을 드립니다. 세계적으로 80여 개 이상의 국가에 설립된 이 사업은 점점 힘있게 성장하고 있읍니다. 성도들의 신앙은 그들의 증가된 활동이 말해 주듯이 증가되고 있읍니다. 선교 사업은 계속 활발히 행해지고 있읍니다. 우리의 젊은 남녀는 때가 찬 이 경륜의 시대에 구세주와 그의 회복된 영원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들의 집을 떠나 세계 곳곳으로 가고 있읍니다.(교성 124 : 41 참조) 방대한 교회의 계보 사업과 신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수고로, 죽은 자를 위한 구원의 사업이 예전에는 기대하지 못했던 속도로 진행되고 있읍니다.

우리 성도들은 모임에 더 충실하게 참석하고 있으며, 지난 연차 대회 이래 상당수의 성도들이 그들의 이웃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보여 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읍니다. 이곳 유타에 홍수가 있었을 때 우리는 이웃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기독교인의 봉사에 대한 고마움을 경험하였읍니다. 교회 회원이 아닌 어떤 부인은 텔레비전 인터뷰에서 "저는 몰몬이 아닙니다만 누가 저의 감독인지 알게 되었읍니다."라고 말했읍니다. 그녀는 이웃들에 대하여 계속 감사하다는 말을 하였는데,

그 이웃들은 거의가 말일성도였으며 그들은 이웃을 서로 돕고 그녀에게도 도움을 준 것이었읍니다. 이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한 스테이크가 있는데, 그 스테이크의 각 와드 회원들은 홍수로 파괴된 집을 수리하거나 다시 지으려고 하였읍니다. 수천 개의 모래 포대가 채워지고 적절히 배치되었읍니다. 물론 교회 회원이 아니신 분들도 그렇게 하였읍니다만 모든 관계되는 분들은 그렇게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힘을 모을 수 있었던 교회 조직을 극구 칭찬하였읍니다.

남태평양에 있는 통가라는 섬에도 태풍이 몰아쳐 온 후에 집과 농장을 잃은 그 섬 사람들을 위하여 상당량의 원조가 주어졌으며 회원과 비회원이 다같이 그러한 지원의 축복을 받았읍니다.

브라질의 말일성도들은 그 나라 남단을 휩쓸었던 홍수로 집과 곡식에 큰 손해를 본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물론이나 비물론을 막론하고 지원을 해주었읍니다.

또한 교회의 복지 프로그램과 카이저 알루미늄 회사의 운송 지원으로 교회는 아프리카 가나라는 나라의 굶주리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많은 곡식과 의료품을 보냈으며, 실로 많은 사람들이 그 원조로 생명을 건질 수 있었읍니다.

내가 이러한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자랑하는 뜻에서가 아니고, 단지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방법과 자원에 대하하여 그리고 위기를 맞아 남을 도울 줄 아는 의지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표시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선 사업의 기금은 거의 금식 기금에서 다 나왔읍니다. 그러한 재난에 대처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요즈음의 불경기에도 불구하고 금식 기금은 증가되고 있읍니다. 이러한 재난을 당한 분들을 돕기 위해서 금식을 해주신 위대한 신앙의 표현에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난 6월 이후로 우리는 네 개의 새 신전을 헌납했읍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실 회원이 아닌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읍니다. 신전은 우리 신학에서 독특하고 신성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읍니다. 신전은 공공 예배당이 아닙니다. 사실 예배당은 전세계를 통하여 수천 개나 됩니다. 반면에 신전은 특별한 주님의 집이며 그곳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계된 가장 성스럽고 영원한 의식이 집행되는 곳입니다.

지난 6월 우리들은 북미 조지아주 아틀란타시에 새로운 신전을 헌납했읍니다. 이것은 백여 년 전 성도들이 고생하고 가난에 시달릴 당시, 남부 주에 처음으로 선교사를 보내면서 시작된 꿈의 성취요 완성이었읍니다. 극히 소수의 사람들만이 선교사들의 간증을 받아 들였으며 많은 사람들은 그들을 대적해 일어났읍니다. 초기의 선교사들은 많은 박해를 견디어 냈읍니다. 매를 맞고 쫓겨난 선교사들이 있는가 하면, 악의에 찬 적들에게 순교당한 선교사도 있었읍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앙으로 참고 전진했으며, 마침내 수천 수만 명이 교회에 들어왔읍니다. 오늘날 교회는 강하게 성장하여 그곳 아름다운 땅에 수천의 충실한 말일성도들이 있게 되었읍니다.

아틀란타 신전 헌납식에 그곳 성도들의 간증과 그들의 감사의 눈물과, 그들의 감사의 찬미 소리는 그들의 신앙의 힘과 그들의 주님에 대한 사랑을 증거해 주었읍니다.

지난 8월에 우리는 사모아와 통가 신전 헌납식에 참석했읍니다. 또 한번 우리들의 가슴은 폴리네시아 사람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그리스도 같은 사랑을 경험하고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하여 부풀어 올랐읍니다. 고대 예언자를 통하여 주님은 이 말일에 여러 곳의 섬들에 있는 그의 백성들을 기억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읍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러한 주님의 약속의 성취를 목격하고 있으니 이곳 사랑스럽고 낭만적인 사람들에게 굳세게 번영하는 학교들이 세워져서 훌륭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훌륭한 주님의 집인 신전들이 세워져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받을 수 없는 축복의 의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읍

니다.

불과 2주 전에 우리는 칠레의 산티아고시에 있었으니 그곳에서 또 신전을 헌납하였읍니다. 나에게는 3일간의 헌납식에 모인 만 오천 명 이상의 말일성도들과 같이 있게 된 기적이 일어난 것이었읍니다. 칠레라는 나라는 세계에서 제일 긴 나라로 남북의 길이가 4300km나 됩니다. 그러나 우리 충실한 성도들은 북부의 아리카나 남부의 도시 푼타 아레나 등 먼 곳에서 하나님의 신성한 집을 세우고 헌납하는 데 따르는 위대한 축복의 기쁨을 나누기 위하여 모여 들었읍니다.

그들 중에는 1956년 칠레에 파견된 선교사들에 의하여 최초로 침례받은 리카모 카시아 부부도 있었읍니다. 그로부터 22년이 지난 오늘 그곳에는 십 사만 명 이상의 성도들이 있게 되었읍니다.

그러한 헌납식에 참석한 은혜를 받은 우리는 신앙에 큰 활력을 얻게 되었으며, 주님을 사랑하고 그에게 충성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형제 자매들에 대한 사랑이 더욱 커지는 것을 느꼈읍니다.

최근에 나는 캘리포니아주 롱비치에서 14,000명의 신학 연구원 학생들과 함께 모임을 갖게 되었읍니다. 그들은 남부 캘리포니아 각 곳에서 모인 훌륭하고 아름다운 젊은 남녀들이었읍니다. 그들은 대부분이 고등 학생들이었읍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다섯 번씩 아침 6시 15분에 학교 근처의 교회 건물에서 헌신적이고 유능한 교사에 의해 진행되는 신학 연구원 중등부에 참석하는 학생들이었읍니다. 칠레에서 오는 길에 나는 자동차 도시인 디트로이트에서 아침 6시 15분에 이러한 학생들을 또 만났읍니다.

이 학생들은 똑똑하고 재능이 있는 잘생긴 젊은이들이었읍니다. 이들의 얼굴을 본 사람들은 아무도 이 위대한 사업의 장래를 의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위대하고 기이한 세대의 일부이니 그러한 젊은이들의 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그들의 신앙은 점점 강하게 자라고 있읍니다.

그들 젊은이는 제가 언급한 곳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가 세워진 곳이면 어느 곳에서나 발견할 수 있읍니다. 그 젊은이들은 교회 장래와 교회 성장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상징하며 교회가 그 사명을 완수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 줍니다. 더우기 그들은 각기 속한 나라와 자기 고장을 복되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교육에 대한 야망을 가진 젊은 남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정신 수양을 믿으며 기술을 연마하여 새로운 기술을 배우며 그들이 움직여 갈 세상의 각 분야에서 봉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덕과 극기를 실천하는 젊은이들입니다. 그들은 우리 육체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요 우리의 창조주께서 지어 주신 육체를 더럽혀서는 안된다는 믿음 안에서 자란 젊은이들입니다.

그들은 경전으로 가르침을 받은 신앙의 젊은 남녀입니다. 그들은 구약전서와 기기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을 알고 있읍니다. 그들은 신약전서도 잘 알고 있으며 하나님의 독생자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키운 젊은이들입니다. 그들의 주님에 대한 신앙은 그들이 신대륙에서 나온 또다른 주님에 대한 간증인 몰몬경을 공부함으로써 재확인되고 강화되었읍니다. 그들은 현대 계시를 통해 알려진 하나님의 말씀에 친숙해 있읍니다. 그들은 세상적인 지식이나 종교적인 지식을 겸비한 자들이니 바로 연구와 신앙으로 학문을 탐구하는 학생들입니다. 그들은 복음의 제일 원칙인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힘을 보여 주는 산 예요 증거입니다.

이 교회의 역사는 그와 같은 신앙을 보여주는 역사의 연속입니다. 그러한 것은 1820년 시골 소년이 야고보서 1장 5절에 쓰여진 위대한 약속을 읽음으로써 시작되었읍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야고보서 1 : 5-6)

그것은 신앙의 힘이었으니, 14살 된 소년의 단순한 신앙이 그 소년을 봄날 아침 숲속으로 들어가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가 이해력을 호소하며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된 것도 신앙의 힘이었읍니다. 그러한 신앙의 위대한 결실은 바로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시현이었으니 그로부터 이 위대한 사업이 전개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훌륭한 시현에 합당하게 준비하여, 말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다시 세울 열쇠와 권능과 권세를 지상으로 가져오게 된 것도 신앙의 힘이었읍니다. 신앙의 힘으로 옛 미대륙 백성의 위대한 기록이 입수되었으니 바로 그것은 몰몬경이요, 주님의 은사와 권능으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신해 주기 위하여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의 힘이었으니 초기 성도들이 지옥의 권세에도 불구하고, 서로 지지하고 강화하며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가정과 가족을 떠나 고생하며 또한 뉴욕에서 오하이오주로, 오하이에서 미주리주로, 미주리에서 일이노이주로 평화의 안식처를 찾아 그들의 양심의 지시대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곳을 찾아 헤매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처음에 일리노이주의 늪지대를 걷으면서 그곳을 아름다운 도시로 본 것은 신앙의 눈을 통해서였읍니다. 행함이 없는 신앙은 죽은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늪지대를 개척하고 도시를 계획하고 경배하고 교육을 위한 집과 가옥들을 세웠으며 심지어 그 주에서 제일 아름다운 건물인 신전을 건립하였으니 이 모든 것은 신앙의 힘이었읍니다.

또다시 핍박이 가해져, 악의에 가득찬 폭도들이 그들의 예언자를 죽였읍니다. 그들의 꿈은 깨어졌읍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앙의 힘으로 다시 일어나 요셉이 그려 놓았던 방식대로 다시 자신들을 이끌고 또다시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 조직하였던 것입니다.

눈물과 애타는 심정으로 그들은 행복했던 집과 일터를 떠나야만 했읍니다. 그들은 떠나면서 그들의 성스러운 신전을 뒤돌아 보고 신앙으로 그들의 눈을 서부로 돌렸으니 그들은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 어디쯤 있는지도 모르고 전진했읍니다. 가는 동안 추운 겨울이 닥쳐왔으므로 그들은 1846년 2월에 미시시피 강을 건너 아이오와의 태초원 진흙땅을 고생하며 지나갔니다.

신앙으로 그들은 미조우리주에서 겨울을 나기 위해 정착지를 세웠읍니다. 재앙과 이질과 위궤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으나 신앙이 살아 남은 자들을 지켜 주었읍니다. 그들은 강 위 높은 경사지에 그들의 사랑하는 자들을 묻고 1847년 봄에 서부를 향해 출발하였으니, 신앙의 힘으로 전진하고 전진하여 서부의 산골까지 오게 되었읍니다.

브리감 영대관장이 이 계곡을 바라보며 덥고 메마른 이 골짜기를 향하여 "이곳이 그곳이라"하고 선포하신 것도 신앙에 의한 것이었읍니다. 나흘 후, 다시 신앙에 의해 그는 내가 지금 서있는 이곳에서 동쪽 백여미터 쯤 되는 곳에 지팡이를 두드리며 "이곳에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신전을 짓겠다"고 말씀했읍니다. 이 태버내클 동편에 있는 성스럽고 웅장한 주님의 집은 신앙의 증거이니, 그 집을 지은 분들의 신앙 뿐만이 아니라 이기심없는 위대한 사랑의 일을 하기 위해 여기에 종사하는 분들의 신앙도 포함하고 있읍니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했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히브리서 11 : 1) 그러나 통찰력과 수고와 그들을 통하여 일하는 주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로 그들은 그들의 신앙을 실현시켰던 것입니다.

우리 위에는 영광스러운 역사가 있읍니다. 그 역사는 영웅적인 사실로 가득 차 있으며 완강한 원리와 시들지 않은 충실함이 들어 있읍니다. 그러한 것은 신앙의 산물입니다. 그 미래는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머무를 수 없으며 속도를 늦출 수도 없으며 걷는 폭을 줄일 수도 없읍니다.

우리 교회 역사 중 어두웠던 시기에, 교회의 적들이 교회에 대한 비난을 던져 왔을 때 대관장단에서는 이 교회의 방향을 결정하는 다음 말씀을 세상에 선포하였읍니다. "우리의 동기는 이기적이 아니며 우리의 목적은 인색하거나 세속적이 아닙니다.—과거와 현재와 다가올 미래의—인류를 지켜 볼 때 영원한 존재로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 일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그 일에 대해 지금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처럼 깊고 넓게 자신을 바칩니다.(1907년 3월 26일 대관장단)

신앙으로 우리는 그러한 결단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전진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앞에 큰 그림과 큰 계획을 붙여 두고 전진해야 하며 그렇다고 세세한 사항들을 무시해서는 안됩니다. 그 큰 그림은 우리 교회의 폭넓은 전체 사명의 초상화입니다. 그것은 성도들의 생활을 통하여 한 번에 한 획씩 그려지는 것이니, 그러한 활동의 합성이 일하면서 전진하는 우리 교회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는 중요합니다. 말하자면 우리 각자는 그 큰 그림의 한 획이며 주님의 왕국의 거창한 파노라마 벽화의 일부입니다. 만일 공백이 있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거나 퇴색된 자리가 있으면 그 그림은 그것을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결함이 있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할 때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좀더 잘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신앙으로 이길 수 없을 만큼 큰 장애나 너무 어려운 도전은 없읍니다. 우리는 복음의 표준이 도전받고 조롱당하며 신성한 것이 비웃음을 당하는 세상에 살고 있읍니다. 우리는 타협을 할까요? 우리는 우리에게 불친절하게 말하는 자들에게 욕을 할까요?

더 어려운 시기에 주님께서는 토마스 비 마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읍니다.

"고난을 견디며 욕하는 자를 욕하지 말라. 온유로써 네 집을 다스리며 굳건하라….

주님께서는 그의 제자에게 말씀하셨읍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마 5 : 48)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완전에 도달하지 못했읍니다. 아직도 길이 멉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활을 개조시킬 신앙을 개발해야 하며 우리가 약한 그곳에서부터 시작하여 자신을 개선하고 고쳐 나가는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점차적으로 꾸준히 힘을 얻어 우리가 영위해야 될 삶에 더 가깝게 살아야겠읍니다.

우리는 우리를 지속적으로 후퇴시키는 부정적인 요소를 신앙으로 극복하고 그 위에 올라설 수 있읍니다. 우리는 우리를 저하시키고 악한 행위를 하게 하는 충동들을 물리칠 수 있는 역량을 노력을 통해 개발시킬 수 있읍니다.

신앙으로 우리는 우리의 기호를 훈련시킬 수 있읍니다.

우리는 신앙이 식어진 분들에게 우정의 손길을 내밀어 우리의 신앙의 불로 그런 분들의 신앙을 다시 점화시켜 줄 수 있읍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각자는 주님의 왕국의 웅장한 파노라마의 한 부분이며 우리의 행위가 그것에 오점을 남기거나 미를 더 추가하게 된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조와 선배들이 이 위대한 사업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신앙으로 수고하였듯이 우리도 할 수 있읍니다.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으며 향상되어야 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 안에서 걸으며 그것을 해낼 수 있읍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선포하셨읍니다.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마태복음 17 : 20)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을 주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겸손히 간구합니다. 아멘. *

선견자 요셉

닐 에이 맥스웰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나의 주님이시요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셉을 부르시어,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인간의 역사를 통하여, 요셉 스미스만큼 오랫 동안 그리고 광범위하게 부단히 남의 입에 오르내렸던 예언자는 없었읍니다. 이 시대의 통신 수단의 발달과 주님의 사업이 전세계에 널리 퍼지게 된 결과로 그와 같은 사태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어린 요셉은 자신의 이름이 전세계에 "좋게도 전하여지고 나쁘게도" 전하여지리라는 말을 들었읍니다. (요셉 스미스서2 : 33) 거룩한 근원에서 나온 말씀이 아니라면, 얼마나 무례한 말이겠읍니까! 그러나 당시에 요셉보다 더 잘 알려져 있던 종교 지도자들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갔으나, 요셉 스미스의 사업은 계속해서 전세계적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읍니다.

그러나 요셉 스미스는 이사야가 예언했듯이, 세상의 표준에 의하면 "무식"하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인정합니다. (사29 : 11-12 참조) 어린 사울은 가말리엘의 문하에서 엄한 교육을 받았으나 요셉은 그렇지 못했읍니다. (행22 : 3 참조)

엠마 스미스는 몰몬경이 번역될 당시의 요셉은 편지도 제대로 쓸 수 없었다고 말했읍니다. "혼자서 편지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사람이 몰몬경과 같은 책을 받아 쓰게 했다는 사실은 나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놀라운 사실이었을 것입니다."(프레스톤 니블리, *몰몬경의 목격자*, 솔크레이크시티, 메저릿 출판사, 1968년 28페이지)

이와 같이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이 청년은 아마 몰몬경, 니파이일서 4장에서 "해루살렘 성벽"에 관한 내용을 번역하고 있었으며 엠마에게 그것을 받아 쓰게 하고 있었는데 그때 한참 말이 없더니, 이렇게 말했읍니다. "엠마, 나는 예루살렘이 성벽에 둘러싸여 있는 줄 몰랐어요."

그러나 요셉의 예리한 지성은 주님의 말씀과 고대 예언자의 말씀이 그의 예리한 의식의 세계를 흘러내렸을 때 깨달음을 받고 넓혀졌읍니다. 사실, 그는 옛날의 애급의 요셉이 고대에 예언된 선견자였읍니다! (니이3 : 6-7, 16-18 참조)

1834년에 12월에 그의 아버지가 요셉 스미스 이세에게 내려준 축복에서 주어진 축복을 확인하고 어린 요셉에게 이러한 축복을 더해 주었읍니다. "그대의 하나님께서 이 세대에 다른 어떤 사람도 그대만큼 할 수 없는 일을 시키기 위하여 하늘에서 그대를 불러 내셨노라. 고대의 요셉은 "말일에 그의 후손들을 살펴 보고…누가 주님의 말씀을 내올 수 있는지 부지런히 찾아 보다가 그의 눈길이 내 아들 (요셉 스미스), 그대에게 머물렀노라. 그는 내심 기뻐하고 흡족해 했노라."

어린 요셉 역시 그의 아버지의 약속을 들었읍니다. "저가 나의 명한 일을 할 것이라." (니이3 : 8)

초기, 약 90일 간의 번역 기간 동안에 요셉은 자신의 능력을 초월하여 놀라운 속도로 무한한 의미가 담긴 진리와 개념을 깨쳤읍니다. 이와 같이 값진 진리 가운데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읍니다.

요셉은 가장 근본적이고 절실한 예수님의 선언 가운데 오로지 유일한 뜻깊은 경전적인

것이 그를 통해서 주어지리라는 것을 기대했겠읍니까?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마18 : 3)

요셉 스미스의 번역을 통하여 어린 아이가 되는 것과 성도의 유순에 관한 이와 같은 놀랍고 명백하고 진지한 말씀의 참 뜻을 알게 되었읍니다.

"주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성도가 되며, 어린 아이같이 되어 유순하고 온유 겸손하며 인내하며 사랑이 충만하며, 주께서 인간에게 합당하다 여기어 내리시는 모든 것에, 어린 아이가 그 부모에게 하듯 기꺼이 순종하지 아니할진대(모사이야서 3 : 19)

마찬가지로, 바울은 예수께서 시험받으신 고로, 우리가 시험당할 때 어떻게 우리를 도울 수 있는가를 이해하셨다고 기록했읍니다. (히2 : 18 4 : 15 참조) 앨마의 분명하고 확고한 말씀이 주어진 것은 바로 요셉 스미스를 통해서였읍니다.

"그가 세상에 나가 고통과 고난을 겪으며 온갖 시험을 당하시리니,…인간의 질병과 고통을 대신하리라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라…육신을 입은 인간의 연약함을 취하시어 자비로 가득차게 하시리니, 육신을 입은 인간들의 연약함을 육신을 가지고 구해 내는 힘을 아시려 함이었느니라."(앨마서7 : 11-12)

간구하는 기도에 대한 설명도 나와 있읍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마21 : 22) 요셉을 통해서 "간절하고 진기한 것"과 필요한 빛이 그 말씀에 더해졌읍니다.

"너희가 반드시 주시리라 믿으며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은 아버지께 나의 이름으로 구하면, 보라 너희에게 주시리라."(니삼18 : 20)

"영으로 간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간구할지니, 그런고로 저가 간구하는 대로 이루어지니라."(교성46 : 30)

요셉을 통해서 확신을 주는 분명한 진리의 말씀만이 나온 것이 아니라, 풍부한 언어와 깊은 사상도 나왔읍니다.

암몬의 말을 들어 봅시다.

"참으로 인간의 총명이 우매하며 우둔하도다. 이는 저들이 지혜를 구하려 하지 않음이요, 저들은 지혜를 스스로 다스리기를 원치 않음이라.

"참으로 그러한 자들을 목자에게서 도망하여 숲의 맹수들에게 쫓겨 흩어져 먹히는 들양과 같으니라."(모사이야서8 : 20-21)

야곱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읍니다. "너희의 착한 아내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였고, 자녀들 앞에 못된 본을 보여 신망을 잃었으매,…많은 처자들이 마음에 상처를 입고 죽었도다."(야곱서2 : 35)

반대 감정을 끝끝내 극복한 앰율레크는 이렇게 말했읍니다.

"그러하였음에도 나는 마음을 강퍅하게 먹어 여러 차례 부름을 받았으나 들으려 하지 않았으니, 그런 연유로 내가 이러한 일들을 알고 있으면서도 알려 하지 않았었노라."(앨마서10 : 6)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서반구에 나타나셨을 때에 관하여 요셉이 묘사한 글에는 신학과 아름다움이 함께 어우러져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이같이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께서도 친히 땅에 무릎을 꿇으시고, 보라 아버지께 간구하시었으니 이제 그 간구하신 대로 낱낱이 기록하지는 못하나…

"아무도 이를 말하거나 기록할 자가 없었고, 우리가 친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듣고 보았으나 심히 크고 놀라웠던지라, 아무도 이를 감당치 못하였고,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께 간구하실 때 우리에게 차고 넘치던 기쁨을 아무도 감당할 수 없었느니라."(니삼17 : 15-17)

축복받은 몰몬경을 진지하게 연구해 보면 그 책이 단순하면서도 복잡함과 아름다움으로 이루어진 경이로운 세계로 인도되며 능력있고 영적인 것이 반복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

을 수 없읍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받으면서도 더 많은 것을 갈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머리와 허를 통해 전해질때는 언제든지 그 뜻이 감소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요셉 스미스의 경우는 고대의 니파이와 같았읍니다.

"그리스도를 믿을진대 이 말을 믿게 되리니, 이 말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임이라. 이 말씀은 만민에게 선행을 가르치느니라."(니이33 : 10)

요셉은 후에 자신의 생각을 영감적으로 표현하기를 배웠는데, 그것은 배반했다가 다시 회개한 다시 회개한 더블류 더블류 펠프스에게 보낸 용서하는 편지에 나타나 있읍니다.

"사실, 우리는 형제님의 행위로 인해 큰 고통을 받았읍니다. 형제님이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돌아섰을 때, 인간이 마시기에 벅찰 정도의 쓴 잔이 넘쳐 흘렀읍니다. 우리가 자주 함께 훌륭한 말씀을 나누고,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신선한 여러 가지 맛을 함께 즐겼던 사람들 중에서 어느 한 사람이 원수같이 되었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잔은 비워졌고, 하나님의 뜻은 수행되었읍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도 살아있다는 이 사실에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돌아온 탕자를 대하듯 진심으로 기뻐하며 …나는 다시 한번 행복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싸움을 끝났으니, 오십시오. 처음 친구가 결국 마지막 친구인 것입니다."(교회 정사, 4 : 163-64)

요셉은 다른 예언자와 같이 불완전했읍니까? 물론입니다. 분명히 요셉은 자신이 번역한 고대 예언자의 말씀과 동일시될 수 있읍니다.

"나의 부족함으로 하여 나를 비난하지 말며 나의 부친이나…저들의 부족함으로 비난하지 말라. 다만 너희에게 우리의 부족함을 알게 하시어 너희로 우리보다 더욱 현명하게 되도록 가르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몰몬서9 : 31 ; 교성67 : 5 참조)

"범사에 서로 상대되는 것"(니이2 : 11)이 있다는 교훈적인 말씀을 번역한 요셉은 성장을 위한 미묘 체조법에는 낡은 자아의 단호한 저항과 새로운 자아와의 싸움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깨닫게 되었읍니다.

요셉은 다른 예언자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사명을 수행하는 데서 그와 같은 불안감을 경험했읍니까? 사실 그러합니다! 요셉은 바울이 다음 글을 쓰면서 얼마나 지치고 절망했는가를 이해할 수 있었읍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고후7 : 5, 고후4 : 8 참조)

요셉도 다른 예언자들처럼 부당하게 고소당했읍니까? 그러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서조차 사람들은 그의 명성을 깎아내리고자 사실을 왜곡시키고 있읍니다. 바울을 미쳤다는 비난도 받았읍니다.(사도행전26 : 24 참조) 예수님 자신도 술주정뱅이에, 귀신이 들리고 미쳤다는 말을 들었읍니다.(마태복음11 : 19, 요한복음10 : 20 참조)

그러나, 이러한 모든 상황속에서도 약속된 대로, 요셉은 자신이 부름받은 일을 사랑했읍니다. 그는 자신의 동료들을 사랑했읍니다. 개개인에게 십이사도의 직분을 맡기는 중에서도, 우리는 그가 따스한 사랑과 유우머로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존 테일러 형제님, 당신은 설교하는 것보다는 편집부에서 일하는 것이 더 적격인 것 같이 생각되오. 당신이 글을 쓰면 수 천명이 읽게 되지만, 설교도 한번에 몇 사람밖에 듣지 못하니 말이오. 우리가 그 신분을 믿을 수 있다고는 아무도 생각지 않을 거요. 왜냐하면 당신은 오자 투성이의 신분을 찍어낼테니 말이오."(교회 정사, 5 : 37).

요셉은 강둑 위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며 자비심을 보여 주었읍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병을 치유하는 손수건을 보내 주었읍니다!(교회 정사4 : 3-5 참조)

그는 태어난지 얼마 안되는 아기를 잃은 슬

품을 겪고난 후, 이웃집 아기를 밤에 돌려주겠다는 조건으로 낮에 아기를 돌보아 준다는 허락을 받았읍니다. 아기의 누이인 마가렛 맥인타이어 자매는 후에 이렇게 보고했읍니다.

"하루 저녁은 애기를 데리고 그가 올 시간이었는데도 오지를 않아서 우리 어머니가 에언자의 저택으로 가보았읍니다. 가서 보니 에언자가 애기를 비단 포대기에 잘 싸서 안고 있었읍니다.

그는 무릎을 추스리며 떠나기 전에 조용해야 한다고 어린 것에게 노래를 해주고 있었읍니다."(성도의 벗, 1971년, 7월호, 8-9페이지)

요셉은 봉사하는 지도자였읍니까? 과연 그러합니다! 어떤 소녀와 남동생이 학교를 가는 길에 진창에 빠져 애를 먹고 있었읍니다. 에언자 요셉은 "허리를 굽혀 우리를 거기서 꺼내주고 우리의 작은 구두에 찬뜩 묻은 진흙을 털어내고,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물로 닦아 주었읍니다. 그는 다정한 말로 우리를 달래 주어 즐거운 마음으로 학교에 가게 했읍니다.(청소년 인스트락터, 1892년 1월 15일, 67페이지)

폭도들로부터 요셉과 함께 피신한 어느 청년은 이렇게 말했다. "병과 공포로 나는 탈진상태에 빠졌다. 요셉은 나를 남겨두고 피해 달아나 내가 폭도들에게 잡히게 하든지 아니면 위험을 무릅쓰고 나를 도와 같이 달아날 것인가를 결정해야 했다. 그는 후자를 택했다. 그는 나를 들어 어깨 위에 떠메고는 늪과 어둠을 헤치며 앞으로 나아갔다. 그렇게 하길 몇 시간이 지난 후에 우리 앞에 의견이 나타났다. 요셉의 억센 힘이 그로 하여금 그같은 모험을 하게 하였고 또한 나의 목숨을 구했던 것이다."(성도의 벗, 1974년 12월호, 15페이지)

요셉 스미스는 뉴 잉글랜드 지방에서 카톨릭 수도원이 누군가에 의해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분개했읍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읍니다. "미국 독립의 불길이 처음으로 불타올랐던 바로 그 곳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교회 정사, 2 : 465)계속해서 분이 풀리지 않은 요셉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읍니다. "나는 당당히…장로 교회나 침례교나 그 외의 다른 종파의 선한 사람을 위하여 죽을 준비가 되어" 있읍니다."("에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307페이지)

요셉의 성역의 중요성을 대부분의 육신의 인간들은 오해하고 있었으나, 악마는 그렇지 않았읍니다.

요셉 스미스가 살해당할 때까지도 영적으로나 지식적인 면에서 계속 성장하고 있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요셉은 1840년에 임종을 앞둔 그의 부친에게서 받은 축복에 약속되어 있었듯이 "하나님께서 그대가 행하도록 마련해 주신 모든 일의 계획을 세울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살았읍니다. 지금도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브리감 영이 임종을 앞에 두고 "요셉, 요셉, 요셉"하고 외쳐댄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조셉 필딩 스미스, 교회사 요해, 제24판, 솔트레이크시티 : 데저렛 출판사, 1971

년, 459페이지)

이와 같이, 요셉 스미스를 헐뜯는 사람들이라도 주님과 요셉과의 관계를 변경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니이3 : 8 참조)…다만 그들 자신의 처지만 달라지게 될 뿐입니다. 그것은 1834년에 부친의 축복에서 요셉에게 약속된 그대로였읍니다.

"그대의 성역을 통해 수백, 수천만명이 진리의 지식을 알게 될 것이며, 그대는 그들과 함께 해의 왕국에서 기쁘게 살게 될 것이며 야곱의 지파가 북에서부터 소리치며 나올 때 그대는 시온산에 서게 될 것이며, 그대의 형제인 에브라임 형제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영광을 돌리리라."

어떤 사람들은 요셉을 단지 놀라움이라는 후한 형용사를 그에게 붙여주는 것으로 요셉을 설명하려 합니다. 과연 요셉은 놀라운 존재였읍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그는 주님이 쓰시는 도구였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저 멀리 희미하게 그러나 모든 인간이 "만물을 사실대로"(야곱서 4 : 13) 보게 될 인간의 인식을 넓히는 역사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듣게 됩니다.

청년 요셉이 번역한 고대 기록은 "세상이 있는 한 대를 이어"(니이 25 : 22 ; 교성5 : 10 참조)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록은 선견자는 고대 기록을 번역할 수 있고, 계시자이며, 과거와 미래의 일을 알고 있다고 정의해 주었읍니다. (모사이야서 8 : 13-17 참조) 그러한 선견자는 예언자보다 더 위대하다고 암몬은 기록했읍니다! (모사이야서 8 : 15-17 참조)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다만 기쁜 마음으로 선견자 요셉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선견자를 보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주,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셉을 부르시어,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여호와와 대화한 사람"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화평케 하는 자가 되십시오

프랭클린 디 리차즈 장로
철십인 제일 정원회 회장단

"우리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일상 생활에서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진실로 우리 모든 형제 자매입니다. 아름다운 음악과 개회 기도와 총관리 역원들의 권고의 말씀으로 이 모임이 가장 영적인 모임이 되었읍니다.

나는 23년 전 총관리 역원으로 부름받고 아름다운 태버내클에서 첫번째 소감을 다음과 같이 말했읍니다. "오늘 아침 내 마음은 맥케이 대관장님과, 하나님의 왕국의 일을 관리하고 있는 총관리 역원들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하며 또한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읍니다. 나는 아무에게도 적의나 증오심을 품지 않고 있음을 솔직히 말씀드릴 수가 있읍니다. 저는 주님께서 이 직책을 수행하도록 저를 도와 주시기를 기원합니다."(대회 보고, 1960년 10월, 47페이지)

진실로 주님께서는 이 직책을 수행하도록 나를 도와 주셨읍니다. 나는 그 축복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976년 10월 연차 대회에서 대관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는 철십인 제일 정원회를 재조직하였읍니다. 그후 나는 7년 동안 이 정원회 회장단의 일원으로 봉사했읍니다. 현재 47명으로 구성된 철십인 제일 정원회는 교회 본부에서 뿐만 아니라 전세계 각처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맡아 봉사하고 있으므로 이것은 매우 훌륭한 경험이 되었읍니다. 나는 그들의 헌신과 효과적인 봉사에 경의를 표합니다.

발표된 것처럼 나는 워싱턴 더 시 신전장으로 부름을 받았으며, 나의 아내 헬렌은 신전 매트론으로 봉사하도록 부름받았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대관장단과 총관리 역원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겸손한 마음과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우리의 최선을 다하겠다는 결의를 갖고 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읍니다.

우리는 나라들 사이에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들리고"(교성 45 : 27) 백성들 사이에는 증오심과 분쟁과 다툼이 있는 시대에 살고 있읍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은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국제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사회나 직장 관계에서도 평화가 필요합니다.

19세기 전 유월절부터 우리의 주님이요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과 권고의 위대한 메시지가 전해졌읍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요 14 : 27)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사 9 : 6)이라 불리우며, 그의 메시지는 개개인과 세상에 전하는 평화의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고 인간의 마음에 긴장과 근심을 없애고 영혼에 행복을 가져다 주는 삶의 계획입니다. 그것은 인간에게 전해진 가장 위대한 삶의 철학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사명은 모든 백성들의 마음과 가정에 이같은 평화와 행복을 확립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에게 전하신 가장 위대한 메시지는 산상 수훈임에 틀림없읍니다.

실제로 다른 사람과의 인간 관계에 적용될 모든 기본 원리가 이 위대한 설교에 포함되어 있읍니다.

이 설교의 일부는 팔복의 가르침이라 알려져 있으며, 이 팔복에는 "복이 있나니"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팔복의 가르침에는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주는 조건이 설명되어 있읍니다. 이 위대한 설교에서 구세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며 모두에게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고 훈계하셨읍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마 5 : 9) "복"이라는 말은 행복과 사랑을 받고 영광스럽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필요한 시대가 있다면 바로 오늘날일 것입니다. 오늘날이야말로 우리가 적어도 인간 관계에서 평화를 확립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행할 수 있는 일들을 토론하기에 적절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읍니까? 나는 몇 가지 할 수 있는 일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진실로 우리의 기회는 무한합니다.

다른 곳에서와 마찬가지로 가정에서도 우리는 모든 사랑과 선의를 보여 다툼과 시새움과 질투의 악을 없앰으로써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읍니다. 자녀들과 부모 사이에 어떤 오해가 있을 경우에 우리는 양쪽이 서로 조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읍니다. 우리는 평화의 영을 얻기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읍니다.

가정은 가족들간의 불화로 크게 파탄될 수가 있읍니다. 때때로 부부가 싸움을 하면 두 사람의 행복은 물론 자녀들의 행복마저 파괴됩니다.

이혼은 계속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이혼은, 만일 다투었을 때 화평케 하는 자가 있었다면 틀림없이 피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긴밀히 관련되어 있고 이전에 말씀드린 바 있는 흥미있는 실례는 몇 명의 청년들이 가정에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된 것이었읍니다.

매우 현명한 어느 감독은 몇 명의 청년을 감독실로 불러 그들에게 이같이 말했읍니다. "나는 여러분이 나를 도와 한 가지 실험을 해 주기 바랍니다. 내가 시험해 보려는 것은 가족 전체의 분위기에 미치는 한 사람의 영향력에 관한 것입니다. 한 달 동안 여러분이 각자 가정에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 주기 바랍니다. 신중하고 친절하며 사려깊게 행동하시고, 모범을 보이되, 이에 관해 가족들에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가족이 서로 싸움이나 말다툼을 할 때 사랑과 조화와 협조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며 이러한 잘못을 극복하기 위해 능력껏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화가 나거나 가족 중에 다른 사람이 화를 내면 스스로 자제하며 다른 가족들도 자제하도록 도와 주십시오. 나는 우리 와드의 모든 가정이 명실공히 '지상의 천국'이 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월말에 우리가 다시 만날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들 젊은이들에게 주어진 목표였는데 그들은 매우 훌륭한 방법으로 그 목표를 달성했읍니다.

그들은 감독에게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읍니다. 한 청년은 이렇게 말했읍니다. "저는 가정에서 제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읍니다. 지난 한 달은 정말 특별한 달이었어요. 저는 우리의 소란과 다툼이 나와 나의 태도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읍니다."

그리고 한 소녀는 이런 말을 했읍니다. "저희 가족은 각자의 이기심 때문에 일상적인 사소한 다툼을 하는 평범한 가족이었읍니다. 그런데 제가 형제 자매들에게 새로운 태도로 대했더니, 이러한 많은 문제가 없어졌을 뿐 아니라 우리 가정에는 화목한 분위기가 조성되었읍니다. 저는 감독님의 가정에 화평의 영이 깃들게 하려면 진심으로 그런 문제를 해

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소녀는 이렇게 말했읍니다. "제가 이 실험을 시작한 후에 우리 가정에는 화목하고 협동적이며 비이기적인 분위기가 많이 조성되었읍니다. 그러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나에게 있었읍니다. 저는 훌륭한 모범을 보이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려고 열심히 노력했읍니다. 그랬더니 저는 그 어느때보다 자신에 대해 좋은 느낌을 가졌어요. 저는 훌륭한 화평의 느낌을 얻었읍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한 달 동안 화평케 하는 자가 됨으로써 가정에서 이 감독이 제언한 실험을 해보지 않겠읍니까? 감독은 이렇게 전하고 있읍니다. "여러분은 가족이 서로 싸움이나 말다툼을 할 때 사랑과 조화와 협조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이러한 잘못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화가 나면 스스로 자제하고 다른 가족도 자제하도록 도와 주십시오."

가정에서 이 실험을 하려고 노력하며 화평케 하는 자가 된다면 가장 만족스러운 보상을 얻게 되리라고 약속드릴 수 있읍니다.

우리가 가정과 사회와 직장에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비평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비평을 할 때 심판을 하고 있다고 잠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산상 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마 7 : 1-2)

또한 우리는 용서를 실천하고 가르침으로써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읍니다. 예수님은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으시고 우리는 한없이 용서해야 한다고 대답하셨읍니다. "일흔번씩 일곱번이라도"(마 18 : 22) 용서하십시오.

현대 계시에서 주님은 "너희가 서로의 잘못을 용서하였으면 그와 같이 나 주도 용서하노라."(교성 82 : 1)고 말씀하셨읍니다.

용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망각이 기억만큼이나 귀중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여러 가지 분야를 검토하고 많은 인간적인 약점을 알 때, 인내의 가치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읍니다.

가끔 우리가 오해를 받을 때, 심지어 우리의 가장 친한 친구에게서 오해를 받을 때 인내심이 있어야만 정당한 이유가 있든 없든간에 우리는 마음속으로 그러한 비평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성난 상태에서 참을성을 나타내 보이는 이러한 능력은 우리가 구세주의 가르침에 따라 우리를 악용하는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다른쪽 뺨을 돌려대는 것을 의미합니다.(마 5 : 39,44 참조)

인내심은 정말 훌륭한 덕성이며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우리 자신의 삶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을 위해 인내할 것을 결심함에 따라 발전시킬 수 있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이 훌륭한 인내의 원리를 포함하고 있음을 감사하고 있읍니다. 또한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보여 주신 인내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며, 그분들이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셨으며,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할 권세가 지상에 회복되었으며, 또한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님은 살아 계신 예언자임을 알고 있음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주님의 가장 훌륭한 축복이 킴볼 대관장님에게 임하고 우리가 그분의 권고와 조언에 따를 용기와 훌륭한 판단력을 갖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일상 생활에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용서하지 않음으로써 오는 해독을 제거함

에이치 버크 피터슨 감독
관리 감독관 제1보좌

"부수심이나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나 배도에서 나오는 독성은 그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러한 마음을 품고있는 사람을 해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아침 나는 얼마 전부터 마음속으로 느껴 왔던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의 인도하심으로 나와 여러분이 함께 이해하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나는 오랜 세월을 통하여 인간의 영적인 성장을 정지시켜 왔던 약점에 대하여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그것은 남녀 노소와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영향을 미쳐 왔읍니다. 그것은 국경이나 인종 또는 종파나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것이 강하게 보이는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며 심약한 많은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은 사람의 영에 독을 끼쳐 인간이 지탱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게 합니다. 그것은 인간을 지옥 끝까지 이끌어 갈 수 있는 힘을 갖고 있기는 하나, 그 손아귀에서 빠져 나올 때, 그들은 하늘 끝까지 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펴지 못하게 했으며, 그것은 재능있고 은총받은 사람들에게 장애물이 되어 왔읍니다. 그것은 사탄이 가장 유용하게 쓰고 있는 도구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용서하지 않는 마음 즉, 잊어버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과거와 현재에 있었던 불쾌한 경험으로 인한 고민과 고통, 원망과 혐오감, 심지어는 증오심마저 도사리고 있읍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업적인 면에서 이것을 이용하기도 했읍니다. 이웃이나 친척 또는 친구들에게서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들도 있었읍니다. 또한 기만당하고, 오랫 동안 쌓은 신임이 배반당한 자들도 더러 있읍니다. 현재나 과거에도, 거칠고 독재적인 부모들에게서 감정을 상한 아이들도 있었읍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비난하고 원망함으로써 심각한 간격이 생길 수도 있읍니다. 이러한 슬픈 일들을 열거하자면 한이 없을 것입니다. 비록 극히 사소한 것이라도 과거의 마음의 상처를 그대로 품고 있는 분들에게,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을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생애의 대부분을 아리조나 중부 지방에서 살았읍니다. 몇 해 전에 어떤 고등 학교 학생들이 피닉스 시의 외곽에 있는 사막 지대로 당일 소풍을 갔읍니다. 여러분 중에도 아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사막에는 식물이 거의 없고, 여기 저기 가시돋친 선인장이 서 있을 뿐입니다. 뜨거운 여름의 일기가 내리쬐는 이 사막의 숲속에는 반갑지 않은 거주자인 방울뱀도 볼 수 있읍니다. 소풍을 나온 이 학생들이 떠들며 재미나게 놀고 있는데, 한 소녀가 방울뱀에게 발목을 물리고 말았읍니다. 이처럼 방울뱀에게 물리면, 그 독은 순식간에 그녀의 혈관 속으로 퍼지게 됩니다.

바로 이때가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였읍니다. 그들은 곧 그녀의 다리에서 독을 빨아 낼 수도 있었고 아니면 뱀을 찾아 내어 죽여 버릴 수도 있었읍니다. 그들은 결정을 내리고, 소녀와 그 어린 친구들은 뱀을 찾았읍니다. 뱀은 재빨리 수풀 속으로 기어 들어갔으며 15내지 20분 동안 그들을 피해 다녔읍니다. 결국, 그들은 뱀을 찾아 내어 물로 처서

죽였읍니다.

그러고 나서야 그들은 그들의 친구가 뱀에 물렸다는 사실이 기억났읍니다! 독이 피부 표면으로부터 발과 다리의 조직 속으로 퍼져 들어감에 따라, 친구가 점점 괴로와하는 것을 알게 되었읍니다. 30분도 더 지나서야 그들은 병원의 응급실에 도착했읍니다. 그때는 이미 독이 완전히 퍼진 상태였읍니다.

여러 날 뒤에 나는 그 소식을 들었으며 교회의 십대 회원들로부터 병원에 있는 그들의 친구를 같이 방문하자는 부탁을 받았읍니다. 병실에 들어선 나는 애처로운 광경을 목격했읍니다. 높이 올려놓은 그녀의 다리와 발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어 있었읍니다. 다리의 조직이 독으로 인해 썩었읍니다. 며칠 후에는 그녀의 다리는 무릎 밑에서 절단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읍니다.

복수의 대가로 어처구니없는 희생을 치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소녀가 뱀에 물렸더라도 곧 사막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방식에 따라 독을 빼내었다면 얼마나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겠읍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날에도 다른 사람들에게서 물리거나 상처받은 경우가 있읍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사람에게서 상처를 받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고 올바른 방법은 자신의 내부를 들여다 보고 즉시로 깨끗이 씻어내야 합니다. 슬기롭고 행복한 사람은 우선 자신의 내부로부터 더러운 것을 씻어냅니다. 원망하고 용서하지 않는 마음의 독성이 몸안에 오래 있을수록 파괴적인 영향력은 더욱 크게, 더 오랫 동안 남아 있게 됩니다. 우리의 상태나 상황을 남의 탓으로 돌리고, 우리 자신의 둘레에 자기 합리화의 벽을 쌓는다면, 우리의 힘은 약화되고, 우리의 상황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능력이 떨어질 것입니다. 복수심이나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나 태도에서 나오는 독성은, 그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러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을 해치게 될 것입니다.

헨리 홈은 이렇게 말했읍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생각을 품은 자는 자기 자신에게 더 큰 해를 끼치게 된다."(새 명언 사전, 스탠다드 북 사, 1957년, 309페이지)

제 2 차 세계 대전 시에 인간에 대한 인간의 비인간성이 가장 끔찍하게 나타났읍니다. 전쟁이 끝나 강제 수용소의 문이 열리자, 참혹할 정도로 약하게 여윈 생존자들은 증오심으로 가득 차 있었읍니다. 어느 한 수용소에서 조사하던 사람들은 어떤 폴랜드인이 무척 건장하고 화평스럽게 보여 그들은 그가 최근에 투옥된 것이리라고 생각했읍니다. 그러나 그들은 6년이 넘게 그곳에 있었다는 말을 듣고 놀랐읍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부분의 포로들이 당했던 바와 같이 그의 가족이 끔찍한 행위를 당하는 고통은 겪지 않은 모양이라고 생각했읍니다. 그러나 그에게 질문을 해본 그들은 군인들이 그가 살던 도시로 쳐들어와 그의 아내와 두 딸과 어린 세 아들을 벽을 향해 일렬로 세우고 총살시켰음을 알았읍니다. 그는 가족과 함께 죽여 달라고 애걸했으나, 그는 뛰어난 지식과 어학 능력 때문에 살아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폴랜드인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읍니다. "나는 바로 그 순간에 이러한 만행을 저지른 군인들을 내 자신이 증오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했읍니다…. 그것은 정말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었읍니다. 나는 변호사의 일을 해왔읍니다. 그 일을 하면서 나는 증오심이 사람들의 심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보아 왔읍니다. 이 세상에서 내게 가장 중요한 여섯 사람을 죽인 것은 바로 그 증오심이었읍니다. 그래서 나는 내 남은 생애, 그것이 며칠이 되든 몇 년이 되든 내가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보내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조지 지 릿치, 엘리자베스 세릴, *내일로부터의 귀환*, 텍사스, 초우즌 북스, 116페이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

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마6 : 14-15)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이는 자기 형제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 앞에서 정죄받음이니, 큰 죄가 저에게 있음이라."(교성 64 : 9)

다른 성구에서 주님은 참으로 회개한 자의 죄는 기억하지 않고 용서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흔히 우리는, 어떤 사람이 회개하면 우리도 용서하겠노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은 마음속의 생각에 따라 심판받게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인간은 다른 사람의 마음속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은 다만 한 분뿐입니다. 재판관은 그분이지 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비판하거나 판단을 내리려 한다면, 우리도 인간이 이 생에서 목표로 하는 목적물을 볼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가 맞히는 것만을 보게 됩니다.

모로나이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빛 곧 그리스도의 빛을 가졌으매 그릇 판단하지 않도록 하라. 너희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너희가 판단을 받을 것임이니라."(모로 7 : 18)

상상적인 면에서나 실제적인 면에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은 용서받는 자보다 주는 자에게 더 큰 축복이 따르게 됩니다. 잘못된 것이나 상처받은 것을 용서하지 않은 사람은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을 맛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인간은 어떤 경우에도 모든 원망을 떨쳐 버리고 그릇된 것과 악의를 용서할 때만큼 큰 힘을 얻고 고귀한 성품을 갖추게 될 수는 없습니다. 마음속에서 모든 악감정, 원한, 증오, 시기심 또는 다른 사람을 질투하는 성품을 제거해 버리지 않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라 할 수 없습니다.

키끼이 용서하는 가장 위대한 본보기를 보여 주신 분은 2000년 전에 갈릴리 해변가를 걸으셨습니다. 세상에서 학대받은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분을 들 수 있습니다.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은 구세주에 관하여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는 일생 동안 추악한 인간의 희생물이 되어 왔다. 그는 어린 유아 시절에 꿈속에 나타난 천사의 지시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피한 적도 있다. 그는 조용히, 침착하게, 위엄을 지니고 말년을 맞이했던 것이다.

"입에 담지 못할 욕설도 쏟아져 나왔다. 그에게 그처럼 성스러웠던 것이나 귀했던 사람, 장소, 상황 등에 대한 온갖 비난과 힐난, 불경스러운 욕설 등이 그에게도 참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이를 참았다. 조금도 움츠리거나 부인하려고 하거나 반박하려고 하지도 않았다. 위증자가 나와 그에 대해 거짓 증거를 했을 때도 그들을 꾸짖으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의 말을 왜곡하고 그가 말한 본뜻을 오해하였지만 그는 조용하였고 당황하는 기색조차 보이지 않았다. 그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마 5 : 44)고 가르치지 않았던가?

"그는 못매를 맞았다. 그는 심한 고통이 따르는 가시관을 썼다. 그는 조롱과 조소를 당하였다. 그는 자기 백성들로부터 온갖 모욕을 다 당하였다. 그는 몸소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산에 올라가 십자가에 못박혀 고통을 당하셨다. 마침내 그는 십자가에 달려 군병과 그를 비난하던 무리를 보고 이렇게 말하고 그의 생애를 마쳤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눅 23 : 34) (용서가 낳는 기적, 253-54페이지)

"너희를 핍박하는 자"(마 5 : 44)에게도 구세주의 영으로 대하도록 합시다. 용서하는 마음을 갖도록 간구합시다. 서로 결점을 찾을 것이 아니라, 장점을 찾도록 노력합시다.

이러한 구원의 원리와 용서하고 잊어버리는 것의 중요성을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실천합시다

마빈 제이 애쉬튼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인생의 충만한 유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가치있는 목표와 원리를 실천하면서 매일 매일을 생활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읍니다.

최근에 나는 대학을 졸업하는 훌륭한 젊은 자매에게 축하할 기회를 가진 적이 있었읍니다. 그녀가 어려운 역경을 뚫고 원대한 목표를 성취한 것을 잘 알기에 나는 이렇게 물어 보았읍니다. "이 위대한 일을 어떻게 성취할 수 있었는지 한마디로 말해 주시겠어요?" 그 자매가 잠깐 생각하는 동안 "용기" "확신" "믿음" 같은 말로 답변하리라고 내 마음속으로 기대했었읍니다. 그런데 주저하지 않고 그 자매가 답변하기를 "애쉬튼 장로님, 한 마디로 말하면 "실천"입니다."

위대한 미국의 지도자 링컨에 대해서 들어 본 적이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가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한 다음의 말도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의 내가 된 것과 앞으로 내가 되길 원하는 모든 것은 다 천사 같은 나의 어머님 덕택입니다."(상식에 대한 아브라함 링컨의 철학, 에드워드 제이 캘프, 뉴욕, 더 뉴욕 아카데미 오브 사이언스, 1965년 60페이지) 그러나 그의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그에게 남겨준 말은 몇 사람이나 알고 있읍니까? 그 어머니의 말씀은 "에이브야, 무엇인가 특별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었읍니다.

이 권고는 현명한 권고일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부모가 마음속으로 자기 자녀들에게 바라고 있는 바를 말로 표현한 것이기도 합니다. "무엇인가 특별한 사람이 되라" 간단하면서도 얼마나 강력한 말입니까? 링컨의 어머님이 아들에게 "누군가가 되라"고 하지 않고 "에이브야 무엇인가 특별한 사람이 되라"고 한 것은 내마음을 기쁘게 해줍니다. 두 말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읍니다. 사전에 보면 *누군가*라는 말은 마음속에 그리거나 생각하는 것으로 그러나 분명히는 알려지지 않은 사람으로 정의되어 있으나 반면에 *무엇인가*라는 말은 중요한 사람 또는 물건으로 정의되어 있읍니다.

아브라함 링컨의 어머님은 자기 아들과 그의 잠재 능력 그리고 그 앞에 놓인 어려움들을 알고 있었읍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링컨이 전인류를 위해서 용기와 믿음대로 살고 행하는 데 굳건하고 흔들리지 않겠다고 다짐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일의 성취와 모범적인 생활과 분수에 맞게 생활하는 것 그리고 약속을 지키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희망의 말을 전해 주고 있읍니다.

참된 행복은 물질을 얻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행복은 특별한 사람이 되는 데 있읍니다. 이것은 가치있게 목표를 실천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읍니다. 실천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없읍니다.

실천한다는 말은 그말 하나로서는 의미가 없읍니다. 우리는 항상 "무엇을 실천할 것인가?"라고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자기 발전의 축복과 주어진 임무를 훌륭하게 수행하는 축복을 얻기 위하여 스스로 목표를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인간은 훌륭한 대업에 힘써 노력하며 자신의 자유의사로서 많은 일을 행하며 많은 의를 이룩해야 하느니

라.

"이는 인간에게 능력이 있고 자유의지가 있음이니 사람이 선을 행하면 결코 자기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명령을 받기 전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거나, 마음에 의심이 가득하여 명령을 받아 마지 못해 이를 준행하는 자는 정죄를 받느니라"(교성 58 : 27-29)

훌륭한 대업을 찾는 데 있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필요 사항도 고려해야 하지만 복음의 가르침에 일치하도록 살아야 하겠읍니다.

1975년 4월 3일에 열린 지역 대표 세미나에서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읍니다. "나는 목표를 믿습니다. 모든 개인은 자신의 목표를 정해야 합니다. 목표는 우리가 도달하고 얻을 수 있는 지점에 항상 세워져야 합니다. 성공이란 반드시 목표에 도달하는 것으로 평가되어서는 안되며 진보해 나가고 성취해 나가는 것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를 세우는 데 있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필요 사항과 능력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우리가 현재 머물러 있는 지점보다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나아갈 때 목표를 세움으로써 진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을 살피는 일은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성공한 것은 자기 탓이라고 하고 잘못은 환경이나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립니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최후의 만찬 중 십이 사도들이 했던 그와 같은 질문을 할 수 있다면 좋겠읍니다.

"저물 때에 예수께서 열 두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저희가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저희가 심히 근심하며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이니까"(마 26 : 20-22)

진전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 그것이 누구 탓인가 물어 보는 것이 좋읍니다. 나 때문이 아닌가? 나는 의로운 목표에 전념하고 있는가? 나는 자신을 살펴볼 용기와 인내와 지혜가 있는가? 또는 나는 나의 동료가 실패하도록 꾀하고 있지는 않은가?

시카고의 백만 장자 윌리엄 클레멘트 스톤씨는 기자 회견에서 "여러분이 욕망과 실천력만 있다면, 어느 분야에서도 성공하실 것입니다"라고 말했읍니다. 그는 또 계속 이렇게 말했읍니다. "여러분의 종교에 관계없이 모든 시대에 가장 영감적인 책인 성서를 읽으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힘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십시오." 이 사람은 실천의 가치를 터득했읍니다. 그는 욕망을 가지고 있었읍니다. 그는 또한 하나님께 의지하여 방향과 인도와 도움을 받는 방법도 배웠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목표로 인해 동기를 부여받았읍니다. 왜 그런 목표를 세우느냐는 질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좋은 느낌과 약속된 보상 때문입니까 아니면 계명을 못지킬까 두렵기 때문입니까? 가장 좋은 동기는 능동적인 면에 있읍니다. 올바른 복음 원리에 완전히 전념하는 것은 기쁨과 만족과 풍요한 생활을 가져다 줍니다.

데일 카네기는 이렇게 말했읍니다. "만일 여러분이 바라는 사람으로 되어 가고 있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여러분이 바라지 않는 사람으로 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즉시 해결될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매일의 필요한 일을 해결하고 당면한 적은 목표들을 이루는 것이 뜻있는 성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가능성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모든 기회를 다 활용하고 실패와 실망으로 중단하거나 울지 않는 것이 현명하고 옳은 일입니다. 큰 일들을 쪼개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조그마한 일로 나누십시오. 그러면 자신감이 커지고 더 큰 목표를 실천하는 일도 가능해 질 것입니다. 성공으로 가는 길은 멀고 계속 가치있는 목표를 실천하는 것으로 가

득차 있읍니다. 방향만 세워 놓는다고 해서 가치있는 목표를 실천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워 놓은 목표를 향해서 매일 진보해야 합니다.

전념할 때 힘과 재능이 더해지게 됩니다. 기대치 않은 곳에서 도움이 주어집니다. 우리들 중에 누가 그러한 책임을 지는 것에 천적으로 부적당하다는 느낌과 두려움으로 어떤 임무를 받아들이지 않은 적이 있읍니까? 그러나 순종심으로 열심히 일하고 자주 기도함으로써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놀랍게도 일이 완성될 때 우리는 성공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능력이 커졌음을 점손히 깨닫게 됩니다.

괴테는 이렇게 기록했읍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거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시작하라. 용기있는 곳에 천재와 능력과 마력이 있다." 실천하는 곳에 천재와 능력과 마력이 있다고 우리는 덧붙일 수 있겠읍니다.

경전에는 그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읍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이든 명하시는 대로 이룰 수 있는 방편을 미리 마련치 아니하고는 명하지 않으심을 제가 아오니 주께서 명하신 대로 가서 행하겠나이다." (니일 3 : 7)

실천하는 사람은 역경을 맞이할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실천하지 못할 때 주저하게도 되고 딴 방향으로 가게도 되고 비능률적으로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살며 실천하려는 우리 성도들은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이 주는 험담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우리의 적들은 더욱 더 악해지고 있읍니다. 적들은 평범한 성도들 뿐만 아니라 선택된 지도자들까지도 속여 넘기려 하고 있읍니다. 그들은 지도자들을 비난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성스럽게 여기는 것을 비웃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진실되고 거룩한 것으로 알고 있는 의식과 성약을 조롱합니다. 그들은 과거와 현재의 우리 지도자들이 가르친 진리를 깨닫고 유익을 얻기 보다는 인간적인 결점과 약점을 찾고 퍼뜨리는 것을 즐기고 있읍니다. 그들은 과일 나무에서 과일을 따먹는 것이 아니라 나무 줄기에 보이는 흠을 찾고 있읍니다.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갈 6 : 7 참조) 우리는 싸우거나 논박을 할 시간을 요구할 의도도 없읍니다. 우리는 우리와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눈을 떠서 선을 찾아 주님의 길을 걷는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아름다움과 기쁨을 보도록 초대합니다.

예를 들어 축구 경기를 보러 가서 얼마나 많은 점수가 났는가 하는 것보다는 선수들의 운동복에 묻은 때와 먼지만 보고, 선수들을 판단한다면 그날은 그 사람에게 슬픈 날입니다.

또한 야구 시합에 가서 홈런을 쳐서 승리로 이끈 선수에게 박수 갈채를 보내는 대신 그 선수가 국민학교 때 개구장이 노릇을 했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으면 어떻게 기쁨을 찾을 수 있겠읍니까? 과일 대신 먼지와 맛이 없는 것을 먹는 사람들은 참으로 슬픈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이 많아 혼자 되신 할머니 한 분이 보여주신 행동을 비교해 보십시오. 그분은 매일 아침 신전에 오셔서 모임에 참석하며 하루를 보내고 피곤하고 지친 몸으로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시는 데 그분은 "모든 사람들 특히 보지도 못한 사람까지도 사랑하기" 때문에 신전 일을 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읍니다. "신전이 열리는 날은 날마다 가지요. 어떤 때는 힘이 없어 가기 힘들지만, 어떻게든지 가고 있읍니다"라고 말씀하셨읍니다. 그것이 바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남을 북돋아 주고 이끌어 주고 사랑할 눈과 귀와 마음이 있읍니다. 하나님과 그의 길에 전념하면 우리는 파괴적인 비판이나 보복이나 증오감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어깨를 맞대고 파괴와 비난과 무시함이 없이 영혼을 구하는 전열에 서서

나아 갑시다.

바울은 개종하면서 즉시 실천했읍니다. 요셉 스미스도 생명을 아끼지 않고 실천했읍니다. 첫시현을 보았을 때부터 순교당할 때까지 요셉은 심한 박해와 욕설과 조롱의 희생자가 되었지만 결코 역경으로 흔들리지 않았읍니다. 요셉은 그의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했읍니다.

"그러나 내가 시현을 보았다는 것은 어쩌할 수 없는 사실이었읍니다. 나는 그후에 바울이 아그립바 왕 앞에서 변론할 때에 그가 분명히 빛을 보고 소리를 들어 시현을 보았다고 말하였으나, 오히려 그의 말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으며 어떤 사람은 그가 거짓말을 한다고 했으며 다른 사람은 미쳤다고 하여 조롱받으며 욕설을 들었던 때와 퍽 비슷한 심경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도 그가 실제로 시현을 보았다는 사실을 변경하지는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시현을 보았으며 자기에게 시현이 임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의 경우도 그와 꼭 같습니다. 나는 실제로 빛을 보았으며 그 빛 가운데 두분이 계신 것을 보았고 그분들은 실제로 나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내가 시현을 보았다고 말하여 미움과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이것은 사실 그대로이며…… 나는 분명히 시현을 보았읍니다. 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며 하나님도 알고 계심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읍니다. 또한 그러한 행동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며 정죄받는 일인 줄을 분명히 알고 있었읍니다." (요셉 스미스서 2 : 24-25)

큰 어려움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도 요셉 스미스도 흔들리지 않았읍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분쟁과 불화의 씨를 뿌리고 있읍니다. 거짓과 중상으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들을 배도의 길로 이끌려고 애쓰고 있읍니다. 때때로 나는 우리가 누군가의 행실을 보고 어떻게 그를 비 기독교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생활하는 데에 전념하는 사람들은 혼동되거나 당황하거나 배도의 길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말일성도라고 공언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첫번째 선생님으로 삼고 말일성도와 같이 생활하도록 전념합시다.

이 지상에서 사는 동안에 복음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일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고상한 기독교인의 생활을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천하는 일은 우리의 영원한 기쁨과 행복에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천하고 실천할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밤에 침대에서 떨어져서 엄마 곁으로 울면서 왔던 다섯 살 난 꼬마 소년이 생각납니다. 엄마가 "너 왜 침대에서 떨어졌니?" 하고 물으니까 답이 "침대에서 바닥까지 멀지 않으니까 떨어졌지"라고 했읍니다.

여러 해 동안 내가 경험한 바로는 보통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실천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은 "하고 싶다"와 "하겠다"의 차이입니다. 예를 들면 "십일조를 내고 싶다 그러나 돈이 부족해"라는 말과 "나는 십일조를 내겠다"라는 차이입니다. "나는 시간있으면 성찬식에 가고 싶다"라는 말과 "성찬식에 가겠다"라는 말의 차이입니다. "난 좋은 교사가 되고 싶으나 애들이 너무 떠들어"라는 말과 "난 좋은 교사가 되겠다"의 차이입니다.

문제는 실천입니다. 특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실천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는 구세주이시며 이 교회는 그의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가 환경이나 역경에 관계없이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도록 전념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자녀에 대한 부모의 관심

하워드 더블류 헌터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사실 최선을 다하고 계속 신앙 생활을 하면서도 자신을 너무 자학하고 그러한 느낌으로 그들의 생활을 좀먹게 하는 부모님들도 있을 것입니다."

총관리 역원들은 세계 각 곳에서 성실한 생활을 하고 있으며 그들의 가족을 복음 안에서 키우고 있는 교회 회원들을 만나고 사귈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읍니다. 이러한 성도들은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들이 오랫동안 부모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해 온 것을 회상하며 큰 위안과 축복을 받고 있읍니다. 확실히 우리는 누구나 그와 같은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교회안에서나 이 세상에서는 죄의식과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느끼며 살아 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은 그들의 자녀들이 제멋대로 나가 울타리에서 벗어나 생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부모님께 전해드리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성실한 부모님들이 그들의 최선을 다하지만 거의 모두 실수를 범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부모로서 임무를 수행하다보면 많은 실수를 범하는 것을 곧 알게 됩니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의 영의 자녀를 젊고 경험이 없는 부모들에게 맡기실 때 잘못된 판단과 실수가 따르리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모든 부모들은 각종 "첫 경험"을 통해 지혜와 이해력을 터득하게 되지만, 그러한 여러 경험은 실수의 여지를 내포하며 새로운 땅을 일구는 데서 오게 됩니다. 첫 아기를 낳은 부모는 어떻게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버릇을 고쳐 주고, 교육시켜야 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곧 학교에 가는 날이 오고 처음으로 자전거를 타는 날이 닥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는 십대가 되어 첫 데이트를 하게 되고 학교 성적에서 처음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처음으로 늦게 들어오겠다는 말을 듣게 되거나 처음으로 차를 사달라는 부탁을 받게 됩니다.

어떤 부모라도 이러한 어려운 길을 가면서 실수를 하지 않기란 힘들 것입니다. 특히 경험과 이해력이 다소 부족한 이와 같은 첫번 경험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부모가 경험을 해 본 후라도 두번째, 세번째 닥쳐오는 사건들은 때때로 다루기가 더 쉽지도 않으며, 실수할 기회가 적어지지도 않습니다.

젊은이들과 효과적으로 일하는 책임보다 더 힘든 책임이 있겠읍니까? 어린이의 개성과 인격은 여러 변수가 작용하여 영향을 미칩니다. 자녀의 일생을 결정짓는 데 있어서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 부모님들이 사실상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지만 때로는 다른 영향력도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유전이 인간의 생활에 얼마마한 영향을 미치는가는 확실히 알 수 없읍니다만 분명한 것은 형제나 자매, 친구와 교사들, 그리고 이웃과 소년단 대장들도 중요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어린이들은 또한 유전이나 사귀는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집, 놀이 기구, 물 등과 같은 물리적인 환경에 속한 "사물"로 인해서도 영향을 받습니다. 놀이터와 놀구, 의복과 차 또는 이러한 것들이 젊어

된 것도 모두 어린이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영향력과 수많은 결정을 해야 하고 각 사람마다 수많은 변수들을 고려하고 참작해야 하므로, 부모가 아무리 현명하게 선택하고자 애쓴다 할지라도 때로는 현명하지 못한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어느 경우에나 항상 옳은 말만 하고 행동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의 태도나 그의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실수를 저지른 것을 인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반면에 부모들은 일반적으로 주어진 환경 하에서 올바른 일을 행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하나, 우리의 아들 딸들은 그러한 올바르고 정확한 결정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때도 있읍니다.

부모가 실수라고 생각되는 것을 행했거나 결코 실수를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자녀가 울타리에서 벗어나 방황할 수도 있는 데, 이 두 가지 경우에 관해 나는 여러분과 몇 가지 의견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그러한 아버지 또는 어머니만이 그런 경우를 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첫째 부모인 아담과 이브도 그들의 몇몇 자녀들이 영생의 가르침을 거역하는 것을 보고 괴로와하고 고통스러워 했읍니다. (모세서 5 : 27 참조) 몇 세기 후에 야곱은 그가 사랑하는 요셉을 형제들이 시기하고 미워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읍니다. (창 37 : 1-8 참조) 앨마란 이름의 아들을 갖고 있던 위대한 예언자 앨마는 그의 아들이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과 합세하여 불화를 일으키고 사악하게 행동하므로 근심과 걱정이 가득하여 주님께 오랫 동안 기도했읍니다. (모사이야서 27 : 14 참조)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많은 그의 영의 자녀들을 잃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심정을 이해하십니다.

둘째, 우리는 그릇된 판단은 그릇된 의도보다는 대체로 덜 중대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 완전히 알고 이해하면서도 실수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평화와 안식을 가지다 주는 회개의 원리가 있읍니다. 우리는 실수나 실패 또는 죄를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간직하여 복음 안에서의 발전이나 가족 및 친구와의 관계를 손상시키기 보다는 그러한 것에서 빠져 나오는 것이 훨씬 좋을 것입니다. 어떤 실수든지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가능한 한 모든 면에서 그 결과를 바로 잡고 수정하려고 노력함으로써 우리는 회개할 수 있읍니다. 우리는 다시 새로와진 신앙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넷째, 빗나간 아들이나 딸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완전히 버린 자식이라고 생각했던 자녀들이 다시 부모의 품으로 돌아온 경우가 많이 있읍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임해야 하며 가능한 한, 자녀들에게 우리의 사랑과 관심을 알려 주어야 합니다.

다섯째, 우리의 행동이 자녀들의 행동에 — 그 행동이 좋든 나쁘든 — 유일한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여섯째,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노력이 성공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사랑과 희생, 근심과 염려를 이해하실 것입니다. 때때로 자녀로 인해 부모는 마음으로 고통을 느낄 수도 있으나 자녀에게 올바른 원리를 가르친 후에는 궁극적인 책임이 자녀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일곱째, 어떠한 슬픔이나 걱정이나 고통이나 번민이 닥쳐온다 해도 그것을 전화 위복시킬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즉 다른 사람들이 같은 문제점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 주거나 비슷한 경우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심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이해하고 우리가 희망을 갖기를 바라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될 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덟째며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사람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각자는 독특한 존재입니다. 각 자녀도 마찬가지

입니다. 우리 각자가 서로 다른 출발점에서 인생의 경주를 시작했듯이, 또한 우리 각자가 각기 다른 장점과 약점과 재능을 갖고 있듯이, 모든 자녀는 그 자신의 특별한 성품으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다른 사람에 대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우리의 성공을 판단하시리라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부모인 우리는 종종 우리의 자녀가 모든 분야에서 특출하지 못하면 우리가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판단을 내리는 데 신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부모의 책임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노력한 결과는 우리 자신과 우리가 양육하는 자녀들에게 영원한 결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부모가 되는 모든 이들은 그의 자녀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데려가기 위해 보호하고 사랑하고 도와 주는 중대한 의무를 지고 있읍니다. 모든 부모는 주님께서 이러한 책임을 소홀히 한 부모를 죄없다고 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었을 때, 모세는 그의 백성들에게 부모는 가정에서 주님의 계명을 그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고 했읍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읍니다.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신명기 6 : 6-7)

우리는 사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잃었다고 속이는 일이 없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행한 선한 일과 옳은 일에 긍지를 느끼고, 그른 일들을 우리의 생활에서 거부하고 돌아 내며, 주님께 용서와 힘과 위안을 간구하여 앞으로 나아갑시다.

성공적인 부모는 사랑을 베풀고, 희생을 하고, 관심을 갖고, 가르치고, 자녀의 필요사항을 충족시켜 줍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을 다 행했는데도 자녀가 여전히 빗나가고, 세상적이거나 골치거리가 된다 해도 여러분은 여전히 성공적인 부모인 것입니다. 아마 어떠한 부모나 어떠한 환경하에서도 다루기 힘든 애들이 태어날 수도 있읍니다. 마찬가지로 어떠한 아버지나 어머니에게도 축복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는 자녀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오늘 나는 최선을 다하고 계속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신을 너무 자학하고 그러한 느낌으로 그들의 생활을 좀먹게 하는 부모님들이 있지 않겠는가에 우려를 표합니다. 모든 부모님들은 그들의 자녀를 양육하고자 노력하는데서 기쁨을 찾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해 드립니다. 아멘

청십인 제일 정원회의 요시히코 기무찌 장로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고난의 목적은 우리를 복돋아 주고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겸손으로써 순종을 배웁니다."

슬픔과 고난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많습니다.

- 스스로 가한 고난
- 우리의 필멸의 육체의 최악으로 인한 고난과 죽음으로 생기는 이별의 슬픔
- 우리를 시험하는 고난
- 우리의 영적인 힘을 키우기 위한 고난
- 우리를 겸손하게 하며 회개에 이르게 하는 고난
- 세계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인 구세주의 고난과 속죄의 희생

그러나 우리가 슬픔과 고난을 통해 우리의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강화되면 "〔우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요한복음 16 : 20)될 것입니다.

30년 전 지부장으로서 나는 어느 형제님과 그의 부인을 접견했읍니다. 부인은 그녀의 남편을 헐뜯고 있었읍니다. 그는 그녀가 기대하던 가장도, 그녀가 처녀 시절 꿈꾸던 그런 동반자도 아니었읍니다. 그들은 대화를 나눌 때마다 서로 논쟁하고 인신 공격을 했읍니다.

그녀의 남편은 그녀를 사랑하는데도 그녀는 남편의 감정을 상하게 했읍니다. 그는 욕설을 들으면서 눈에 눈물이 고였읍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그녀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했읍니다. "왜 자매님은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십니까? 왜 자매님은 자매님을 도우려고 애쓰는 남편의 감정을 상하게 하십니까?"

그 부인의 대답을 듣고 난 깜짝 놀랐읍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싸우고 그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은 그들의 감정을 가장 많이 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그 일을 결코 잊지 않고 있읍니다. 그 예에는 많은 진리가 내포되어 있읍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것만큼 모르는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는 없읍니다. 우리는 우리의 동반자나 부모나 형제 자매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려면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잘 압니다. 우리는 그들의 상처받기 쉬운 곳을 알고 있읍니다. 또한 그들이 우리의 행동으로 어느 정도 상처를 받을 수 있는지 압니다. 많은 사람에게 있어 우리의 가장 친한 친구에게서 상처를 받는 것은 인생에서의 신앙의 시험인것 같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스가랴서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읍니다. 그가 그의 손의 상처를 어디서 받았는가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는 그의 친구의 집에서 상처를 입었느니라."(스가랴 13 : 6 참조)라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슬퍼하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며 주님의 속죄의 희생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닐까요?

한때 리그랜드 리차드 장로는 본의 아니게 휠체어에 앉아 부축을 받으면서 젊은 총관리 역원들에게, "자네들도, 오래 살면 늙는 법이라네."하고 말했읍니다. 나에게는 82세의 노모가 계신데 지난 8년간 불수가 되어 계시고, 화가인 84세의 부친은 시력이 좋지 못해

고통을 받고 계십니다. 나는 두 분을 관찰하고는 그분들이 완전한 불사 불멸의 육신을 받을 때 기쁨을 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현세에서의 고통은 부활 후의 완전한 육신의 축복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갖게 해줍니다. 또 필요할 때 부모님을 도와 드리며 받는 봉사의 기쁨은 서로에 대해 더욱 깊이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고난과 슬픔과 비탄에서 기쁨이 온다고들 합니다. 가끔 우리는 현세의 고난이 영원한 축복을 가져올 수 있음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읍니다. 예수님은 그의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리니 세상이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요한복음 16 : 16, 20)

예수님은 이것을 해산하기 전의 여자의 진통과 괴로움에 비유했읍니다. 하지만 여자는 출산을 하고나면 곧,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요한복음 16 : 21) 않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신 후 땅에 지진이 일어나고(마태복음 27 : 51 참조) 화산의 폭발로 사망과 멸망이 생겼읍니다. 구세주께서 시신이 무덤에 안치되어 있는 동안 영의 세계에 있는 죽은 자들의 영을 방문하신 것에 관한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의 시현에 묘사되어 있는 기쁨에 넘치는 장면을 어찌 그와 같은 고난을 겪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겠읍니까?

"이들은 모두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스러운 부활을 바라는 소망을 굳게 간직하고 현세를 떠난 자들이니라.

"나는 그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해 있으며, 그들의 구원의 날이 임박하였으므로 함께 기뻐하는 것을 보았나니,

"그들은 한데 모여 하나님의 아들이 영의 세계에 오시어 죽음의 사슬에서 풀려나는 그들의 구속을 선언하시기를 고대하고 있었으며,

"그들의 잠들고 있는 육신의 뼈와 근육과 살이 완전한 모양으로 회복되고, 영과 육이 결코 분리되지 않게 결합되어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어 있더라.

"이 수많은 무리가 죽음의 사슬에서 풀려나는 그들의 구원의 때를 기뻐하고 기다리며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어 충실하였던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선언하시더라.

"그곳에서 그는 그들에게 영원한 복음, 그리고 타락에서 구원받고 회개의 조건하에서 개인의 죄로부터 풀려 나는 인간의 구속에 관한 교리를 가르치셨느니라."(교리와 성약 138 : 14-19)

참으로 세상에는 우리를 시험하는 고난이 있읍니다. 온전한 사람인 욥은 사탄의 시험을 받았읍니다. 욥의 친구들은 그의 고난이 죄의 결과라고 여겼읍니다. 그러나 경전에는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욥 1 : 22)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읍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어리석게 원망하거나 또 다른 고난의 원인일 것이라고 가정해서도 안됩니다.

힘을 키워 주는 고난은 "끝까지 견디는"(니파이일서 13 : 37 참조) 우리의 능력을 능가하지 못할 것입니다.

요셉 스미스가 리버티 감옥에 있을 때 주님께 위안을 달라고 간구했으며, 주님은 그에게 위안을 주셨읍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무엇보다도 지옥의 바로 그 턱이 네게 크게 입을 벌려 삼키려 할지라도, 내 아들아, 이 모든 일은 네게 경험이 되고 네게 유익이 되는 줄 알지어다."(교성 122 : 7)

그러한 시련은 만일 우리가 지옥의 바로 그 문이 우리에게 크게 입을 벌려 우리를 삼키려 하는 것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결코 얻지 못할 영성의 발전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살아남아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난을 겪는

동안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성장의 열쇠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위해 봉사하며 희생할 때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몸소 죄를 위하여 모든 구멍에서 피를 쏟는 동안 잠을 잤던 그의 사도들을 용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온전한 모범을 보여 주셨읍니다. 그분은 다만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마태복음 26 : 40)라고 물으셨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받으시면서 그의 어머니를 보살피는 일에 대해 염려하셨읍니다. 죽음의 고통을 당하는 중에도 그분은 옆에서 고통을 받는 자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셨읍니다.(요한복음 19 : 26-27 참조)

내 생애에서 가장 훌륭한 본보기를 목격한 것은 내가 신참 총관리 역원으로 첫번째 임무를 수행하던 때 일어난 것이었읍니다. 총관리 역원 한 분의 부인이 불과 며칠 전에 별세하셨읍니다. 내가 비행기에 올라갔을 때 그분은 앞줄에 앉아 계셨읍니다. 참으로 훌륭한 교훈이었읍니다. 나는 그의 모습을 보고 감명을 받았읍니다.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나갈 수 있을까 하고 자문하면서 그분은 나에게 그가 임무를 수행하러 나가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에 대해 말해 주었읍니다. 그러나 그분은 다른 사람들을 도와 주려고 나갔으며 그가 마음에 상처를 입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을 도와 주었던 것입니다.

고난은 누구나 다 겪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에 어떻게 반응을 보이냐 하는 것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고난은 두 가지 면 중에서 어느 한 면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은 강화되고 정결케 되는 신앙의 경험이 되거나, 그렇지 않고 우리가 주님의 속죄의 희생을 믿는 신앙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우리의 생활에서 파괴의 힘이 될수 있읍니다. 아무튼 고난의 목적은 우리를 복돋아 주고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겪음으로써 순종을 배웁니다. 세상에 나가서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단절되었을 때 슬픔을 체험한 다음에서야 가정에 대한 고마움을 절실히 느꼈던 탕자(눅 15 : 11-32 참조)의 경우처럼 우리는 겸손해져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의 경우에 있어서 고난은 그의 회개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던 것입니다.

고난이 죄의 결과로 오는 경우 그것은 회개에 이르게 되어야 합니다. 앨마는 그의 아들 힐라맨에게 이렇게 간증했읍니다.

"내가 이처럼 지은 죄를 기억하고 고난을 받고 있을 때, 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죄를 구속하시러 세상에 내려오시리라고, 나의 부친이 사람들에게 예언한 말씀을 들었던 일을 기억하였느니라.

"내가 이렇게 생각하였을 때, 다시는 고통을 느끼지 않게 되었음을 기억하노니, 진실로 나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게 되었으며,

"놀라운 기쁨과 빛을 보았나니, 내 영혼은 전에 고통으로 가득 찼던 것처럼, 이번엔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었느니라."(앨마서 36 : 17-20)

우리가 알고 있는 도리대로 생활하려다가 실패와 실수를 여러 번 거듭하고 나면 우리는 자신감을 잃고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장차 어떤 인물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인식이 흐려지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스도의 속죄를 받아들이고 계명을 지키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을 망각할 수도 있읍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첫번째 계명은 신앙입니다. 첫째,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분이 살아 계시다는 신앙,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신다는 신앙,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리라는 신앙,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희생을 믿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왜 구세주의 속죄가 교회서나 우리의 생활에서 중심이 되는 복음 원리로서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수님은 전세에서 하늘 부모에게서 태어나셨으며 하나님 아버지의 장자이셨읍니다. 현세에서는 베들레헴에서 아기로 태어나며 속죄의 희생으로 그의 생애가 끝난다는 것을 모든 경륜의 시대의 고대 예언자들이 예언했읍니다. 다만 그분만이 속죄의 희생을 하실 수가 있었읍니다. 이는 그의 아버지로부터 죽음을 극복하는 권세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죽음을 극복하셨고, 무덤의 힘은 무가치하게 되었으며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요, 중보자요, 부활의 주 즉, 우리 인간에게 구원과 불사불멸을 가져다 주는 도구가 되셨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희생으로 인해 부활하여 불사불멸의 존재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해 공부하고 나서 우리 대부분은 다음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되고"(고린도전서 15 : 22 참조)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에서 쫓겨 난 사실을 쉽게 믿는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같은 방법으로 우리 인간을 데려가실 수 있다는 것은 그렇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인가요?" 경전에는 이에 관해 다음과 같이 명백히 설명되어 있읍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인 것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로마서 5 : 19, 21)

"또한 그는 그의 백성을 얽어 맨 죽음의 사슬을 푸시려 죽음을 당하실 것이요, 육신을 입은 인간의 연약함을 취하시어 자비로 가득차게 하시리니…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구속의 힘으로 그들의 범법을 구제하시려 함이니…(앨마서 7 : 12-13)

"보라 인간이 회개하면 고난을 받지 않게 하려고 나 하나님이 만민을 위하여 이미 고난을 겪었느니라.

"그러나 저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겪은 것같이 고난을 겪어야 하리니"(교성 19 : 16-17)

예수께서 베푸신 사랑에 놀라며
주 내리신 큰 은혜에 나 당황하네
이 죄인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큰 사실을 알 때 맘 심히 떨리네
주 거룩한 보화를 버리고 내려와
나와 같이 오만한 영혼을 살리려
주 하나님 넓으신 사랑을 베푸사
속죄하고 정결케 하여 주시었네
죄값 인해 못박혀 피흘리셨으니
그 자비 사랑 헌신 내 어찌 잊으리
영화로운 보화에 무릎 꿇을때까지
경배하고 찬양을 주님께 드리세
오 나를 사랑하여 죽으신 그일
놀라운 일일세

주님의 업적은 훌륭하셔라!(*찬송가* 114장, "예수께서 베푸신 사랑")

우리가 겪는 슬픔과 고난을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신앙이 강화되어 "우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기를"(요한복음 6 : 20 참조) 기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당신이 어떻게 압니까?"

윌리엄 알 브래드포드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몰몬경은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아야 하는가"를 말해 주며, "구세주의 역할과 필요성을 완전히 이해하도록 해줍니다."

나는 하늘에 하나님이 계심을 확실히 알고 있다고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그분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손이며 그분처럼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읍니다.

그 잠재력이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마련하셨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지상을 창조하시었으니, 지상은 우리의 영이 육신을 입고 태어나는 곳입니다. 우리는 지상에서 가르침과 시험을 경험하게 되며, 또한 우리 내부에 존재하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잠재력을 발전시킵니다. 하나님의 자손인 우리는 이곳에서 아버지 사업의 결실로 성숙하게 되며, 하나님아버지 사업은 불사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모세서 1:39) 것입니다.

그 계획에 따라 우리는 아버지처럼 되는 데 필요한 자원과 지시를 받았읍니다.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아버지가 누리신 영생의 합법적인 상속자가 되며 그 영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 계획을 우리에게 전세에서 가르치셨읍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가 그 계획을 받아들일 것인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가를 스스로 선택하게 해주셨읍니다. 육신을 입고 이 지상에 산다는 사실은 우리가 그 계획을 받아들였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다른 자녀들은 계획을 거부했읍니다. 루시퍼에게 인도되어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대항하고 힘으로 권세와 영광을 얻으려 했읍니다. 그들은 실패했고 아버지의 면전에서 쫓겨 났읍니다. 그들은 육신을 받지 못한 채 지상에 존재합니다. 악마이며 사탄이 된 루시퍼가 아직도 그들을 인도합니다. 하나님같이 될 잠재력을 발전시키는 대신, 그들은 인간이 자원을 잘못 사용하고 지시에 불순종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모든 자원이 아무것도 아니며 필요없다고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향은 죄와 타락을 가져옵니다. 즉, 잘못해서 죄를 짓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주신 지시를 계명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육욕에 좇아 살고 악마같이 되며 타락한 인간이 된 것은 이러한 계명을 어기고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교성 20:20 참조)

"타락한 인간"이란 인간이 죽음에 예속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뜻합니다. 육체가 죽을 때 영체는 하나님 면전에서 분리된 채 계속 살아 있게 됩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죽어서 분리된다고 할 수 있읍니다.

나는 나의 말이 참되다는 것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이것이 사실임을 알고 있는 -들을 귀있는 -자에게 선언합니다. 나는 의심하는 귀를 가지고, 조롱하고 빈정대는 자들에게 담대히 선언합니다. 그들은 노아의 말에 확실한 답을 요구하며 "당신이 어떻게 압니까?" 하며 대어들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읍니다. 나는 또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는 어두운 마음에서 어떻게 그런 걸 알 수 있

느냐고 묻는 사람에게도 내 말이 사실임을 선언합니다.

지금 내 손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약인 몰몬경이 있읍니다. 이 책은 많은 희생, 심지어는 많은 생명까지 희생하여 보존되고 세상에 퍼진 것인데 그것은 바로 아버지께서 그 자녀에게 주신 자원과 지시를 회복한 기적의 일부입니다.

신성한 힘에 의하여 영감을 받고 보호되어 전해진 몰몬경을 갖고 있는 지금—그것을 읽을 수 있는 지금—우리가 알 수 있는 재미있는 점은 이 경전이 전해 주는 두 가지의 중요한 메시지 중의, 하나는 타락한 백성에 대한 기록이란 점입니다.

이 책은 페이지마다 또는 이야기마다 구절마다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읍니다. 또 그분이 하늘과 지구를 지으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며 그분이 아버지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읍니다. 우리는 그분의 형상과 모양대로 태어났고 또 그분처럼 될 수 있는 계획이 마련되어 있읍니다. 그 계획은 아버지께 대항하여 사탄이자 악마가 되어 지상으로 쫓겨 나 거짓과 타락의 아버지가 된 자에게 도전적인 것이었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영체를 지상에 보내셔서 육신을 입게 했으며 지상에서 우리가 원하면 계명을 지킴으로써 아버지의 면전에 돌아가 영광스런 영생에 참여하도록 하셨읍니다. "그러나 이 거룩한 율법을 어김으로써 인간은 육욕에 좇아 살게 되었고 악마같이 되었으며 타락한 인간이 되었느니라"(교성 20 : 20)

그렇습니다, 몰몬경의 주된 두 메시지 중의 하나가 타락된 백성들의 이야기라는 것은 재미있는 일이지만, 문제를 모르면 해답을 모른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임을 알게 되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뀝니다.

그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의 성스런 계명을 어기고 타락한 인간이 되어 죽음을 맛보고 하나님 면전에서 영원히 분리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몰몬경에는 두번째 메시지가 있으니 바로 해답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자의 교리가 우리에게 타락한 상태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 주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그 상태를 극복할 수 있는 완전한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그것이 바로 해결책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중심은 구원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계명을 주셨읍니다. "유일하시고 살아 계시는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 섬겨야 할 이는 이분 뿐이니라."(교성 20 : 19) 이 성스런 계명을 어김으로써 타락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주셨으니,"(교성 20 : 21)

구세주는 지상에 오셔서 사업을 하셨읍니다. 그분은 구원의 계획에 필요한 것을 다 완수하셨읍니다. 그 사업을 통하여 부활이 생겼으니, 즉 영체가 새로와진 육체와 재결합한다는 뜻입니다.

그 사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시 길을 마련하는 속죄였읍니다. 우리가 타락한 인간일지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계명에 순종하면 아버지 면전에 돌아갈 수 있읍니다.

"인간은 이미 타락하여 스스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이 신앙과 회개 등을 바탕으로 저들의 죄를 대속하였으며,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띠를 끊으사 무덤이 승리를 거두지 못하게 하시며 사망의 쏘는 듯한 고통이 소망과 영광 중에 소멸"(앨마서 22 : 14) 되었읍니다.

여러분에게 자신의 자녀인 아들이 있다면 그 잠재력이 최대한도로 발휘되도록 성숙하기를 바라시지 않겠읍니까? 그가 아직 어리고 연약할 때 여러분은 그에게 가르침과 지시와 심지어 계명까지 주시지 않겠읍니까? 그를 해로움과 사악과 심지어 죽음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계명말입니다.

만약 그가 여러분의 가르침과 계명에 불순종하여 혼자 힘으로는 빠져 나올 수 없는 지

경에 있다면, —죽을 지경에 있거나, 도움없이는 다시 여러분에게로 돌아올 수 없는 경우에 있다면—그의 구원을 위해 여러분은 최선을 다하지 않겠읍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며,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타락한 인간의 상태에 있을 때, 아버지께서 구세주를 보내 주셨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졌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없읍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자녀 중에 성스러운 율법을 범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범했다면 그도 타락한 인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구세주가 되었겠읍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며 회개와 순종을 조건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읍니다.

예수님의 확고한 계명이 여기 있읍니다.

"그런고로 내가 너희에게 명하노니, 회개하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나의 종 요셉 스미스 이세의 손에서 받은 계명을 지키라.

"또 너희가 그 계명을 받았음은 나의 전능한 손으로 말미암나니,"(교성 19 : 13-14)

우리는 하나님의 예언자, 회복의 예언자인 요셉 스미스에게서 몰몬경을 받지 않았읍니까?

몰몬경의 니파이 백성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는 우리가 타락의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밟아야 하는 단계에 관한 지시를 더 주셨읍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사람이 어디 있든지 회개하고 나를 믿으라고 명하셨음을 증거하노라.

"누구든지 나를 믿어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왕국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나,

"나를 믿지 아니하고 침례를 받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니삼 11 : 32-34)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발전이 정지된다는 것입니다. 즉, 타락의 상태에 머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말씀하셨읍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는 나의 가르침이요, 아버지로부터 받은 대로 증거하노라. 그러므로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는 것이매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성신을 보내시어 증거하시리로다."(니삼 11 :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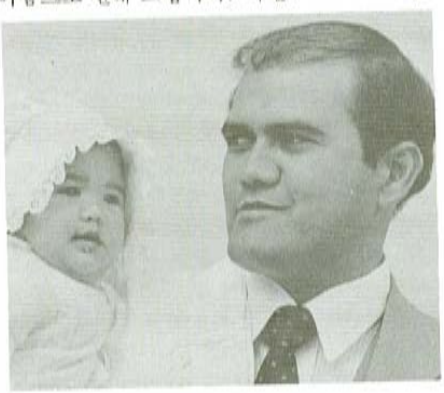
여러분, 다음 질문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아야 하는가를 모른다면 구세주의 역할이나 필요에 대하여 어떻게 알 수 있겠읍니까?"

몰몬경에는 타락한 백성에 대한 기록이 있읍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여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의 죽음과 분리의 상태에 빠지게 되었는가를 말해 줍니다.

몰몬경에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이 담겨 있읍니다. 이것은 우리가 타락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면전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명확히 말해 주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렇게 위대한 증거를 보고도 여러분은 "당신이 어떻게 압니까?" 하고 질문하시겠읍니까?

몰몬경은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아야 하는가를 말해 주며, 구세주의 역할과 필요성을 완전히 이해하도록 해줍니다. 몰몬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성약입니다. 이 모든 간증의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해 드립니다. 아멘. *



변화시켜 주는 힘

리챠드 지 스코트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장단

"우리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고 봉사를 먼저 생각할 때, 복음의 권능이 우리 생활에 일어난다는 것을 나는 확신하고 있읍니다."

나는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장단의 한 사람으로 봉사하라는 부름에 깊이 고개숙입니다. 나는 그것에 관해 주님께 말씀드렸으며, 그 봉사를 위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약속했읍니다. 나는 주님의 뜻과 그의 종들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내가 주님의 영감과 지지를 받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도록 도와 주실 것을 간구했읍니다.

나는 나의 말씀이 이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 중 몇 사람에게라도 유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열심히 기도했읍니다.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뒤에 나는 내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신성한 느낌과 일련의 감동으로 깨닫게 되었읍니다. 내가 이러한 느낌을 효과적으로 전달해서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깊은 감명을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게 되어 여러분들이 절실히 바라는 목적을 이루며 여러분의 생애가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오랜 병고나 외로움으로 괴로움과 자기 연민을 호소하는 분도 있을 것이며, 가정 안에서의 중대한 오해로 고민하고 있는 청소년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아내와 헤어진 남편도 있을 것이고, 사랑과 이해와 협력하는 남편도 없이 혼자 아이를 키우는 어려움을 겪는 홀어머니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특별히 선택된 순종적인 딸로서 꿈에 그리던 영원한 반려자가 스쳐 지나가 버릴 것 같아 매일 염려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어떤 사람이든지 나는 구세주께서는 여러분을 알고 계시며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한 여러분의 특별한 곤경을 알고 계시다는 것을 엄숙하게 간증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사업을 돕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나는 내가 그런 도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와 같은 뜻에서, 나는 누구에게나 영을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하며 유용한 한 가지 진리의 원칙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원칙은 여러분의 인생을 질적으로 변화시켜 주는 힘이 될 것입니다.

그 원칙이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베푸는 희생적인 봉사입니다. 부당한 취급을 받았다고 느낄 때는 남을 도와 주기가 어려울 줄 압니다. 교우 관계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자신이 이해를 필요로 할 때는 그것을 시작한다는 것이 어려울 줄 압니다. 그러나 이러한 봉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를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무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유의지로 우리는 첫 단계를 시작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친절한 봉사는 우리에게 영감과 권능과 힘을 줍니다. 반대로 사랑과 봉사의 빛이 희미하게 사라질 때 우리 주위에는 어둠과 실망이 다가올 것입니다. 쓰라린 마음과 실망이 커지면 결국 불친절과 비난은 증오심이 되고 행동도 그렇게 되어 버립니다.

나는 상담을 구하러 온 한 부부를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아내는 이혼이란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고 남편은 분노에 가득차 있었읍니다. 그들이 교제할 때, 진지하고 생생했던 사랑의 꽃잎은 이미 지고 없었읍니다. 그들을 묶어 주었고 한때는 신성한 유대를 맺어 주었던 신뢰는 산산히 부서졌읍니다. 추악한 이기심이 한가닥 남은 상호 존경의 끈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읍니다. 나는 개별적으로 한 사람씩 만나 말을 들었읍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매우 비슷했읍니다. "저는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짓밟히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남편이 하는 일에 감사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제가 조금이라도 감사를 나타내면 남편은 문제가 다 해결된 것으로 압니다. 저는 다시 불행한 마음이 듭니다."

그들의 문제는 경제적인 것 때문에 더 복잡해졌읍니다. 그들의 말을 개별적으로 들어보고 나는 그들이 각각 고수하고 있는 생각을 만약 이기심없이 나누었으면 경제적 곤란은 해결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읍니다. 나는 두 사람 다 훌륭한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볼 수 있었읍니다. 그들은 진리에의 진실한 갈증, 의를 행하고자 하는 소망, 결정을 내려야 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믿음 등을 가지고 있었읍니다.

남편은 애정과 사랑을 보이려고 정직하게 노력했고 아내를 도우려고 했으나, 그때마다 이런 좋은 느낌은 이기심 때문에 망쳐졌읍니다. 그 자신의 말을 빌면 "아내에게 이용당하고 싶지않다"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이 아이들과 집안 일을 도와 주는 것에 대해 감사하다는 정직한 감정을 숨기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읍니다. 그들은 서로 협력할 용기나 이상을 가지고 있지 않았읍니다.

곤경과 긴장감에 사로잡힌 두 사람은 명확한 생각을 하거나 합당하게 동기를 받을 수가 없읍니다. 그런 사람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가장 훌륭한 원조자는 구세주입니다. 나는 그들이 우리가 토론한 원리를 사용하여 서로 격려하고 협조하고 품성을 높이며 용서하게 되기를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끊어진 대화의 줄을 연결하고, 한때 순수한 사랑과 존경과 신뢰를 표시하던 마음을 되돌리려면 세 가지의 일이 요구됩니다.

첫째, 결혼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원칙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킴볼 태판장님의 많은 메시지에 웅변적으로 언급되어 있읍니다. "결혼" 이라는 그분의 지서에는 주목할 만한 두 가지의 유익한 에가 있읍니다.

둘째, 값있게 살고, 하나님의 계명을 부지런히 따르고자 노력하려는 의지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뜻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으며, 우리의 노력은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 더욱 증대되는 것입니다.

세째, 서로를 격려하는 순수한 사심없는 소망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자기 생활의 분석이 필요합니다. 즉 사랑과 신뢰가 자라고 성숙하며 용서하는 마음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 변화시켜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좋은 점을 인정하고 격려하며 결점과 흠을 크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비판은 흔히 자기 자신의 단점을 합리화하고 영원한 결혼의 성약의 종말을 정당화하려는 생각에 그 원인이 있읍니다.

사랑을 받으려면 남을 사랑하십시오. 이해를 받으려면 남을 이해하십시오. 평화, 조화, 행복을 찾으려면 다른 사람을 격려하십시오.

그러나 이기적인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다면 소망하던 결과를 가져올 수 없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하는 것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의 하는 것을 왼

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마태복음 6 : 1-4)

우리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 때, 우리가 자신은 생각하지 않고 봉사, 고무, 교화, 격려를 먼저 생각할 때, 친절한 행위와 관용과 남을 돕고자 하는 진실한 노력에 대해 보상을 기대하지 않을 때, 우리가 무엇을 받을 것인가, 또는 우리의 짐이 가벼워질 것인가에 대해 염려하지 않고 오직 사심없이 남을 도와 주고자 할 때, 복음의 권능의 기적이 우리 생활에 일어난다는 것을 나는 확신하고 있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시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이런 신성한 경험이 우리의 생활에 권능을 주며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은 "너희가 지극히 적은 것이라도 헌납할 때에는 내게 헌납하는 것이니라"(교성 2 : 38)고 말씀하셨읍니다.

존경과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기 위해 다른 사람을 고양시켜 주는 것보다 좋은 방법은 없읍니다.

최선을 다해 지금 시작하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주님의 권능이 넘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부심이 다시 생기며, 여러분은 다시 자신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활은 풍요롭게 되고, 목적이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위의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테버내클 합창단

여러분은 몰몬경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브르스 알 맥콩키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이 책은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말씀하셨다는 것을 거룩하게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신교 종파 중에서도 가장 세력이 큰 교회의 두 분 목사님들이 내가 하는 말씀을 들고자 연차 대회에 참석한 일이 있었습니다.

모임이 끝난 뒤 그분들과 따로 만나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그분들이 각각 요셉 스미스는 예언자였으며 그를 통해 주님께서는 우리 시대를 위한 충만한 복음을 회복하셨다는 간증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분들에게 몰몬경을 읽고 그 책의 위대하고 영원한 진리를 깊이 생각해 보며, 믿는 마음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간구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책의 진실됨을 성신의 권능으로 알려 주시리라고 말했습니다.

복음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알고 있듯이, 몰몬경은 요셉 스미스가 예언자가 되고 구원의 진리를 분명하고 완전하게 회복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음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몰몬경은 성경에 필적할 만한 성스러운 경전입니다. 이 책에는 하나님께서 고대 미대륙의 주민들을 다룬 기록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약입니다.

이 책에는 충만한 복음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책이 주님께 충만한 복음을 받았던 백성들을 다룬 기록이라는 것을 뜻하며, 또한 모든 사람이 성도를 위하여 마련된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기 위하여 믿고 행해야 할 것들이 요약되고 자세히 설명되어 있음을 뜻합니다.

모세와 이사야와 베드로의 가르침과 간증이 성경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듯이, 니파이와 엘마와 모로나이의 가르침과 영의 인도하심을 받은 간증의 말씀이 몰몬경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읍니다.

미대륙에서의 그리스도의 증거는 금판에 기록되어 천사의 손으로 요셉 스미스에게 전해졌읍니다. 이 고대 기록은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번역되어 몰몬경으로 세상에 나와 있읍니다.

이 책이 주장하고 있는 바 그대로라면, 원래의 기록이 거룩한 천사에 의하여 나타나,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로 번역되었다면, 요셉 스미스가 천사를 만나고, 시현을 보고, 계시를 받았다면, —이 모든 것은 이미 진실성이 입증되었읍니다; 몰몬경이 참되다면—바로 그러한 몰몬경의 진실됨과 신성한 본질은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이 위대한 말일의 사업의 진실성을 그대로 입증해 줍니다.

이상과 같은 사실을 나는 두 목사님들에게 말씀드렸읍니다. 그 중에서 성품이 원만하고 좋은 한 사람은 다소 무심결에 몰몬경을 읽어 보겠노라고 말했읍니다. 다른 목사는 안 좋은 내색을 하며, 이렇게 말했읍니다. "나는 읽지 않겠소. 우리는 몰몬경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을 두고 있소. 나는 우리 전문가들이 평한 것을 읽었오."

이 이야기는 몰몬경의 메시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내 주고 있읍니다. 이 성스런 기록에 관하여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듣기만 할 뿐 스스로 이 책을 읽지 않는

사람들을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읍니다.

그들은 생명수가 흐르는 깨끗한 샘물가에서 물을 마시려 하지 않고, 저 아래로 내려가 세상의 독이 섞인 더러운 물을 마시려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 점에서 구원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몰몬경이 참되다면—즉 몰몬경이 경전이며, 그 책 속에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주의 뜻과 생각과 음성이 들어 있다면, 그 책이 요셉 스미스의 예언자의 부름을 거룩하게 증거한다면—그 책을 받아들이고 그 교리를 믿음으로써 구원받게 되고, 그것을 거부하고 그 가르침이 반대되는 생활을 한다면 저주받게 됩니다.

이 메시지가 모든 사람의 귀에 천사의 나팔소리로 울리게 합시다. 결코 끊이지 않는 천둥소리로 이 지상을 울리게 합시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서 작고 고요한 음성으로 속삭이게 합시다. 몰몬경을 믿고 요셉 스미스를 예언자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의 문을 얻게 되며 그 책을 거부하거나 그 메시지를 알지 못하고 그 가르침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영생으로 인도하는 곧고 좁은 길을 따라가는 여행을 처음부터 시작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두 목사와 얘기를 나눈 후 얼마 뒤에 같은 교단의 다른 두 목사가 내가 전하는 말씀을 듣기 위해 또 다른 우리 연차 대회에 참석했읍니다. 그리고 역시 모임이 끝난 후 나는 이 두 분과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었읍니다.

내가 드린 메시지는 전과 같았읍니다. 그들은 몰몬경을 그들의 안내자로 삼아, 이 위대한 말일의 사업의 진실성과 신성성에 관해서 성령으로부터 증거를 받기 위해 읽고, 생각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나는 그들에게 전에 있었던 다른 두 목사와의 경험을 이야기 하면서, 그 중 한 목사가 자기 교회에는 그 책을 읽는 전문가가 있으며 그는 그 전문가가 평한 것을 읽었다고 말하면서 몰몬경을 읽기를 거절했다는 말을 했읍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했읍니다. "두 분께서는 전문가의 평에 의존하지 말고 몰몬경을 직접 읽어 보시고, 그 속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알아보지 않으시렵니까?"

그 중 한 목사는 내가 들고 있던 몰몬경을 받아 들고 페이지를 죽 넘기며 눈으로 잠시 훑어 보았읍니다. 그렇게 한 다음, "몰몬경을 다 읽었읍니다."라고 말했읍니다.

그 순간 나는 그 목사님이 읽었다고 한 것은 페이지를 죽 넘겨 보는 겉핥기식이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읍니다. 그가 읽어 보았다고 하는 뜻은 제목이나 훑어 보고 여기 저기서 몇 구절씩 읽어 본 것에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

부친이 위에서 말씀드린 네 분의 목사들과 같은 교파의 목사였음에도, 우리 교회로 개종한 한 아름다운 숙녀는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 것을 듣고 있었읍니다. 바로 이때에 그녀가 일어나 말을 했읍니다. "그렇지만, 목사님, 그 책에 대하여 기도해 보셔야지요."

그 목사는 이렇게 대답했읍니다. "물론 기도했읍니다. 나는 '하나님, 몰몬경이 참되다면, 나를 축여 주십시오. 여기 제가 있읍니다." 하고 기도했읍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답변하려는 충동을 받았읍니다. "그러나 목사님,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몰몬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성신의 권능으로 약속된 증거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몰몬경을 읽어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데서 발생하는 또 다른 문제점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읍니다.

올리버 카우드리도 이러한 경험을 했읍니다. 그는 요셉 스미스의 서기로 일하는 것 뿐만 아니라 금판에서 직접 번역하는 것을 원했읍니다. 오랫 동안 기도하고 나자 주님은 카우드리 형제에게 번역할 것을 허락하셨읍니다.

주님은 이러한 조건으로 허락하셨읍니다. "신앙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음을 잊지 말지니, 그러므로 신앙으로 구하라. 이러한 것

들을 가벼이 여기지 말며 구해서는 안될 것을 구하지 말라……그리하면 네 신앙에 따라 네게 이루어 지리라."(교성 8:10-11)

올리버는 번역해 보려 노력했으나 실패했읍니다. 그러자 주님의 말씀이 임했읍니다. "보라, 너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나니, 깊이 생각지도 아니하고 구하기만 하면 내가 그것을 네게 줄 것으로 여겼도다." 즉, 그는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으며 자신이 구하기만 하면 모두 다 해주시리라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네게 이르노니," 하고 주님의 말씀은 계속되었읍니다. "너는 네 마음속으로 깊이 연구하여야 하리니, 그리한 연후에 옳은 일인지 아닌지 내게 간구하여야 하느니라. 만일 옳은 일이면 나는 네 가슴을 뜨겁게 하리니, 그로 인하여 그것이 옳은 일인 줄 느끼리라."(교성 9:7-8)

몰몬경이 참되다면,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가장 높은 영광의 하늘로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사실이 그렇지 않은 것을 참되다고 말한다면, 우리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이니 지옥의 나라로 떨어짐이 지극히 마땅합니다.

말일성도에 대하여 논란을 벌이거나 흥지 않게 욕하던 시대는 이미 오래 전에 지나갔읍니다. 이러한 것은 깊이있게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거룩한 것을 가볍게 여기고서 공평하신 하나님의 분노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몰몬경이 참되지 않은 것이라면, 그릇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지옥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책은 모든 사람이 순수한 경전으로 받아들여야만 하며,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그들의 영혼을 잃게 되리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읍니다. 그것이 단순히 종교적인 논문이 아니며 그렇게 될 수도 없읍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오지 않았으면 지옥에서 온 것입니다. 지금은 구원을 찾는 모든 사람들이 그 책이 주님의 것인지 아니면 루시퍼의 것인지 스스로 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나는 감히 시험해 보시고 목표로 삼으시기를 제언합니다. 이 시험에 응하는 모든 분들이 성경 지식을 갖고 계시다면 더욱 바람직할 것입니다. 성경에 대해 많이 알면 알수록 몰몬경의 진가를 더욱 잘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험은 성도와 회인을 위한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교도, 속박된 자거나 자유인이거나, 검거나 흰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경전을 상고하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라는 명령을 받았읍니다.(교성84:44 참조) 바로, 이러한 시험입니다.

각자가 의식적인 노력으로 복음 지식의 전 분야를 다루는 100개 내지 200개의 교리 주제를 작성해봅시다. 선택된 주제의 수는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좌우될 것이며 그 범위도 주제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 다음 백지 한 장에 각 주제를 쓰십시오. 그 종이를 두 칸으로 나누어 한쪽 위에는 "몰몬경"이라 쓰고, 다른쪽에는 "성경"이라고 쓰십시오.

몰몬경의 첫장 첫구절로부터 시작하여, 깊이 생각하며 한 절 한 절씩 읽어 나가며 합당한 제목 밑에 각 절의 내용을 써 넣어 보십시오. 신구약 성경에서도 같은 교리를 찾아보고, 그것을 옆 칸에 나란히 써 보십시오.

여러분이 배운 진리를 깊이 생각해 보면, 머지 않아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대속의 원리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리하이와 야곱이 바울을 능가하며, 신앙과 거듭남에 대한 앨마의 설교는 성경의 어느 구절보다 뛰어나며, 이스라엘의 분산과 집합에 대하여는 니파이가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에스겔, 세 사람을 합친 것보다 더 잘 설명해 주고 있으며, 신앙, 소망, 사랑에 대한 몰몬의 말씀은 바울도 따를 수 없는 확실성이나 깊이와 표현력을 지니고 있읍니다. 그밖에도 많이 있읍니다.

진리를 알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치를 수 있는 또 다른 더 간단한 시험이 있읍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믿음과 열린 마음으로 읽고, 생각하고, 기도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읽고,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에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하여, "인간이 과연 이 책을 쓸 수 있는가?" 하고 수없이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질문을 처음부터 수없이 자문해 볼 때 언젠가는 모든 진실되고 참된 진리의 탐구자는 성령의 권세로 몰몬경이 참되며, 이 세대의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의 생각과, 뜻과, 음성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임을 분명히 보장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몰몬경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누가 그 놀라움과 가치를 말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그 구원의 메시지를 사악한 세상에 전하고 보이기 위해 육체적인 죽음을 당했읍니까?

우리는 이렇게 답변할 수 있읍니다. 그 책은 거룩한 책, 성스런 구원의 경전입니다. 그것은 티끌에서 외치는 소리요,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끝없는 망각의 세계로 가라앉았던 타락한 백성들에 관해서 말하는 땅속에서 나온 속삭임입니다.

그것은 외로움이 하늘에서 내려다 볼 때 지상에서 솟아나오는 진리입니다. 그것은 에브라임의 손에 들린 요셉의 막대기로, 열 지파를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을 그들의 선조들이 경배한 하나님께 되돌아오도록 인도해 줄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집합시켜, 그들의 선조의 시대에 그러했듯이, 이스라엘의 산 위에 다시금 하나의 국가를 세우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담겨 있읍니다.

그것은 다른 우리에 있던 양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얼굴을 보고, 그의 음성을 들고, 그의 말씀을 믿는 시대에 그들에게 행하신 하나님 아들의 성역의 기록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말씀하셨음을 신성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책의 주요한 목적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신앙으로, 모든 시대와 모든 백성들에게 친히 나타내어 보이신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시대에 주어져 세상 사람들에게 성경은 참되며, 대속을 이루신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주님이시며, 요셉 스미스는 고대의 예언자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으며,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구원을 찾을 수 있는 이 지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곳임을 입증해 줍니다.

그것은 세상을 구원하며 인간들에게 현세에서의 기쁨과 평안을 그리고 영원한 세상에서의 영생을 준비시켜 줄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나는 성신이 내게 계시하여 주심으로 몰몬경이 참되다는 것을 알게 된 많은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모든 사람이 심판받게 될 위대하신 여호와의 심판대 앞에서 증거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알고 있읍니다. 나는 주께서 살아 계시듯이 몰몬경이 참됨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전진해 나갑시다.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 2 보좌

"복음의 표준대로 생활하고…교회 안팎에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슴속에 심기 위해…좀더 노력"하겠다는 결심을 합시다.

형제 자매 여러분, 킴볼 대관장님이 대회를 마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읍니다만 노령으로 건강이 좋지 못하시여 그것이 힘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분의 말씀을 진실히 듣고 싶어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여러분에게 만족을 줄만한 대리인이 못된다는 것도 알고 있읍니다. 대관장님과 톰니 부대관장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 것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들을 뵙는 것만으로도 마음에 감명을 받고 있읍니다.

이번 대회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시간이였읍니다.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셨읍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할 많은 이유가 있읍니다. 우리의 간증이 새롭게 되었으며 신앙은 더욱 강해졌읍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총관리 역원의 훌륭한 권고의 말씀을 들었읍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성도의 벗에 실릴 대회의 말씀을 읽고 다시 유익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사랑하는 아들에 관해 성신의 권세로 증거하였읍니다. 그와 같은 권세로 그들은 에언자 요셉 스미스에 대해서, 그리고 주님의 종으로서의 그의 신앙과 근면과, 부름을 통해 주어지는 것에 관해 말씀했읍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우리의 가족과, 생활과, 관심사에 관해 권고의 말씀을 들려 주었읍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들은 것들을 우리의 생활 및 가정에 적용시킴으로써 더 강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 관해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대회에서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에 관해 언급했읍니다. 그들은 우리가 가장 거룩하게 여기는 것을 조롱하고 있읍니다.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계시로 전해 주신 것을 비웃고 조소합니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에게는 성스러운 것에 피해를 주면서까지 농담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성격상에 큰 결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재미로 그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나 비웃는 자들은 부끄러운줄 알아야 합니다. 이웃 사람이나 사회의 친구들이 성스럽게 여기는 것을 품위있게 존경해 주는 것은 기본적인 예의가 됩니다.

주님은 몸소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위에서 오는 것은 거룩한 것임을 기억하라, 또 신중히 그리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말해야 함을 잊지 말라"(교성 63 : 64)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를 일컬어 기독교인이 아니다라는 대단히 모욕적인 논쟁을 하면서 신앙심이 약한 사람들을 약화시키고 손상시키고 실족케 하기를 그들의 사명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더러 있읍니다.

이러한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조용하게 두 가지의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이와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추종자 즉 사랑과 자비와 동정심의 본보기였던 그분을 따르는 자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해하려 하겠읍니까?

둘째, 우리는 단지 우리가 맺은 결실로 심판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찌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 7 : 16-18,20)

그러한 표준에 따라 우리는 기꺼이 심판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겪고 있는 것보다 더 심한 공격을 받고 있었을 때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님은 이 태버내클의 바로 이 연단에 서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읍니다.

"우리는 자비와 축복을 주신 주님의 사업을 맹렬히 반대해 온 사람들에게도 다소간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가한 그들의 반대와 쓰라린 투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힘과 지혜를 키워 주셨고 그의 백성들이 이 세상의 현명한 사람들에게 더 잘 알려지고 호의를 받게 하셨읍니다. 주님의 사업을 반대해 온 사람들이 사용한 바로 그 수단을 통하여 시온을 위해 좋은 결과를 이룩하셨읍니다. 그렇지만 "실족케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케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듯이, 나는 그것이 사실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처럼 주님의 손에 달렸읍니다. 우리는 그들을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게 다스리도록 주님의 손에 기꺼이 맡깁시다. 우리의 사업은 지상에서 예언자 요셉을 통하여 산 자의 구원은 물론 죽은 자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께서 나타내 보여 주신 의로움을 실천하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길과 그의 위대하고 영화로운 진리에 관한 지식의 발전을 추구하는 것입니다."(복음 교리, 18장, 306페이지)

이제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먼 곳에서 오셨다 돌아가시는 분들과 인공위성 중계, 텔레비전 및 라디오를 통해 이 대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다음과 같이 결심합시다. 즉 대회 기간 중에 들은 복음의 표준대로 살기 위해 우리 모두 좀더 노력합시다. 비난하며 부정적인 태도를 갖지 않도록 노력합시다. 세상에서 선한 것을 구합시다. 남에게 고용되어 있는 우리는 하고 있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재능을 정직하게 바치도록 합시다. 교회 안팎에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슴속에 키우도록 합시다. 부부는 모든 면에서 서로 충실하고, 모든 남편과 신권 지도자들은 그의 배우자와 자녀들을 사랑과 존경으로 대하여야 합니다. 가정에서 가족 기도를 하여 그것이 일상 생활의 습관이 되게 합시다. 모든 사람을 정직하게 대하며, 겸손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합시다. 이러한 것을 나는 겸손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나는 소년 시절에 이 태버내클에 앉아 히버 제이 그랜트 대관장님의 말씀 듣던 때를 기억합니다. 다음 구절을 읽는 그의 음성은 확신에 가득 차 떨렸읍니다.

"얼마 동안이나 흐르는 물을 흐리게 할 수 있으며 어떠한 힘이 여러 하늘의 운행을 막을 수 있으랴. 어느 사람이 연약한 팔을 펴서 하나님이 명하신 수로를 따라 흐르는 미주리강의 흐름을 막아 이를 되돌려 보낼 수 있으랴. 만일 그같이 할 수 있을진대 전능하신 이께서 말일성도의 머리 위에 하늘에서 지식을 붓아 부으심을 막을 수 있으리라."(교성 121 : 33)

나는 그랜트 대관장님이 그 구절을 읽는 것을 들었을 때 그것을 믿었읍니다. 나는 그 말씀을 지금도 믿고 있읍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지금도 의심치 않고 이 일은 하나님의 사업이라는 것과 그분은 놀랍고 기이한 방법으로 이 백성들에게 축복을 부어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약 일주일 전 저녁에 이 태버내클에서 교회의 여성을 위한 큰 모임을 가졌읍니다. 이 태버내클 외에도 수만 명이 600개 이상의 다른 건물에 모였으며 그 모임의 순서가 인공위성을 통해 중계되었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헌신하며 그들의 가슴에

신앙을 품고 나아가는 백만 명 이상의 훌륭한 여성들의 이 위대한 자매애를 보여 주는 것을 놀라움과 경이로움으로 생각했읍니다. 어머니들이 품고 있는 가장 큰 소망은 주님을 사랑하며 기꺼이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길을 따르려는 충실한 아들과 딸들의 세대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어제 저녁에는 이곳에서 교회 신권을 소유한 수만 명의 형제들이 모임을 가졌는데 그들은 사전에 모임의 순서가 전달된 600개의 스테이크 센터는 물론 1153곳 이상의 전세계 도처에서 모여 들어 참석하였읍니다. 나는 다시 내 자신에게 이렇게 다짐해 보았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백성을 위하여 이루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가." 우리 함께 감사합시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갑시다. 두려움없이 나아갑시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서한에 들어있는 이 위대한 말씀이 마음에 떠올랐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네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딤후 1 : 7-8)

여러분에게 그 놀라운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네가 우리 주의 증거…를 부끄러워 말고"

나는 모로나이가 오랜 기간 동안 고독하게 방황한 후에 기록한 말씀 중에 나오는 이 목표를 전해 드리면서 이 위대한 대회를 끝맺고 싶습니다. 그는 그의 기록이 세상에 나올 이 날을 내다보며 이 위대한 책임을 우리 세대에게 주셨읍니다.

"깨어나 티끌에서 일어나라 예루살렘이여. 오 시온의 딸아 너의 아름다운 옷을 입으며 너의 말뚝을 견고하게 하고 그 경계를 영원히 넓혀 다시는 흩어지지 않도록 하고, 오 이스라엘의 백성들아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너희들과 더불어 맺으신 언약이 성취되게 하라.

"참으로 그리스도께로 나아와 그 안에서 온전하게 되며, 경전하지 아니한 모든 것을 부인하라."(모로나이서 10 : 31-32)

우리 모두가 함께 이 모임에서 감동적인 찬송가를 불렀을 때 나는 가슴속으로 이 백성들의 신앙에 관해 큰 감동을 받았읍니다.

"나 너 함께 하고 근심 덜어 주며 네 깊은 곤경을 불태워 없애리 네 깊은 곤경 불태워 없애리."(굳도다 그 기초, 찬송가, 16장)

나는 여러분께 나의 간증을 전해 드리며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께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나는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 계심을 압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며 인류의 구세주며 구속주이심을 알고 있읍니다. 이 일은 주님의 사업이라는 것과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시며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음을 압니다. (엡 2 : 20 참조) 나는 이러한 것들을 알고 있으며 여러분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지식으로 정직하고 감사하는 마음과 신앙을 품고 생활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히 전해 드립니다. 아멘. *

여러분의 유산에 맞게 생활하십시오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 2 보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의 자매들에게 그의 왕국을 세우는 데 필요한 일을 맡기셨읍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된 것은 큰 특권이요 영예입니다.

나는 이 모임이 교회 역사상 소집된 가장 큰 자매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큰 태버내클이 가득찼읍니다. 그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육백 개 이상의 스테이크 센터에 자매들이 모여 있으며, 다른 많은 사람들은 가정에서 텔리비전으로 시청하고 있읍니다. 이처럼 많은 자매님들이 모이신 것을 보고서 "미용사들이 돈을 많이 벌었겠다."는 생각이 들었읍니다.

나는 때때로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학교에 다니는 자매님들은 자신이 다니는 큰 학교에서 말 일성도는 두 세 명밖에 안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회에 진출한 직장 여성들은 직장에서 우리 교회 회원은 자기밖에 없음을 알게 될 수도 있읍니다. 미망인이거나 이혼한 여성은 자신이 혼자라고 느낄 수도 있읍니다. 오늘 저녁 이 모임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큰 여성 단체에 속한 분입니다. 이 단체에는 약 이백만 명의 자매들이 있읍니다.

이렇게 큰 회중에는 열 살 이상의 모든 여성이 포함됩니다. 나는 열 살이 포함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열 살은 아주 중요하고도 아름다운 시기입니다. 천에는 어리광만 부리는 듯 하던 어린 아이가 조금씩 아름답고도 우아한 세련된 영향을 보이기 시작하는 나이입니다. 그 시기는 봄에 따뜻한 햇빛을 받고 피어나는 꽃과도 같은 때입니다. 그 시기는 정신적이며 육체적인 힘이 깨어나는 때이며 소년기와 청년기 사이의 과도기입니다.

여러분은 위대한 예언자이며 역사가인 몰몬이 그의 나이 겨우 열 살이었을 때 그 거룩한 기록에 관한 책임을 부여받았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가 오늘날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거룩하고도 놀라운 성약이 담긴 이 책은 몰몬이 그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 결과로 나온 것입니다. 열 살의 중요성을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린 소녀는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요? 설탕과 향신료, 모든 좋은 것으로 되어 있답니다." 이런 옛 동요가 있읍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은 곧 미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그들을 통하여 과거 세대의 모든 품성이 여과되어야 하며, 이는 앞으로 올 세대의 살과 뼈가 되며 마음과 정신이 될 것입니다.

내 모든 확신과 힘을 다해 어린 소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상냥하고 착하며, 진실하고, 덕성스러우며 훌륭한 여성이 되십시오. 주님께서 "너희가…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18 : 3)고 하신 말씀속에는 여러분도 포함시키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능이 풍부한 저술가이며 극작가인 챈닝 풀록은 그의 등장 인물중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 늙은 상태로 태어나서 점점 어린 아이가 되어 죽음에 이를 때까지 점점 어려지고 더욱 더 순진 무구해지기를 바란 적이 있읍니다.

다음으로 나는 소년기와 청년 초기를 지나

십대 후반과 이십대 전반의 성숙기로 접어든 젊은 자매 여러분에게 몇마디 말씀드리고 싶읍니다. 여러분에게 이 기간은 힘을 갖추는 시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 때는 육신과 정신의 단련이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지금은 준비하는 시기이며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준비가 갖추어져 있으면 무서워 하지 않게 되리라."(교성38 : 30)라고 말씀하셨읍니다.

지금은 교육을 받을 시기입니다. 여러분 앞에 닥칠 사회는 경쟁이 극심할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장차 받게 될 책임을 대비해 자신을 단련할 때입니다.

교육은 과거의 초기 역사로부터 이어온 전통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젊은이, 곧 남자와 여자에게 다같이 교육이 필요함을 믿습니다. 브리감 영 대관장은 다음과 같이 말씀한 적이 있읍니다. "우리 주위에는 공부할 특권만 있다면 어느 남자 못지 않게 훌륭한 수학자나 회계사가 될 수 있는 자매들이 여기 있읍니다."(설교집, 13 : 61)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마음과 손을 훈련시킬 많은 기회가 있읍니다. 여러분은 훌륭한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미래를 내다볼 수는 없읍니다.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스스로 준비하십시오. 여러분의 뜻에 맞지 않는다면 대학에 갈 필요는 없읍니다. 장차 여러분이 책임맡은 일을 하며 기술을 단련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훌륭한 전문대학이 전국에 있읍니다.

여러분이 다 결혼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받은 교육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독신이든 기혼자이든 축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활에 합당하게 되도록 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나이는 그 합당함을 지니기 위한 힘이 필요한 때입니다. 세계 역사상 지금처럼 타락과 죄와 후회로 이끄는 유혹적인 세력이 이처럼 다양하게 밀어닥친 때는 드물었읍니다. 외설물을 파는 상인과 음란한 오락물을 만드는 사람들은 그 미혹케하는 상품과 더불어 지옥에 비교할 만큼 간교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에게 결국 슬픔과 후회와 번민을 가져다 줄 덫으로 이끌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쉬지말고 덕으로써 네 생각을 장식하라."고 말씀하신 다음 이렇게 약속하셨읍니다. "그리하면 주의 면전에서 네 신임이 두터워지리니…

성신은 변치 않는 네 동반자가 되며…, 네 다스림은 영원한 다스림이 되어 강제당하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네게로 흘러 들어가리라." (교성 121 : 45-46)

나는 사십여년 전에 대관장단에서 발표한 말씀을 전합니다.

순결한 생활을 하는 여성은 얼마나 영화롭습니까. 그녀는 한 낮의 찬란한 햇빛에서도 두려움없이 걸으니 도덕적인 결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녀에게는 비열한 충상의 말이 통할 수 없으니 그녀가 입은 갑옷은 조금도 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덕성은 어떠한 공의로운 고소자도 흠잡을 수 없으니 그녀는 비난받을 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부끄러움으로 빨이 달아 오른 적이 없으니 숨긴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모든 사람에게서 영예와 존경을 받으니 그들은 비난받을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주님의 사랑을 받으니, 흠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승영의 나라에서 그녀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읍니다. (1942년 10월 3일, 대관장단 메시지 참조, 히버 제이 그랜트, 제이 루벤 클라크 이세, 데이비드 오 맥케이.)

지금 이 자리에 실족한 사람이 있다면 진실로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용서가 주어진다는 것을 확신해 드리고 싶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회개하여 성실한 자세로 선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실 것입니다.

나는 지금 결혼하신 분들에게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읍니다. 나는 여러분께서 주님의 집에서 결혼하셨으리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의 자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께서는 그들을 위해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특권을 주셨으니 그것은 모든 관계 중에서도 가장 고귀한 영원한 인봉입니다.

이처럼 귀중한 축복을 받은 분들에게는 이에 합당한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충실하다는 것은 여러분이 한 신전 맹세와 성약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의 배우자와 자녀에게 충실하고 엄숙한 성약을 맺은 하나님께 충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지 않습니다. 스스로 맺은 성약을 지키시고 주님의 신성한 계명에 순종하여 생활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약속은 영광스럽고도 놀라운 것입니다. 그에 따르는 책임감은 결혼 생활을 복되게 하며, 가정에 신성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 결합으로 얻은 자녀들을 더욱 고귀하게 만들 것이며 삶의 평안과 축음의 위안을 줄 것입니다.

나는 이 많은 회중 가운데에는 신전 결혼할 기회를 받지 못하고, 남편이 교회 회원이 아니거나, 스스로 주님의 집에 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한 분들에게 나는 인내심을 갖고 기도하는 생활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불평하고 싶은 마음을 자제하십시오. 여러분의 일상 생활의 태도를 보고 여러분의 배우자가 복음으로부터 오는 선함과 덕성과 힘을 느낄 수 있게 하십시오.

나는 50년 전에 알았던 어느 가족을 기억합니다. 그 아내는 교회의 충실한 회원이었읍니다. 남편은 회원이 아니었읍니다. 그는 담배를 피웠고 술을 마셨읍니다. 그녀는 소망을 갖고 기도드렸읍니다. 그녀는 남편의 마음이 주님의 영의 감동을 받을 날을 바라며 살았읍니다. 여러 해가 흘러 10년도 더 지났읍니다. 그녀는 기쁜 마음으로 선과 신앙의 모범을 보여 주었읍니다. 여러 해가 지나면서 남편의 마음은 부드러워지기 시작했읍니다. 그는 교회가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 한 일을 보았읍니다. 그는 자신을 돌이켜 겸손해졌으며 침례를 받았읍니다. 그 이후로 그는 정원회 회장, 감독, 선교사, 신전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봉사해 왔읍니다.

여러분이 계속 노력하기를 그치지만 않는다면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보이는 모범은 어떤 식의 설교보다도 더욱 설득력이 강하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헌신적이고도 훌륭한 가정 주부이신 여러분에게 참으로 따스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치하드립니다. 나는 "가정 주부"라는 말만으로도 존경심을 표합니다.

나는 윌 스트리트 저널에 "세상에서 가장 창조적인 일"이라는 제목의 이 글을 인용합니다.

"이 일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되니 곧 취향, 유행, 장식, 오락, 교통, 심리학, 낭만, 요리, 도안, 문학, 의학, 수공예, 미술, 원예, 경제학, 행정, 이웃 관계, 소아과, 노인병학, 접대, 가족 부양, 구입, 우편물, 법률, 회계, 종교, 에너지 문제와 경영입니다. 모든 것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라면 특별한 사람임에 틀림없읍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니, 바로 가정 주부입니다." (1983년 6월 3일)

이번에는 미혼이신 자매님들께 말씀드립니다. 만일 모든 여성들이 헌세와 영원을 위한 동반자로서 참으로 사랑할 만하고 도와주고 존경할 만하며, 또 기쁨과 자랑으로 바라 볼 수 있는 훌륭한 남자와 결혼할 특권을 갖는다면 이 세상은 아주 아름답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일이 항상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루 다 표현 할 수 없는 어떤 이유로 결혼할 기회를 갖지 못한 분들이 있읍니다. 그러한 분들에게 나는 자기 연민이란 황무지를 배회하면서 자신의 시간과 생활을 낭비해 버리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어떤 재능을 주셨읍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채워 주며 친절과 관심으로 그들의 생활을 축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읍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십시오. 바깥 사회에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읍니다.

지식에 지식을 더하십시오. 선택한 교육 분야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기술을 닦아 나가십시오. 여러분이 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면 기회는 얼마든지 있게 됩니다. 지금은 영예로운 직업 전선이 거의 모두 여성에게 개방되어 있읍니다. 여러분이 독신이라고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여러분을 필요로 하고 있읍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여러분의 힘과 지혜와 재능을 필요로 하고 있읍니다.

기도하는 생활을 하시고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그러나 배우자를 찾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그런 생각은 다만 여러분의 매력을 감소시키거나 표준을 약화시킬 뿐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생활을 하십시오. 그러면 위대한 지혜와 영생을 지니신 주님께서 여러분이 하는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가정에 있고자 하나 사회에서 일해야 하는 자매님들께 잠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여러분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여러분 중에는 돌보아야 할 자녀가 있는데도 이혼하게 된 분들도 있읍니다. 또 미망인으로서 부양할 가족이 딸려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성실하고도 자립심을 지닌 여러분을 존경하며 경의를 표합니다. 나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힘과 커다란 능력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은 가족을 부양하는 일과 가정 주부의 역할을 하는 두 가지 책임을 지고 있읍니다. 나는 그 일이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때로 실망을 느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어머니 만이 줄 수 있는 특별한 인도와 사랑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특별한 지혜와 뛰어난 재능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가족과 친구와 교회로부터 여러 면에서 도움을 받아 여러분의 어깨에서 짐을 어느 정도 덜어서 여러분이 처한 어려운 시기에 도움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때때로 능력의 한계를 초월하는 문제에 대처하여 그것을 극복하고자 노력하면서 엄습해 오는 고독감과 좌절감을 조금이나마 짐작할 수 있읍니다. 때때로 여러분의 식탁에 음식이 필요할 때는 주님께서 그의 교회에 마련하신 위대한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되는 식량과 물품을 가지고 감독님이 그 곳에 가시어 도움을 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에게 그보다 더 필요한 것은 이해와 인정과 이웃간의 사랑이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이러한 덕성을 발전시키도록 좀더 열심히 노력할 것이며,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처지에 있는 자매들에게 이처럼 보다 못한 환경에 처한 자매들에게 더욱 큰 관심을 보이기를 촉구합니다.

나는 이제 직장에 다닐 필요가 없는데도 직장에 나가 일하면서 자녀들을 돌보는 일을 대개 서툴은 대리인일 뿐인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는 분들에게 주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뒤에 후회하게 될 관례에 따라 행하지 마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매일 직장에서 일하는 목적이 단지 보우트나 멋진 자동차 또는 갖고 싶기는 하지만 꼭 필요하지 않은 어떤 것을 위해 돈을 버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자녀와의 친밀한 관계를 잃고 자녀를 양육할 기회를 잃는다면, 여러분은 부수적인 것은 손에 쥐게 되나, 본질적인 것을 잃게 되리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나는 교회의 모든 자매님들에게 한 가지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읍니다. 나는 우리가 지상에 올 때 우리가 바라는 대로 남자나 여자로 태어나기를 선택했다고 말하는 교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 선택은 무한히 지혜로우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시는 것 못지 않게 딸들도 사랑하시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해롤드 비 리

대관장님은 신권이란 하나님께서 남자를 통하여 행하시는 권능이라고 말씀한 적이 있읍니다. 나는 이에 부가하여 모성이란 하나님께서 종족 계승을 위한 그의 장대한 계획을 추진시키는 방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읍니다. 신권과 모성은 모두 주님의 계획에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서로 상대를 보완해 줍니다. 서로 상대를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개인적인 능력과 잠재력에서 서로 독특한 특징을 지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읍니다. 여성은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사람이며 남성은 가족을 부양하고 보호하는 사람입니다. 어떠한 법률도 성의 역할을 변경시킬 수 없읍니다. 법률은 평등한 기회와 평등한 보상과 평등한 정치적인 특권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것을 중성화 시키려는 법률은 이익보다는 더 큰 문제를 초래할 것입니다.

나는 진심으로 우리가 권리에 대해서 보다는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의 자매들에게 그의 왕국을 세우는 데 필요한 일을 맡기셨읍니다. 이 일은 우리의 세 가지 위대한 책임에 대한 전반적인 것과 관계가 있읍니다. 첫째는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며 둘째는 교회 회원의 신앙을 강화하고 행복을 증진시키는 일이며 셋째로는 죽은 자를 위한 구원의 위대한 사업을 추진시키는 일입니다.

지금은 힘을 내야 할 시기입니다. 나는 모로나이가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나타날 그의 기록을 인봉하면서 쓴 감동적인 말씀으로 결론을 맺읍니다.

"깨어나 티끌에서 일어나라. 예루살렘이여, 오 시온의 딸아 너의 아름다운 옷을 입으며 너의 말뚝을 견고하게 하고 그 경계를 영원히 넓혀 다시는 흩어지지 않도록 하고, 오 이스라엘 백성들아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너희들과 더불어 맺으신 언약이 성취되게 하라.

"참으로 그리스도께로 나아와 그 안에 서 온전하게 되며, 경건하지 아니한 모든 것을 부인하라."(모로 10 : 31-32)

오 시온의 딸들이여, 여러분의 아름다운 옷을 입으십시오. 주 하나님이신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위대하고도 장엄한 유산에 맞게 생활하십시오. 세상의 흙속에서 일어나십시오. 여러분은 신성한 생득권을 지닌 자녀로서 하나님의 딸임을 아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영예롭게 하심을 알고 또 여러분 자신은 이 하나님 왕국에 속해 있다는 것과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없는 자신이 해야 할 위대한 사업이 있음을 알고 있으니 여러분의 머리를 높이 들고 햇빛속을 걸으십시오.

우리 교회에 훌륭한 여성들이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부심과 진리에의 확신을 심어 주셔서 여러분을 모든 폭풍우로부터 안전히 지켜줄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강화해야 할 시기

바바라 비 스미스 자매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

"복음의 원리는 영구적이며 시의 적절하고 우리의 현실적인 요구에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줍니다."

힐리 부대관장님, 맥스웰 장로님, 라슨 장로님, 영 회장님, 캐넌 회장님, 아름다운 초등협회 소녀들과 청녀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상호부조회 자매 여러분 : 우리는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에 관해 말하고자 함께 모였읍니다. 비록 우리는 연령이나, 삶의 과정, 환경에 따라서 서로 다른 처지에 놓여 있기는 하지만 합창단이 방금 부른 찬송가 속의 경전 말씀은 노소를 막론한 우리 모두를 위한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시편 27 : 1)

우리가 이 메시지를 통하여 복음의 원리는 영구적이며 시의 적절하고, 영원한 진리는 우리의 현실적 요구에 명확한 해답을 제시한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분명히 새겨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요구는 한없이 다양하고 한결같이 절박함을 내포하고 있으나 그러한 해답을 모색함에 있어서 우리는 분명한 사실을 소홀히 할 때가 있읍니다. 왜냐하면 훌륭한 해결책은 알려지지 않은 사실에 있기 보다는 오히려 사용하지 않은 것에 흔히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충만하고 순수하게 이 지상에 복음을 회복하셨으며 교회를 조직하시어 계율을 생활 원리로 바꾸어 놓고 믿는 자들을 성도가 되게 하는 방편으로 삼으셨읍니다. 성도가 된 그들은 개종자로서 강한 신앙으로 계율을 시험하고, 그리하여 주님의 능력으로 목표가 성취되고 희망이 실현되며, 그들 자신의 능력이 커지는 것을 그들은 목격했읍니다.

아이오와시에서 솔트레이크 계곡까지 가는 길에서 이른 겨울 눈 속에 발이 묶였던 마틴 손수레 부대의 참담한 정경을 묘사한 기록을 보면 우리는 "피골이 상접한 중에도 아직도 찰 이겨 나가고 있는 용감한 스코틀랜드 소녀" 마아가렛 맥그리쉬에 관한 기사를 읽을 수 있읍니다. 녹아 내리는 눈덮인 얼음강을 건너고, 눈보라와 배고픔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고통을 감내해 가며 그들이 마침내 계곡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낡은 수레를 끌고 여전히 그들의 두 다리로 굳굳이 나아가는" 사람들 중에 끼여 있었읍니다.

개척 시대의 여성에게 요구되었던 사항이 오늘날 여성들이 흔히 당면하게 되는 여러 문제점보다 훨씬 더 영웅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 현대 여성들은 모든 범위의 문제 즉, 질병, 이혼, 마약, 죽음, 부도덕, 경제적 불안정, 학대, 고독, 낙담, 미혼모, 등등 여성들이 항상 싸워 왔으며 지금도 싸워야 하는 문제에 휩싸여 있읍니다.

우리는 사회 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우리 앞에 수많은 문제가 밀어 닥치는 시대에 살고 있읍니다. 우리는 여성의 일은 중요한 일이며 아직도 수행해야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자녀들은 육신 생활의 경험을 쌓아야 하는데 그것은 자녀를 필요로 하며 양육하고 사랑하고 돌보아야 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성들에게 훌륭한 가정을 이루고 가족을 잘 돌보는 기본적인 책임을 주셨읍니다. 어떠한 시련이 닥쳐오든지, 우리는 이 생명력 있는 영

원한 사업을 성취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훌륭한 가족 생활은 결코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과거의 여성에게도 그러했으며,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은 교육을 필요로하며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대항하며, 제율을 생활 원리로 바꾸어 우리를 성도답게 만들게 되기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오늘날의 우리들에 관한 예를 찾아볼 수 있읍니다.

최근에 침례를 받고 상호부조회 공과 교사의 부름을 받아들인 자매를 생각해 봅시다. 어느 일요일 아침에 그녀는 차편이 없어서 모임 장소까지 11마일을 걸어와서 공과를 가르침으로써 그녀의 책임을 완수했읍니다.

어떤 상호부조회 회장은 비활동인 귀머거리 자매를 방문하여 그녀가 모임에 참석하여 토론에도 전혀 참여할 수 없으므로 마음이 상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읍니다. 그 회장은 그 집을 떠나면서 그 자매에게 상호부조회 모임에 참석하게 되면 그녀도 함께 어울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읍니다. 그 회장과 역원들은 수화하는 법을 배웠읍니다. 그 한 개인의 필요성에 응하기 위해 그 자매들이 이 새로운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감사와 만족과 인간적인 풍요로움이 찾아 들었읍니다.

어떤 상호부조회 자매의 남편은 가족을 부양할 재물이나 뚜렷한 대책도 없이 아내와 세 명의 어린 자녀를 남겨 둔 채 불행하게도 자동차 사고로 사망했읍니다. 자신의 여건과 개인적인 자원과 재능을 살펴보고 그 용감한 아내는 자녀들이 학교에 간 사이에 자신의 학업을 마치고 가족을 재정적으로 부양할 계획을 세웠읍니다. 근검 절약하고 주님께 의지함으로써 가족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 줄 수 있었읍니다. 더우기 그 자매의 연로한 부모님도 친절과 사랑으로 돌보아 드렸읍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조직하셨다 할지라도 복음을 갖고 있는 우리들은 행할 바를 행하고 "도를 행하는 자"(야고보서 1 : 22)가 되어 행하는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알게 되도록 우리의 생활을 설계해야 합니다. 그러한 능력은 우리가 주님의 축복을 받도록 준비하고 그를 인식하고 그의 방법이 우리의 방법이 되도록 그의 은사를 사용할 때 오게 됩니다.

즐겨 부르는 말일성도 찬송가 "오 높은 영광 보좌"에서 엘리자 알 스노우는 죽음을 초월하는 가족 관계의 지속성을 노래로 찬양했으며 하늘 양친과의 영광스러운 재회를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읍니다. 비극적인 죽음으로 부모를 잃은 사랑하는 친구 지나 헌팅톤을 위로하기 위해 기록한 잘 알려진 이 찬송가의 가사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하여 회복된 진리를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읍니다.

주의깊게 살펴보면 우리는 계시된 진리, 신권 지도자, 개인의 재능, 봉사의 기회 등 하나님께서 말일성도 여성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주신 몇 가지 은사를 교회 역사에 나오는 한 가지 사건에서 찾아볼 수 있읍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든 여성에게 주어질 수 있으며 가장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여 강하게 믿고 나

가 승리를 쟁취하도록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있읍니다.

엘리자 알 스노우는 자신의 재능을 사용하여 친구에게 인정어린 봉사를 행했으며 신권 지도자들에게 협조했으며 계시된 진리를 훌륭하게 표현했읍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요셉 스미스가 거룩한 숲에서 무릎을 꿇고 질문을 한 것은 우리 모두를 위한 질문이었읍니다. 그가 받은 응답은 우리가 생활을 구축하는 데 쌓아야 할 기본적인 진리에 대한 확실한 기반을 마련해 주고 있읍니다. 그는 또한 개인적인 기도를 통해서 영원한 진리가 개인의 필요성에 답한다고 설명했읍니다. 하늘의 권능은 우리가 우리의 당면한 관심사에 영구성을 연관시키고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든지 이것은 복음의 가장 강력한 최대의 개념으로 구세주께서 다시 오시리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분을 강화시키는 때가 될 수 있읍니다. 또한 그분은 이렇게 권고 하십니다. "내가 속히 임하리니."(계 3 : 11) 우리는 주님이 오실 것을 꾸준히 기대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은 우리의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자세입니다. 이것을 유혹과 태만에 대한 우리의 방파제가 되게 합시다. 그로 인하여 우리가 구세주의 말씀을 읽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주께서 가르치신 모든 의의 원리에 따라 살려 노력하는 계기로 삼읍시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주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해야 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그가 오실 때 우리가 그를 아는 것은 우리와 그분이 같기 때문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요일 3 : 2 참조)

주께서 우리에게 빛과 구원이 되기를 바라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아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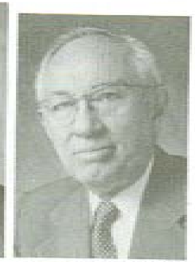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인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과 정원회 회원인 마크 이 피터슨 장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총관리 역원

대관장단

매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
제1보좌

스펜서 더블유 킴볼 대관장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제2보좌

십이사도 평의회

에즈라 태프트 벤슨

마크 이 피터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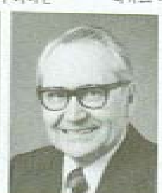
하워드 더블유 헌터

토마스 에스 몬슨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애쉬튼

브루스 알 맥콩키


엘 톰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제임스 이 파우스트

닐 에이 맥스웰

제이 토마스 파이언스 칼로스 이 애시 엠 러셀 밸라드 딘 엘 라슨 로이든 지 데릭 지 호머 더햄 리차드 지 스코트

칠십인 제일 정원회

매리온 디 행스 에이 디어도어 터틀 프랭클린 디 리차즈 디어도어 엠 버튼 폴 에이치 던 하트만 렉터 이세 로렌 시 던 로버트 엘 심슨 렉스 디 피네가 윌리엄 그랜트 뱅거터 로버트 디 헤일즈

애드니 와이 고마츠 조셉 비 워스린 진 알 쿡 찰즈 에이 디디어 윌리엄 알 브래드포드 조지 피 리 존 에이치 그로버그 제이콥 디 야거 본 제이 페더스톤 로버트 이 웰즈 제임스 엠 패러모어

휴 더블류 피녹크 에프 엔지오 부세 요시히코 기쿠치 로널드 이 포울맨 데릭 에이 커스버트 로버트 엘 백맨 렉스 시 리브 일세 에프 버튼 하워드 테드 이 브루어톤 잭 에이치 고슬린드 안젤 아브레아

관리 감독단

에이치 버크 피터슨 제1보좌 빅터 엘 브라운 관리 감독 제이 리차드 클라크 제2보좌

칠십인 제일 정원회 명예 회원

명예 축복사

엘드리드 지 스미스 스터링 더블류 실 헨리 디 테일러 버나드 피 브록뱅크

제임스 에이 컬리모어 조셉 앤더슨 존 에이치 반덴버그 오 레슬리 스토운

주님의 자녀를 가르치기 위해 준비함

드왠 제이 영 자매
본부 초등협회 회장

"자녀들이 선한 목자의 음성과 친숙하게 되는 것은 오직 말씀을 들려주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 주는 것 뿐입니다."

오늘밤 나는 어느 정도 장래가 촉망되는 피아니스트였던 한 소녀에 대해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녀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녀의 어머니는 매일 그녀와 함께 피아노 의자에 앉아 악보를 가르쳐 주고 그녀가 첫 곡을 연습하여 익히도록 도와 주었읍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 현명한 어머니는 자신이 알고 있는 만큼은 다 그녀에게 가르쳐 주었다는 생각에서 전문 교사에게서 레슨을 받게 해야겠다고 결정을 내렸읍니다. 그녀는 꾸준히 연습을 계속하여 고등학교에 다닐 때 교향 악단과 피아노 협주곡의 일부를 연주할 기회를 갖게 되었읍니다.

그녀는 연주회가 있는 날 밤에 홀을 들어가면서 무척 흥분이 되었읍니다. 그녀는 완벽하게 준비를 해 두었기 때문에 자신감에 넘쳐 있었읍니다. 그녀는 피아노 의자에 자리를 잡고 앉았읍니다. 지휘자는 지휘봉을 집어 들었으며 그녀는 지휘봉을 향해 머리를 들었읍니다.

갑자기 그녀의 눈에 아는 사람의 얼굴이 비쳤읍니다. 그 때문에 그녀는 주의가 산만해져 지휘자의 신호에 응하지 못했읍니다. 그녀는 머리가 멍해지고 아무 것도 기억이 나지 않았으며, 손가락이 얼어 붙었으며 악보의 첫 부분이 전혀 머리에 떠오르지 않았읍니다. 지휘자는 다시 그녀에게 신호를 보냈지만 그래도 반응이 없었읍니다. 얼마간 고통스런 시간을 보낸 후에, 누군가가 그녀에게 악보를 전해 주어서 시작할 수가 있었읍니다.

그 곡이 끝났을 때 그녀는 무대에서 쏜살같이 뛰어 나갔으며 그 일로 인해 완전히 좌절했읍니다. 그녀는 땅 속으로 푹 꺼져 들어가고 싶었읍니다. 부모나 친구나 악단 단원 또는 그 청중들 중의 어느 누구와도 만나지 않을 수만 있다면 무엇이라도 하고 싶었읍니다. 갑작스럽게, 극히 짧은 순간에 그녀는 그녀의 모든 생이 끝나 버렸다고 생각했읍니다. 그러나 물론 그것은 그렇지 않았읍니다. 그녀는 일어나서 연주회의 홀을 걸어나가지 않으면 안되었읍니다.

그녀는 죽지 않았으며 세상이 끝나 버리지도 않았읍니다. 사실 그 중요한 날에 지휘자의 신호를 지나쳐 버린 기록은 없읍니다. 나는 알고 있읍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로 그 소녀였읍니다. 나의 선생님이 할 수 있다고 말해 주었기 때문에 나는 다른 곡을 연주하고 다른 청중들 앞에서 연주할 수 있었읍니다. 또한 부모님은 나에게 계속해 나갈 것을 일깨워 주셨읍니다. 그 일을 생각해 보면 지금도 부끄러운 마음에 어쩔 바를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비록 내가 피아노 연주를 위해 준비해 왔으나, 또 다른 면에서도 준비해 왔기 때문에 나의 생이 그날 밤에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읍니다. 아마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내가 용기를 갖고 계기하도록 가르치고 준비시켰던 것일 것입니다.

나의 준비 기간 동안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복음 원리에 따른 경험을 해 나가도록

조심스럽게 인도해 주었읍니다. 그러한 가르침은 내 마음 속에서 훌륭하게 자라나 아름과 당혹의 시간을 당해서도 내가 홀로 있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읍니다. 나는 피아노를 연주하는 것보다 생의 값진 경험에는 그 이상의 것이 있음을 알고 있었읍니다.

경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읍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잠 22 : 6) 부모에게 주어진 한 가지 주요 임무는 자녀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위 "가치 체계"라고 하는 것을 제공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 계획은 가치있는 인간 생활과 개인의 큰 중요성을 우리가 명심하도록 고안되어 있읍니다. 주님은 삶의 목적이 있음을 알려 주셨읍니다. 그 목적은 우리 각자가 값진 영생을 얻게 하는 그리스도의 속성을 익히는 것입니다.

육신 생활의 기간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고후 5 : 7 참조)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도를 행하는 자가 되기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야고보서 1 : 22 참조) 지식을 얻고 어느 정도의 지혜를 터득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또한 알고 있는 바를 지혜로 행해야 합니다. 또한 최종적으로, 주님께서 정의한 바에 따르면 서로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킴볼 대관장님은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의 사명을 행하도록 심부름 보내신다고 말씀했읍니다. (엔사인 1981년 5월호, 78페이지)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사랑 곧,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을 배우는 첩경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양육하고 재생시키는 것입니다. 사랑은 인생을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그 힘은 아픈 마음을 달래 주고 생기를 불어 넣어 줍니다. 사랑은 주님과 우리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사람에게서 우리에게 옵니다. 그것은 우리가 궁핍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의 봉사를 행할 때 우리의 생활에 임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이해함은 우리의 가치관을 보증해 줍니다. 이러한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가르치도록 요구하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복음 원리를 이해하고 복음에 따라 생활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여주는 언행 일치의 생활의 본보기를 자녀들이 따라 배우게 함은 중요한 일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꾸준히 자녀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읽고 경전 말씀을 토론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자녀들이 선한 목자의 음성과 친숙하게 되는 것은 오직 말씀을 들려 주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 뿐입니다. 우리는 어린 자녀들을 껴안고 자장가를 불러 주고 중요한 일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부드럽고 온화한 엄마의 사랑의 품 안에서 자녀들은 주님의 음성을 알게 됩니다. 그런 후 세월이 흘러 일상 생활의 압박을 받는 시기가 되면, 어려서 받은 가르침과 방법을 활용하여 어려움을 극복하게 됩니다.

우리는 배우고 성장하며, 자녀들을 가르치고 준비시키지만,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또 다른 책임은 양을 먹이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 앞에 그의 신앙과 충절을 고백하고 나셨을 때 예수께서 그를 돌아 보시며 하신 다음 말씀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요 21 : 15-17).

우리 자신이나 우리 가족의 테두리 밖에도, 우리는 책임을 지고 있읍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 속에서 키워 오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내 보인 똑같은 간증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서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든 간에 우리는 주의 양을 먹이고 그들의 참된 가치와 영원한 가능성에 대해 그들을 이해시킬 책임이 있읍니다.

매일 매일의 생활에서 우리는 이웃, 상점 주인, 연관공, 건축자등 수많은 사람들을 접하게 됩니다. 우리의 생활에서 스쳐 지나가

는 사람들의 줄은 거의 끝이 없읍니다. 그들이 방편과 신앙을 찾는데서 우리의 행위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요? 나는 우리의 모범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의 양을 먹이는데 일익을 담당하는 모범을 보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준비해야할 시간은 지금입니다. 열 처녀의 비유에서 주님은 우리가 신랑이 올 때 맞을 준비를 갖출 것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마 25 ; 1-13 참조) 우리는 매일의 생활에서 복음에 따라 생활할 것을 다시 다짐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기도함으로써 기도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경전을 연구함으로써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배울 필요가 있읍니다.

참으로 복음 생활을 위해 준비하는 것은 결국 피아노를 배우는 것과 아주 흡사합니다. 우리가 멀리 떨어져서 악보를 익힐 수는 없읍니다. 여러 번 계속해서 손가락으로 건반을 두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선생님이 우리가 익히는 경험을 쌓도록 지도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사랑과 봉사를 행할 기회를 주어 스스로 그 방법을 몸에 배게 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도움을 받아 슬픔과 고통을 극복하며, 그의 지도와 그의 지원의 힘을 구하는 방법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 각자가-우리 개인의 목표 달성에 필요한 힘을 얻기 위해-준비할 때 입니다. 나는 주님께서 우리가 그에게 돌아 서기만 하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자 학수 고대하고 계심을 알고 있읍니다. 나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권고를 잘 받아들여 필요한 신앙을 모두 갖추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아멘. *

대회 방문자

자유의지와 책임

엘레인 케넌 자매
본부 청녀회장

"영적인 성숙이란 우리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어느 훌륭한 형제가 그의 와드에서 소년단 연회를 준비하라는 임무를 받았읍니다. 그는 열심히 일했고 준비해야 할 것을 선택하여 실행에 옮겼읍니다. 식탁이 차려졌으며 음식이 준비되었으며, 시간도 거의 다 되었읍니다.

그의 아내가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일찍 왔읍니다. 모든 것이 제대로 잘 준비된 것 같았으나, 그녀의 세련된 눈에는 색상이 너무 단조롭게 보였읍니다. 그녀는 그에게 말했읍니다. "잘 되었어요. 하지만 장식대에는 무엇을 사용할 건가요?" 정신이 번쩍 든 그는 따따한 장식을 보고 잠시 동안 신중히 생각해 보았읍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남성다운 의사를 표명하여 이렇게 대답했읍니다.

"버터-버터를 덩어리채 놓아야겠오." 자, 그것을 여러분은 선택의 자유, 곧 자유의지라고 부를 수 있읍니다. 우리가 여기서 잠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자유의지와 책임에 관한 것입니다. 나는 우리가 장식대를 위해 버터를 선택할 경우라면, 우리는 장식에 대한 칭찬은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덧붙여 말씀드려야 하겠읍니다. 우리는 자유의지를 갖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선택의 결과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장식대의 경우에는 그렇게 심각할 것이 없지만, 인생과 사후의 생활의 문제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유의지는 영원한 원리이며, 인생의 시험에 있어 절대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선과 악이라는 상대되는 것 중에서 항상 선택을 하게 됩니다. 사탄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무너뜨리려고 하며 이곳 지상에서 그는 아직도 인간을 죄에 빠뜨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읍니다.(모세서 4:3-4 참조)

우리가 자유의지를 현명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읍니다. 우리는 생명의 율법 곧 그에 수반되는 축복과 형벌을 예방하는 지식을 알 필요가 있읍니다. 우리가 복음 곧 "너희는 ……할찌니라"와 "너희는 ……말찌니라"의 원리를 알 때, 우리는 더 훌륭한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경전은 우리에게 그것을 상기시켜 주고 있읍니다. "진리를 알찌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한복음 8:32)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충만한 진리를 찾고 그것을 우리의 생활에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행동하는 것은 자유지만, 옳고 그른 것까지 결정할 자유는 없읍니다. 그것은 아주 오래 전에 결정되었읍니다. 우리는 신성한 것을 조롱할 수 있으며, 우리의 행위를 합리화하고, 우리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거나, 찬성 또는 거부를 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떠한 것도 변경시키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인 그의 진리를 변경시킬 수 없읍니다. 우리는 진리를 현명하게 사용하고, 우리의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으나, 또한 우리는 진리를 배워 그에 따라 생활하기를 거부하고, 피할 수 없는 벌을 받을 수 있읍니다.

책임은 자유의지의 본질적 산물이며 인생의 계획에 있어 기본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며, 일상 생활에서 우리가 선택한 것에 대해 하나님에게 책임을 져야 합니다. 생명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사이며, 생명을 받아 우리가 행하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갈라디아서도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읍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갈 6 : 7) 자매 여러분, 이것을 간단한 말로 바꾸어 보자면 여러분이 막대의 한쪽 끝을 잡아든다면, 또한 막대의 다른쪽 끝도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길로 들어선다면, 그 길에 당아 있는 곳을 택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에게 자유의지와 책임의 극적인 면을 보여주었던 인상적인 장면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읍니다. 나는 대만의 시골 호텔에 투숙한 일이 있었는데, 여러 층 위에 방이 위치해 있었으므로 귀여운 대만 어린이들이 무리를 지어 학교로 가는 광경이 창문가에서 내다 보였읍니다. 유리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얼마간 떨어져 있는 학교도 잘 볼 수 있었읍니다. 그 어린이들은 학교가 시야에 보이지는 않았으나, 학교가 어디에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읍니다. 그리고 물론 그들은 내가 보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읍니다. 비오는 날, 그들은 깨끗하게 물을 먹인 짧은 세라복 치마나 바지로 된 학교 교복에 비옷을 입고 있어 더욱 예쁘게 보였읍니다. 어떤 어린이들은 부주의하게 그들의 비옷을 질질 끌리게 입었으며 잘 입지 않아 바람에 날리는 아이들도 있었으며, 마치 하나님의 전신 갑주처럼 비옷 단추를 꼭 여미고 입은 아이들도 있었읍니다.

그들이 걷고 있는 들길은 잘 다듬어져 있었지만, 큰 진흙 웅덩이와 키가 큰 풀 사이에 숨을 수 있는 신나는 장소와 길 건너편에 있는 작은 가게의 유혹이 있었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이 되는 그 어린이들은 물결치듯 자신들의 자유의지에 따라 천천히 걸어 약간 돌아서 호텔 모퉁이를 돌아가거나 또는 목표 지점인 학교를 향해 서둘러 갔읍니다. 그것은 자기 마음대로 정할 수 있었읍니다. 부모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읍니다.

나는 어린이들이 그들의 환경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흥미있게 지켜보았읍니다. 어떤 아이들은 일부러 진흙 구덩이를 곧장 밟고 지나가 지저분하게 되었읍니다. 다른 아이들은 거의 진흙 구덩이를 잊은 채, 구덩이 위를 무의식적으로 걸어 갔읍니다. 많은 어린이들이 발에 진흙이 묻는 것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었읍니다.

그 후에 한 작은 소녀는 허리를 구부려서, 그녀의 신발에 묻은 진흙을 닦아내고 손에 묻은 흙을 옷에 문질러 닦고는 옷에 묻은 진흙을 털어 냈읍니다. *진흙은 쉽게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창문을 통해 본 생활입니다. 자유의지와 책임입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선택을 했고 우리도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비오는 길을 걷고 있는 어린들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한다면 인생의 진흙 구덩이 속이나 그 주위를 걸을 수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택에는 그 결과가 따르게 됩니다. 우리가 영원히 되기를 선택하는 것은 곧 이루어 집니다.

영적인 성숙이란 우리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어떤 요소들은 우리가 우리를 위해 마련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행동하기 힘들게 하는 수도 있으나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것은 우리 자신의 행위에 대해 대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인류의 첫 아머니인 이브를 가장 존경하는 점은 개인적 책임에 대하여 절대적인 힘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면전으로 불리워간 그녀는 루시퍼가 그녀에게 과일을 먹으라고 유혹했다고 말하였읍니다. 그러나 그때 그녀는 "내가 먹었나이다."(모

세서 4 : 19)라고 인정하였읍니다.

완전히 순종함으로써 예수는 승리하였읍니다. 그는 사탄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았읍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한다면, 우리는 결과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읍니다. "오, 주님이시여, 저의 뜻대로 마시고 당신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는 것은 시련과 결정의 시기에 위안이 될 것입니다. 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순종하는 여러분에게 보이시는 주님의 뜻은 여러분의 궁극적인 기쁨을 의미합니다.

자매 여러분, 그러나 나는 걱정이 됩니다. 나는 때로 우리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지, 어느 것이 해롭고 최악인가 그리고 왜 그런가를 알고 있는지 반면에 우리가 순종한다면 현세 뿐만 아니라 내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보상으로 준비하신 영광에 대해 우리가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있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나는 어머니들이 정말로 딸에게 진리와 자유의지와 책임에 관하여 가르쳤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딸들은 그들이 배운 것을 어머니와 함께 이야기하고 있읍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성장하도록 서로를 도울 때, 개인과 가족은 강건하게 됩니다.

매주 공과에서 암송하도록 청녀 담당 총관리 역원에 의해 승인된 1984년도 성구 주제는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이든 명하시는 대로 *이룰 수 있는 방편을 미리 마련치 아니하시고*는 명하지 않으심을 제가 아오니, 주께서 명하신 대로 가서 행하겠나이다."(니파이일서 3 : 7)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도록 주어진 일을 할 수 있읍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구속주의 권능을 느낄 수 있읍니다. 우리가 항상 올바른 선택을 하려고 노력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자매 여러분, 완전히 순종할 수 있을 정도로 주님을 사랑합시다. 지금은 힘을 갖추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힘을 모아 침례를 통해 성약을 맺고, 신전에서 굳건히 서며, 우리가 받은 만큼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성도들이 되기 위해 선택해야 할 시간입니다.

최근에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이러한 막중한 책임에 관해 깊이 생각했읍니다. —청녀는 많은 지도와 보호와 사랑을 필요로 하고 있읍니다. 그러면서 한편 나는 무력함을 느꼈고, 세상의 모든 사악하고 영악한 사람들에 대하여 내가 얼마나 많은 약점을 지니고 있는가를 생각하며 한 동안 기운을 차릴 수가 없었읍니다. 그러나 진실한 기도를 드린 후 나는 영의 감동을 받는 나의 마음 속 깊은 곳을 들여다 볼 수 있었읍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내가 포기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읍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이던 내가 무엇을 극복해야 하던지, 나는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선하게 사용하여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가정 복음 교육과 활동 촉진에 관한 대관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의 말씀 내용

대관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는 교회의 와드와 지부에서 신권 가정 복음 교육과 활동 촉진에 관한 정책을 발표하였다.

연차 대회에서 십이사도 정원회의 데이비드 비 헤이트 장로가 읽은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이 발표되었다. (1)비활동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와 수련 장로와 그들의 가족을 담당하는 가정 복음 교사의 임명. (2)그러한 지명을 하기 위한 절차.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님은 신권 소유자가 정원회에 의해 조직되어야 한다고 계시로 지시하셨습니다. 정원회 회장단은 각 정원회 회원의 활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정원회 회원들이 '각 회원의 가정을 방문'(교성 20 : 51)하여, 가정 복음 교육을 하는 것은 정원회 회원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강건하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됩니다.

관리 대제사이며, 멜기세덱 신권 정원회 회장과 그룹 지도자와 함께 협의하는 가정 복음 교육 위원회인 와드 신권 집행 위원회의 위원장인 감독은 가정 복음 교육 목적을 위해 가족들을 정원회와 그룹에 임명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원들은 그들의 정원회로부터 가정 복음 교사를 지명받게 됩니다. 그러나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우정과 교육을 가장 유능하게 할 수 있는 정원회 또는 그룹이 비활동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와 수련 장로 그리고 그들의 가족에게 가정 복음 교육을 하도록 임명할 수 있읍니다. 가정 복음 교사는 자신의 정원회 회장 또는 그룹 지도자에게 보고를 합니다.

"비활동 회원을 가르치는 데 특별한 재능을 갖고 있는 형제는 선정된 비활동 가족에 대한 가정 복음 교사로 감독에 의해 임명되어야 합니다. 그 가족이 활동 회원으로 되었을 때, 교사는 다른 비활동 가족과 함께 일하도록 임명될 수 있읍니다.

"대제사로 지명된 비활동 장로 또는 수련 장로가 가정 복음 교사에 의해 신권 모임에 참석하게 될 때, 그는 자신의 필요에 따라 대제사 또는 장로 정원회에 참석할 수 있읍니다. 감독은 멜기세덱 신권 정원회와 그룹 지도자와 함께 협의하여 이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수련 장로가 멜기세덱 신권을 받기에 적당한 때가 되면, 그는 장로로 성임되어야 하며 장로 정원회의 회원이 됩니다. 이러한 형제들이 멜기세덱 신권에 성임되는 데에는 연령이 결정적인 요소가 되지 않습니다. 형제들은 그들의 부름의 요구에 따라 그리고 영감에 의해서 그리고 그들의 합당성에 따라 신권의 직분에 성임되는 것입니다.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가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회장단으로 지지받음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는 교회의 반 연차 대회의 개회 모임에서 정원회 회장단의 일원으로 지지받았다.

그의 지명으로 프랭클린 디 리차즈 장로가 정원회 회장에서 해임되어 생긴 공석이 채워졌다. 리차즈 장로는 워싱턴 디 시 신전의 신전장으로 부름을 받았다.

스코트 장로는 제이 토마스 파이안스, 칼로스 이 에시, 엠 러셀 밸러드, 딘 엘 라슨, 로이든 지 메릭, 지 호머 더럼 장로와 함께 회장단으로 봉사하게 된다.

연차 대회의 폐회 모임의 말씀에서 스코트 장로는 새로운 부름이 그를 "매우 겸손하게 해주었다고 말하였다.

"나는 그것에 관하여 주님께 의논했고 일에 임하여 내가 바쳐야 할 최선을 다 하겠다고 주님께 약속했읍니다. 나는 주님의 뜻대로 행하고 주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영감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질을 갖추도록 도와 주시기를 주님께 간청했읍니다."

스코트 장로는 1977년 4월 2일에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회원으로 지지받았다. 전적으로 교회 일을 맡아 하는 부름을 받기에 앞서, 그는 워싱턴 디 시 지역의 지역 대표로 일했으며, 아르헨티나 북 선교부의 선교부장으로 봉사했다. 그는 또한 워싱턴 스테이크 부장단의 보좌와, 칠십인 그룹 지도자로 일했다. 젊은 시절에 그는 우루과이에서 31개월 동안 선교 사업을 했다.

현재 그는 제보과의 관리 책임자이며 중앙 아메리카와 남부 멕시코를 담당한 교회의 집행 관리자이다.

스코트 장로는 1950년에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기계 공학 학위를 받았으며, 후에 테네시 주에 있는 오크리지에서 핵 공학 박사 과정을 이수했다.

그는 기계 공학과 핵 공학에서 배운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핵 원자로의 이용 가능성을 가늠하는 동력 회사의 고문으로 일했다.

12년 동안 그는 하이만 지 릭커버 해군 대장의 참모로 일하면서 핵 잠수함의 발전을 도왔다. 그는 처음으로 평화시에 대비한 원자력 시설의 설립에 공을 세웠으며, 그러한 시설의 건설과 활용에 관한 두 권의 책을 발간하였다.

아이다호 주의 포카텔로 출신인 그는 케네스 르로이 스코트와 메리 엘리사 휘틀 스코트 사이에서 1928년 11월 7일에 출생하였다. 그는 제닌 와킨스와 결혼하여 5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

상호부조회 보좌 임명

거의 13년 동안 본부 상호부조회 임원으로 일해 온 앤 스토더드 리스 자매는 교회의 153차 반 연차 대회의 개회 모임에서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의 제2보좌로 지지받았다.

그녀는 셜리 앤 윌크스 토마스 자매의 후임이다. 토마스 자매는 올 여름에 오스트랠리아 멜버른 선교부의 선교부장으로 임명된 그녀의 남편 로버트 케이 토마스와 함께 봉사하고 있다.

리스 자매는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에서 본부 회장인 바바라 비 스미스 자매와 제일 보좌인 메리안 알 모이어 자매와 함께 봉사하게 된다.

새로운 보좌는 전세계의 말일성도 여성과 함께 일함으로써 받게 되는 풍부한 보상을 기대한다고 말하였다. "어느곳에 있던지간에 자매들을 돕는 헌신적인 여성을 보는 것은 매우 기쁜 일입니다."라고 그녀는 말하였다. "오늘날의 압박과 문제에도 우리 여성들은 강건해야 합니다. 우리는 상호부조회를 통해 서로를 강건하게 만듭니다."

리스 자매는 이전의 본부 회장인 벨 에스 스패포드 자매와, 스미스 자매 밑에서 상호부조회 본부 임원으로 봉사하였다. 그녀는 전에 24년 동안 상호부조회 본부 임원회에서 봉사했던 블란치 스토더드 자매의 딸이다.

리스 자매는 본부 임원회의 방문 교사 위원회의 회장으로 일하고 있다가 새로운 직분으로 부름받았다. 그녀는 전에 어머니 교육 위원회의 회원으로 수년간 봉사했다.

그녀는 다른 세 와드 또는 선교부 지역에서 상호부조회 회장으로 15년 동안 봉사한 경험이 있다. 그녀는 또한 그녀의 가족이 택사스와 캔사스, 플로라도, 유타에 사는 동안 여러 가지 다양한 교사와 역원으로 교회에 봉사하였다.

그녀는 아버지인 레스터 스토더드와 그의 가족이 목재 사업을 하고 있던 당시에 오레곤주의 리그란데에서 출생하였다. 그런데 그녀의 소녀 시절에 집에서 경영하던 제재소에 불이 나, 그녀의 아버지는 유타로 옮겨 유니타 산에서 목재 사업을 시작하였다. 가족은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살았고 리스 자매는 유타 국립 대학에 다녔으며, 그 후 레스터 지 리스와 결혼하였다. 리스 자매는 결혼한 자녀 3명과 9명의 손자를 두고 있다.

본부 상호 부조회 회장단

회장인 바바라 비 스미스 자매

제1보좌인 메리안 알 모이어 자매

제2보좌, 앤 스토더드 리스 자매